

찬란한 사유의 땅
전북



All Inclusive 빈틈없이 준비된 휴식의 여정

온전한 휴식으로의 몰입을 위하여 지내시는 동안 별도로 준비하실 것이 없도록 모든 것이 포함된 휴식의 여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01 온전한 휴식으로의 진입을 알리는 첫 인상



02 차와 함께 따스한 환영을 경험할 수 있는 체크인 여정



03 머무는 동안 나만을 위해 마련된 정원과 객실



04 순수성을 담은 온천수의 심층적인 경험



05 미각과 시각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저녁 코스



06 공해적 빛이 차단된 야간 노천 온천에서의 잊을 수 없는 경험



07 소음이 차단된 공간에서 나누는 동행인과의 깊은 대화의 시간



08 자연이 스며드는 아침에 든든함을 더하는 높은 완성도의 조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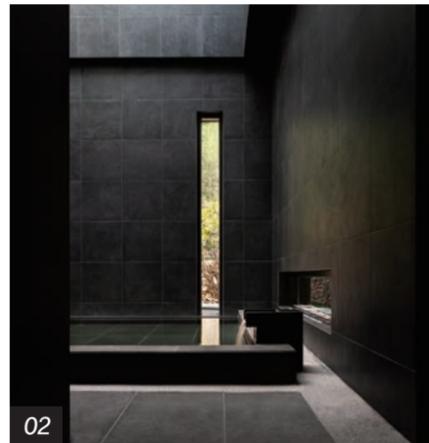
DATA

주소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주정산로 6
요금	• 정상가 160만 원~(1박 2식, 2명 1실 기준) • 조식 : 13첩 반상 한상 차림 & 석식 : 컨템포러리 파인 다이닝 코스요리
Check-In	15:00
Check-Out	11:00
객실 수	16실
식사	레스토랑(개별실/단체실)
온천	남/여(실내, 야의 노천), 대여탕(유료)
부대시설	라운지 수, 라운지 은, 카페, 테라피(유료 운영)



온천 문화의 새로운 변화
유원재 호텔&스파에서
53도 자연 용출수를 경험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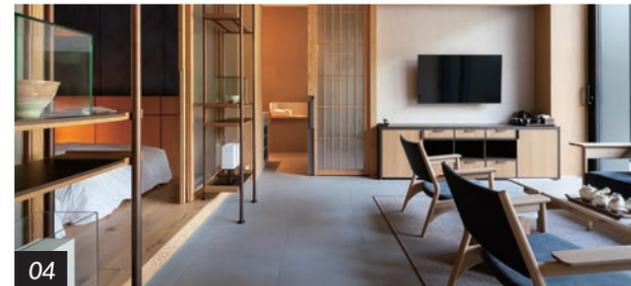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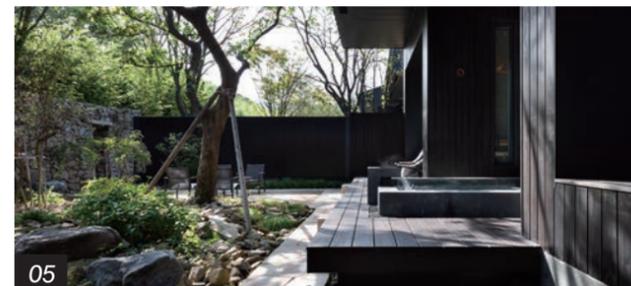
02



03



04



05



06

몰입 가능한 휴식

하루 동안 정원을 바라보며 머무는 곳이라는 의미를 갖는 유원재

수안보가 품은 아름다운 풍경과 심신에 따스함을 더하는 온천, 진정성이 담긴 공간적 체험을 통해 도심에서 느낄 수 없는 온전한 몰입의 휴식을 선사합니다.

충주시 / 수안보온천 Tel. 043-820-8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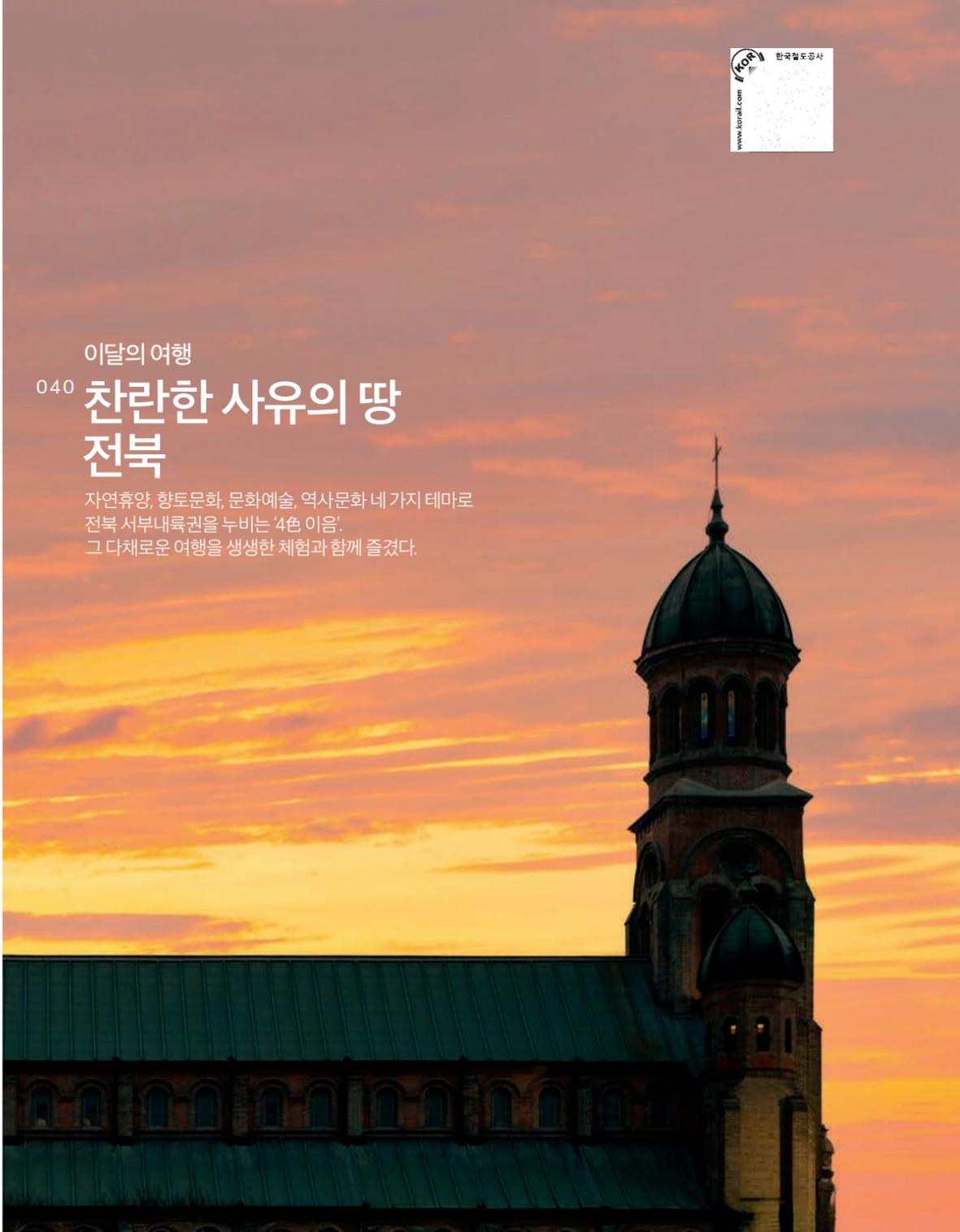


留園齋

유원재 호텔&스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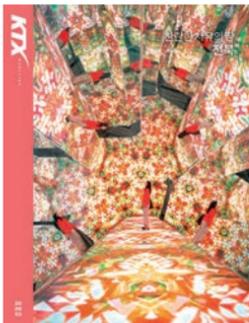
<https://www.youonejae.com>

01.라운지 수 02.실내탕 03.카페 04.객실 05.객실 정원 06.노천탕



이달의 여행
040 찬란한 사유의 땅
전북

자연휴양, 향토문화, 문화예술, 역사문화 네 가지 테마로
전북 서부내륙권을 누비는 '4色 이음'.
그 다채로운 여행을 생생한 체험과 함께 즐겼다.



표지 이야기

전북 전주 '완산빙커 더 스페이스'

전주시 완산구 완산공원 끝자락, 완산6길 입구에는 전쟁에 대비해 만든 병커가 숨은 듯 자리한다. 1973년에 설치해 2014년에 폐쇄했는데, 최근 이곳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10년 넘게 방치됐던 병커가 지난해 2월, 완산빙커 더 스페이스라는 이름의 미디어 아트 문화 공간으로 새롭게 문을 연 것이다. '폐쇄된 다중 우주와의 연결 통로'를 콘셉트로 꾸민 총 10개 전시실 중 '차원의 통로'에 들어서면 사방이 거울로 뒤덮인 터널이 화려한 LED 조명과 어우러져 활활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터널 안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조각난 공간과 미디어 아트의 각기 다른 움직임이 겹쳐져 시공간이 왜곡되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된다.



"Make the world healthy with milk."

A2
전용목장
100%
A2우유



플러스1.
체세포수1등급
세균수1A

플러스2.
EFL공법



서울우유답게
A2우유에 플러스까지

제조원/판매원 : 서울우유협동조합

락앤락 메트로 카페 세라믹 텀블러
TRUE TASTE, NOTHING ELSE



내부 세라믹 코팅으로
음료 본연의 맛 그대로



- 016 **듣는 여행**
봄이 오는 소리
전북 완주 위봉산에서 겨우내 얼어붙은 계곡 물이 녹아내려 흐르는 소리를 담았다.
- 018 **촬영지 여행**
선과 악의 균형
드라마 <오늘부터 인간입니다만>에서 구미호 은호가 참새 방앗간처럼 드나든 만화방은 경기도 부천의 한국만화박물관에서 촬영했다.
- 020 **여행자의 공간**
발효에 깃든 진심, 북촌광
한국의 식문화를 알리기 위해 발효 식품 편집숍 북촌광이 문을 열었다.
- 022 **한국의 맛**
누비꽃이 피다
전통 누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김보람 작가의 '누비꽃 바구니'를 소개한다.
- 024 **한국의 맛**
봄 바다의 선물
담백하면서도 달착지근한 맛으로 사랑받는 꽃게가 제철을 맞았다.
- 030 **시절, 풍경**
꽃잎 나리다
백목련, 산수유, 애기동백, 색색의 봄꽃을 카메라로 포착했다.
- 036 **전국 행사 달력**
3월의 전시·공연·축제 소식
봄의 시작을 알리는 콘텐츠를 모았다.
- 064 **여행의 발견**
시간을 달리는 항구도시, 목포
100여년 전 건물이 남아 있는 근대 거리를 거닐고, 바닷속에 잠들어 있던 보물 이야기를 듣는다. 시간을 거슬러 전남 목포로 떠난 여정을 펼쳐 보인다.
- 080 **기차 안 세계 여행**
치유하는 우붓
소음과 완벽히 차단된 인도네시아 발리 우붓에서 쉬고 비우고 채우는 여행을 했다.
- 090 **이 계절엔 여기**
댕댕아, 우리 여기서 놀까?
반려동물이 안전하게 뛰놀 수 있는 공원과 카페, 최고급 호텔을 망라했다.
- 114 **인터뷰**
21세기 정년이, 황지영
동시대 관람객과의 접점을 찾는 여성극극 창작자, 황지영을 만났다.



BOOK in BOOK

made in DAEGU
대구를 만드는 공간과 사람, 일곱 가지 이야기
대구의 역사를 고스란히 품은 공간과 지역에 새로운 감성을 불어넣는 사람을 마주했다.

- 122 전시 보러 갑니다
지금, 여기, 아랍
국내 최초의 아랍에미리트 현대미술전 <근접한 세계>를 조명했다.
- 130 함께 여행
수선의 기쁨
캔버스가든의 박정원 대표를 만나 한 옷의 변신 과정을 따라갔다.
- 136 에디터의 노트
어썬요, 뽀뽀의 시대
KT 온마루에서 전화기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보고, 시대별 소통 방식을 경험했다.
- 142 한국 탐구 생활
안젤리나의 동묘 탐험
프랑스 파리에서 온 안젤리나와 함께 서울 동묘 구석구석을 탐험했다.
- 148 KTX타고 도보여행
조치원 골목 산책
세종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촘촘히 뻗어 있는 조치원 골목에서 흥미로운 공간들을 발견했다.
- 158 책 속의 무대
꿈을 꾸는 건 남녀노소 불문이다
연극 <노인의 꿈>은 꿈을 향해 나아가는 두 노인을 비추며 누구나 꿈꿀 수 있다는 용기를 준다.
- 162 트렌드 읽기
제2의 전성기 맞은 셰프 방송
요리 실력과 스타성을 모두 갖춘 셰프들로 방송계가 뜨겁다.
- 164 이달의 소식
에디터가 선별한 3월의 소식
일상에 생기와 활력을 채워 줄 흥미진진한 콘텐츠를 선정했다.
- 176 플레이리스트
팔칠댄스와 떠나는 음악 여행
여유로운 무드의 팔칠댄스 음악을 감상하며 어느새 찾아온 봄을 맞는다.
- 168 코레일 소식
- 170 편의 시설 및 부가 서비스
- 172 열차 이용 안내
- 174 비상시 행동 매뉴얼



<KTX매거진> 읽어 주는 프로그램, 보이스아이

<KTX매거진>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이스아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보이스아이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한 후 보이스아이 바코드를 스캔하면 글을 읽어 드립니다.



Plus Pen 3000
P R I M E
유성볼펜으로 거듭나다

플러스펜 3000 프라임은 모나미의 플러스펜 3000 수성 디자인을 재해석한 프리미엄 유성볼펜입니다

2026년 03월호

KTX MAGAZINE

제23권 제3호 통권 제261호
2026년 3월 1일 발행

발행인 홍승표(한국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

편집 (주)반디컴
서울시 중구 퇴계로36가길 77

편집인 홍영선

편집장 최현주 kteditor@bandicom.com

수석 기자 고아라 kar@bandicom.com

기자 신송희 ssong@bandicom.com

김수아 ksau@bandicom.com

객원 기자 오유리 이미션

교열 한정아 오미경 김혜란

번역 박경리

아트 디렉터 김경배

디자이너 이원경 강보람

사진 안홍범 전재호 김은주 봉재석 황필주

광고 팀장 조현익 jony2@bandicom.com

부장 심재우 jwshim22@bandicom.com

차장 김성은 bandicom0701@bandicom.com

배포 소장 이재우

매거진 사업부 본부장 여하연 heytravel@bandicom.com

기획·제작 홍영선 nana12wq@bandicom.com

인쇄 효성인쇄사

<KTX매거진>은 KTX 열차 전 좌석에 비치하는 월간지입니다.
<KTX매거진>을 보신 뒤엔 다음 승객을 위해 제자리에 꽂아 주시기 바랍니다. <KTX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도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철도공사 내부 방침상 정기 구독은 신청받지 않습니다.

문의 | 편집 070-4117-1191 광고 02-2276-119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단법인 한국지역문화재단총연합회

예술과 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첫걸음 ARKO 조건부 기부금



조건부 기부금이란?

기부자(기업 및 개인 등)가 문화예술사업, 예술인·단체를
ARKO를 통해 직접 지정 기부하여
세제 혜택 및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

문의 donation@arko.or.kr / 02-760-4557

기부자와 수혜자 모두가 성장하는 파트너십, ARKO와 함께 하세요!



우수사례 성과집확인하기



독자이자 비평가이며 기획자로부터

이달 '편집장의 글은 <KTX매거진> 독자 설문 조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29일부터 2026년 1월 23일까지 26일간 진행한 설문 조사에 5887명이 참여했습니다. 2004년 <KTX매거진> 창간 이래 처음인 역대급 호응도 올라왔지만 참여자 중 96퍼센트, 무려 5642명이 '매우 만족한다'와 '만족한다'에 대해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주관식으로 <KTX매거진>에 바라는 점을 말해 달라는 항목에는 '출퇴근, 병원 방문, 야구 관람 등 KTX 이용 목적에 따른 맞춤형 칼럼이 아쉽다' '밀리의 서재, 리디셀렉트 등 전자책 구독 서비스로도 <KTX매거진>을 보고 싶다' '책 속의 책인 미니 북을 따로 모아서 팔았으면 좋겠다' '찰리의 초콜릿 공장'에 나오는 윌리 왕카의 골든티켓처럼 <KTX매거진>에 KTX 무료 승차권을 숨겨 놓는 이벤트를 하면 재밌겠다' 같은 흥미롭고 기발한 의견이 줄을 이었습니다. 목을 빼고 미간을 모은 채 모니터에 두 눈을 고정시키게 하는 5887개의 목소리. 지구 반대편까지 이어질 듯한 문장을 따라가다 보면 마치 제가 5887명과 편집 회의를 하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독자이자 비평가이며 기획자로서 <KTX매거진>을 지켜본 분들. 무려 6000건에 달하는 데이터를 살펴보면 가장 크게 감동받은 것은 길건 짧건 누구도 허투루 의견을 내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진한 애정과 응원이 바로 편집팀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병오년, 붉은 말의 기세를 몰아 <KTX매거진> 3월호도 재미있고 알찬 칼럼으로 풍성하게 채웠습니다. 먼저 표지를 비롯해 가장 많은 페이지를 차지한 칼럼은 '찬란한 사유의 땅, 전북입니다. 고아라 수석 기자가 익산, 완주, 전주, 무주, 정읍, 임실 등 전북 9개 시군을 종횡무진하며 '자연휴양, 향토문화, 문화예술, 역사문화'를 테마로 네 개의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대한민국 도에 명장의 손길을 따라 달항아리를 빙고, 전주한옥마을에서 달콤한 모주를 담그는가 하면, 열대 과일로 브런치 한 상을 차리기도 했습니다. 전남 목포로 향한 신송희 기자는 일제강점기 건물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근대 거리를 걷고, 목포해양유물전시관을 찾아 바닷속에 잠들어 있던 보물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항구도시 목포의 절경을 파노라마 뷰로 감상하는 목포해상케이블카를 카메라에 담고, 열세 척의 관옥선 모형을 교차해 쌓아 올린 고하도 전망대에 올라 충무공의 얼을 되새기기도 했습니다.

김수아 기자는 서울의 KT 온마루를 방문해 국내 최초 전화기 덕플풍부터 빼빼를 거쳐 스마트폰에 이르는 한국 통신의 변천사를 살폈고, 헌 옷과 식물성 원단으로 옷이나 가방을 만드는 캔버스가든의 박정원 대표를 만나 사물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배웠습니다. 야외 활동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 카페, 레스토랑, 호텔, 글램핑장 등 반려동물 동반에 최적의 장소를 소개했고, 3월에 여성국극 <자네는 왜 그리 광장히 기다란 담뱃대로 담배를 피이나>를 무대에 올리는 여성국극 창작자 황지영을 만나 동시대 관객과의 접점을 찾는 치열한 도전을 엿보았습니다. 전 세계 미술계가 주목하는 중동 미술이 궁금하다면, 지금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근접한 세계>를 살펴보세요. 국내 최초의 아랍에미리트 현대미술전으로, 중동 미술을 이끈 1, 2, 3세대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한달 전 <월간해군> 편집장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13년째 월간지를 만들며 <KTX매거진>에 큰 도움을 받았다는 그는 힘찬 박수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답장을 썼고, 끄트머리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하지만 그것이 배의 존재 이유는 아니다." 더 멀리, 더 낯선 곳으로 두려움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편집장 최현주



제22회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축제

전북특별자치도
작은마을축제 최우수 축제

맑은 산속, 건강 한 모금!
2026. 3. 14^토 ~ 15^일

진안군 주천면 운일암반일암 삼거광장
문의처 : 063-430-2391~3



진안 방문의 해 바로가기

홈페이지 QR코드



주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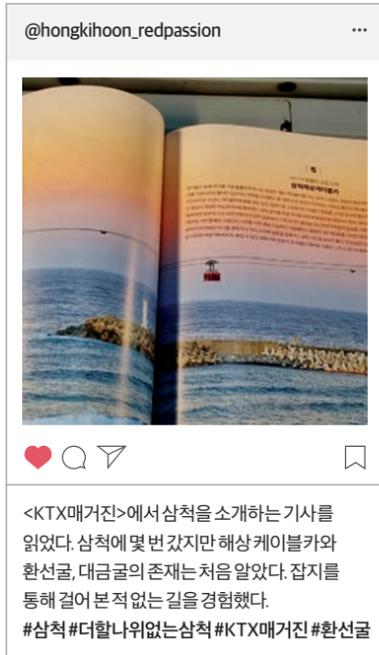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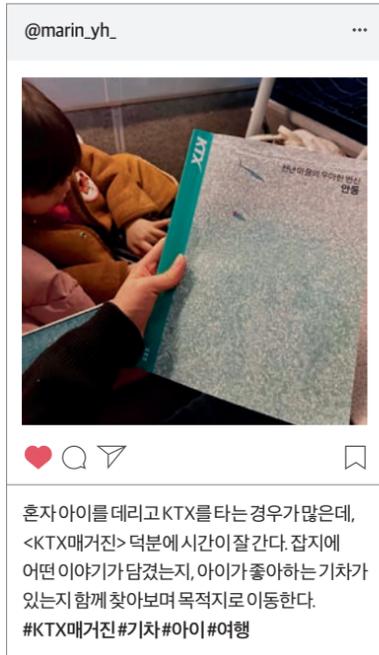


주관

진안고원운장산고로쇠축제위원회

언제 어디서나 <KTX매거진>

<KTX매거진>을 발견한 순간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마주한 여행지는 어디였나요?



SNS로 만나는 <KTX매거진>

QR코드를 스캔하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계정으로 연결됩니다.



@ktxmagine 계정을 태그하거나 #KTX매거진 해시태그를 달아 주시면 여러분의 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자 선물

'#KTX매거진'에 선정된 분께는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브랜드 아이들의 '물레 로고 우드 손거울'을 선물로 보내 드립니다. 아이로 물레 로고를 새겨 감성을 더한 손거울로, 한 손에 잡히는 크기가 휴대하기 편합니다.

제품문의 02-2256-7901



오송컨대구시수성구청수로

1월 마지막 날, 시린 겨울바람 때문에 어깨가 움츠러든다. KTX 좌석에 앉아 잡지를 펼치니 '뜨끈한 아랫목의 추억'이라는 기사가 눈길을 붙든다. 나무 뿔뿔이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며 아궁이 앞에서 두 손을 비비던 어린 시절이 떠오른다.

이름, 연락처, 주소와 함께 <KTX매거진> 3월호를 읽은 소감을 메일로 보내주세요.
메일주소 KTX@bandicom.com 기간 3월 11일까지



이나영 충남 계룡시 신도안길

지난해 여름 안동 여행을 다녀왔다. 더운 날씨에 마음도 지치고 힘들었지만 안동화회마을에서 산책하고 600년 넘은 느티나무에 소원을 적어 달았던 기억이 난다. <KTX매거진> 2월호에서 새벽 안개가 깔린 월영교를 만나니 또다시 여행을 계획하게 된다.

대명소노그룹 소노호텔앤리조트 2026년 신규회원모집

무기명 5,100만원 회원권 선착순 한정 모집!

I. 한정구좌

소노리움은 공유제 상품으로 소진 시 판매가 종료되는 선착순 공유제 상품입니다. 법인의 경우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II. 객실할인 10년·20년

객실 50% 혜택을 10년 또는 20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노리움 가입 시 사용 가능하며, 소노리스 회원 대우를 5년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노리스 객실 | 가입혜택 미적용]

III. 평생 회원권

골프, 스키, 워터파크, 직영식음업장 등 200여곳 부대입장을 최대 50%까지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생동안 누리는 회원 혜택을 경험하십시오.
[무기명 카드 6매 발급]



SONO

HOTELS & RESORTS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분께 뉴멤버십 신규회원모집에 대한 카탈로그를 배송해 드립니다. 통화가 어려우실 경우, 문자 메시지로 성함 및 주소를 보내주세요. 010-4140-6540

상담문의 02)2222-5917

비발디파크 | 델피노 | 쓸비치 양양 · 삼척 · 진도 · 남해 | 소노캄 고양 · 경주 · 거제 · 여수 · 제주 | 소노문 해운대 | 소노벨 양평 · 천안 · 단양 · 청송 · 변산 · 제주

기업은 숙련인력 확보
근로자는 고용안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사업주(대기업·공공기관 등은 제외)



지원요건

-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 중이어야 합니다.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해야 합니다.

정년연장 or 정년폐지 or 정년 변경 없이 정년도달 근로자를 퇴직 후 6개월 이내 재고용하는 제도(근로계약 1년 이상)



관할 노동청에 취업규칙·단체협약 등 변경신고 필수

- 직전연도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수준

수도권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 ▶ 최대 3년간 1,080만원

비수도권 근로자 1인당 분기 120만원 ▶ 최대 3년간 1,440만원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기업은 든든한 인력
중장년은 활기찬 근속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지원대상

'25년~'26년 중장년 훈련 및 일경험*을 수료한 중장년(50세~64세)

*폴리텍 중장년 특화과정,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중장년 경력지원제



지원요건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서 일손이 부족한 제조업 또는 운수·창고업에 취업하고
- '26년 1월 1일 이후 6개월 이상 근속해야 합니다.



*'25년 취업자는 '26.1.1.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근속 산정

지원수준

6·12개월 근속 시 각 180만원씩 최대 360만원(총 1,000명)



여기서 잠깐!

- '26년 시범사업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6개월 이상 근속 확인을 위해 신청서는 '26.7.1.부터 접수 가능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봄이 오는 소리

겨우내 얼어붙은 계곡에 봄별이 내려왔더니,
투명한 얼음 사이로 청량한 물소리가 울려 퍼진다.

QR코드를 찍으면 전북 완주 위봉폭포에서 절벽 아래로
쏟아지는 물소리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선과 악의 균형

변치 않는 젊음과 미모로 인간 세상을 게임처럼 즐기는 구미호. 인간이 되고 싶지 않은 그녀의 신조는 단 하나다. '선행은 작은 것도 삼가고, 악행은 큰 것만 삼간다.'



구미호는 응당 덕을 쌓아 인간이 되길 꿈꾼다고 생각하지만, 묘향산 출신 구미호 은호는 다르다. 영원히 젊음을 누릴 수 있는데, 왜 나약하고 시시한 인간이 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한때는 은호도 여느 구미호처럼 인간의 몸을 꿈꾸며 수백 년간 도를 닦았다. 그러나 먼저 인간이 된 언니 금호의 불행한 삶과 비극적인 죽음을 목격한 후 인간이 되는 것만이 최선이라는 믿음이 깨졌다. 이후 인간이 되지 않을 만큼 선행을 피하고, 천벌을 받지 않을 정도로 악행을 저지르며 영생을 누린다. 조선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대를 초월하며 인간 세상을 놀이처럼 즐겨 온 은호가 1970년대에 가장 사랑한 아지트는 바로 만화방. 작가를 찾아가 도술로 원하는 결말을 그리게 할 만큼 만화에 진심이다. 은호가 빼곡한 만화책에 둘러싸여 독서 삼매경에 빠진 장면은 경기도 부천 한국만화박물관의 땡이네 만화가게에서 촬영했다. 유리창에 페인트로 쓴 글씨와 오래된 나무 테이블, 수십 년 전에 출시된 만화책까지 그 시절의 풍경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그리고 2026년, 외모 가꾸기를 좋아하는 은호는 인간들에게 거금을 받고 도술로 소원을 이뤄 주며 부자의 삶을 영위한다. 그녀의 VIP 고객은 금수 그룹의 문제아이 윤. 온갖 만행으로 회장 눈 밖에 난 그는 후계자 자리를 되찾기 위해 은호에게 큰돈을 주고 사고 수습을 맡겨 왔다. 어느 날 음주운전에 뺑소니까지 저지른 그는 운전기사에게 죄를 덮어씌우고, 목격자인 강시열의 기억을 지워 달라는 소원을 빈다. 그러나 이윤에 의해 운전기사가 살해되면서, 은호는 인간 생사에 개입한 대가로 도력을 잃고 만다. 이윤이 모든 사실을 자백하게 만든 후 도력을 되찾지만, VIP 고객을 잃은 은호는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된 강시열을 찾아가 소원을 묻는다.



SBS 드라마 <오늘부터 인간입니다만>은 인간이 되기 싫은 MZ세대 구미호와 자기에 넘치는 축구 선수의 좌충우돌 판타지 로맨스다. 구미호 은호 역은 김혜윤이, 축구 선수 강시열 역은 로몬이 맡았다.

© SBS



제64회 진해군항제

2026. 3. 27. 금 ~ 4. 5. 일

창원시 진해구 중원로터리 및 진해루 등 일원





발효에 깃든 진심, 북촌광

한국의 식문화를 알리고자 발효 식품 편집숍 북촌광이 문을 열었다. 간장 캐러멜과 메주 쿠키에 더해 전통주도 맛볼 수 있다.



관광객으로 북적이는 서울 북촌에서 메주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공간이 눈길을 끈다. 참발효어워치 운영위원장인 유다샘 대표가 2024년에 문을 연 발효 식품 편집숍, 북촌광이다. 유 대표는 이곳을 찾는 이들이 한국의 식문화에 조금 더 친숙해지도록 내부를 전통 부엌의 부뚜막처럼 꾸몄다. 김치전의 바삭한 식감을 구현한 김칩스, 대 파 기름이 함유된 마더킴 볶음김치, 쌀 튀밥을 문힌 하효맘 감귤칩과줄, 참외와 올리 고당을 이용한 잼 등으로 매대를 채웠다.

발효 식품이 주재료인 디저트도 선보였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작은 용량의 간장을 판매하다 이를 활용한 간장 캐러멜을 개발한 것이다. 10년 이상 발효한 생명농원 서 품골의 진장을 사용해 풍미가 깊고 감칠맛이 두드러진다. 다음으로 출시한 메주 쿠키 에도 간장 캐러멜을 올려 달콤하고 짭짤한 맛을 더했다. 메주 쿠키는 국내산 쌀가루 와 콩가루로 메주색을 표현했고, 새끼줄로 아무지게 감싸 모양새도 메주와 비슷하게 만들었다. 대한민국 식품명인이 빛은 초산정의 전통 발효 식초를 기내 반입 가능한 100밀리미터 패키지로 재포장해 판매하기도 한다.

북촌광에서는 1만 5000원에 전통주 네 종류를 맛볼 수도 있다. 강원도 춘천 지시울 양조장에서 나온 화전일취12, 전북 완주 쌀로 만든 숨은골 탁주, 전북 순창 쌀을 사용 한 지란지교 약주, 고려 시대부터 이어져 온 떠먹는 막걸리 이화주를 차례로 마시는 동안 각 술에 얽힌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흥미롭다. 가마솥에 담긴 디저트를 구경하 고, 전국 각지에서 생산한 전통주를 음미하고 싶다면 이곳이 좋은 선택지가 될 테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11라길 4



봄바람 불면? 양산이지!
쏘카 타고 봄꽃여행 떠나자!

2026 원동 매화 축제

2026년 3월 14일
- 3월 15일
원동주말장터 일원

2026 양산방문의 해
양산여행, 쏘카로 55% 더 가볍게!

55%

이용 조건
부·울·경 출발
(경남·울산, 부산 강서구·동구·사상구)
4시간 이상 대여
(승합/RV/수입차 제외)

이용 기간
2026년 12월 31일까지
상시 운영

할인

양산 주요 거점 6곳 바로 이용
 물금역 부산대양산캠퍼스역
 종합운동장 등 양산시 공영주차장

- 쏘카 앱 내 양산방문의 해 이벤트 페이지 접속하여 쿠폰 다운로드 후 사용 가능
- 대여요금(보험료/주행료/하이패스 비용 제외) 주중/주말 상시 적용



누비꽃이 피다

김보람 섬유공예작가는 전통 누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누비꽃 시리즈를 선보인다. 가볍고 비치는 소재인 노방을 정성스럽게 누벼 만든 꽃잎이 햇살을 받아 활짝 핀 봄꽃을 연상시킨다. 누비꽃 바구니는 액세서리나 티백을 담아 두기 좋고, 선반 위 오브제로 활용해도 근사한 분위기가 연출된다.



눈이 내리면, 강릉은
또 다른 세상이 됩니다

With snow, Gangneung is
a whole new world



봄 바다의 선물

꽃게는 산란을 앞두고 주홍빛 알을 가득 품은 봄 꽃게를 으뚝으로 친다. 3월이면 먹이를 찾아 수온이 따뜻한 서해안으로 올라오는데, 충남 서천과 보령, 인천 옹진군 연평도가 최대 꽃게 산지로 꼽힌다. 담백하면서도 달착지근한 맛이 특징이며,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해 건강에도 좋다.



대표원장 조찬호

명예원장 이시형

“젊음은 세포에서, 행복은 뇌에서 온다” 즐기세포와 세로토닌으로 풀어낸 몸과 마음의 회복학

청담셀의원 조찬호 원장, 이시형 박사

안티에이징의 핵심은 무엇일까. 청담셀의원의 조찬호 원장과 이시형 박사를 만나
건강하게 젊음을 유지하는 비법을 물었다.

몸이 젊고 건강하려면 신체적 요소뿐 아니라 마음 건강까지 관리해야 한다. 마음이 편안해야 얼굴에 생기가 돈다. '몸과 마음의 균형'이 진정한 안티에이징의 핵심이라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이유다. 이를 실현하는 곳이 바로 청담셀의원이다. 즐기세포를 기반으로 항노화 치료에 집중하는 조찬호 원장과 '국민 건강 주치의' 이시형 박사가 몸과 마음의 밸런스를 찾아 준다. 조 원장은 특히 '헬스케어 디자인'을 표방하며 개인의 몸 상태에 맞는 맞춤 처방으로 젊음을 관리해 주는 스페셜리스트로 꼽힌다. 이시형 박사는 현재 청담셀의원 명예원장을 맡고 있다.

두 분이 함께 '헬스케어 디자인'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조찬호 원장 저는 즐기세포를 통해 세포 본연의 회복력을 끌어내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즐기세포로 젊음을 회복한 뒤 이를 잘 유지하려면 마음 관리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재생 속도를 결정짓는 의외의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마음인데요. 불안하거나 스트레스가 쌓이면 세포도 활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항노화 치료는 정신의학, 뇌과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시형 박사** 조 원장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는 평생 뇌 속의 세로토닌을 연구했습니다. 이 호르몬이 충분해야 행복하고 평온한 마음이 유지됩니다. 흥미로운 건, 세로토닌이 안정된 사람은 면역력과 회복력이 함께 높다는 사실이에요. 이는 뇌 건강이 세포 건강과 연결돼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포 재생과 마음의 평온은 그 뿌리가 같다는 말씀이군요. 이시형 박사 맞습니다. 세로토닌은 일종의 '젊음의 호르몬'입니다.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되면 세로토닌이 고갈되고, 이는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로 이어집니다. 결국 노화는 뇌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지요. **조찬호 원장** 그래서 저희가 강조하는 개념이 '프리juvenation(rejuvenation)'입니다. 이미 노화된 세

포를 되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노화 징후를 늦추는 게 더 효율적이지요. 세로토닌의 밸런스를 잘 유지하면서 세포 재생력을 높이는 것, 그게 바로 젊음을 설계하는 길입니다.

청담셀의원이 지향하는 '헬스케어 디자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인가요? 조찬호 원장 건강검진 결과와 기능 의학 검진, 유전자 검사까지 종합해 개인별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삶 전체의 건강 패턴'을 디자인하는 거죠. 상황에 맞게 전신 정맥주사 '청셀(淸Cell)', 피부 개선 '미셀(美Cell)', 탈모 치료 '모셀(毛Cell)', 성기능 개선 '성셀(性Cell)', 통증을 관리하는 '활셀(活Cell)' 등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음 건강까지 함께 다룬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이시형 박사 요즘은 외적인 젊음에만 집착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아무리 피부가 팽팽하고 체력이 좋아도 마음이 병들면 삶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건강하면 신체 회복력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결국 몸과 마음은 서로의 거울이에요. 즐기세포가 몸을 되살리고, 세로토닌이 마음을 되살리는 거죠.

두 분이 함께 그리는 '젊음의 철학'이 있다면요? 조찬호 원장 젊음을 되돌리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것, 그게 가장 현명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세포의 회복력과 마음의 평온함이 동시에 유지될 때 진정한 프리juvenation이 완성됩니다. **이시형 박사** 결국 건강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내 몸을 돌보는 일, 내 마음을 살피는 일, 둘 다 '나를 존중하는 태도'죠. 저는 이제 의학이 기술을 넘어 인문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새로운 웰에이징입니다.

Panasonic
Beauty

에스테티션의
섬세함을
손에 줘다



EMS와 괄사의 시너지 케어
VITALIFT
KASSA



물 세척 가능



EH-SP86



가까운 매장 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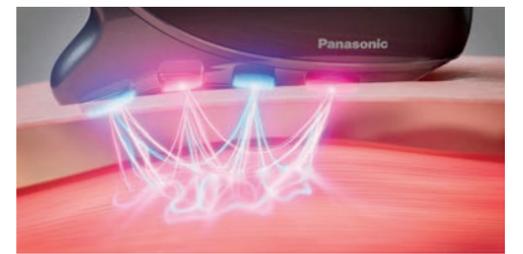
전문가의 섬세한 손길을 구현한 홈 에스테틱 케어 파나소닉 뷰티 바이탈리프트 EH-SP86



손과 손가락을 모티브로 한 곡선 디자인

전문 케어 기술에서 영감을 받은,
파나소닉 뷰티의 독자적인
디자인과 기술을 구현

- 전신 케어 설계
얼굴부터 팔뚝, 목, 어깨, 종아리 등
다양한 부위 사용 가능
- EMS와 온열의 시너지 케어
6단계 강도 조절과 2단계 온열
(저온 40°C, 고온 43°C)로 맞춤 케어
- 부드러운 EMS 자극
4전극 EMS(100Hz)로 피부 표면과 깊은 층까지 복합적 자극
- 듀얼 주파수 EMS(5Hz · 25Hz) 패치 없이
사용하는 동시 케어
- 넓은 접촉면으로 효율적인 자극
- IPX7 방수 기능 물 세척 가능



※ 본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닌 피부미용 관리기기입니다. 효과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 1588-8452, www.panasonic.co.kr



가평 여행, 숙박비 할인받고 부담 없이 즐기자

겨우내 언 땅이 녹으며 연둣빛 새싹이 돌아오는 계절.
봄 내음 물씬한 곳에서 머무는 여행의 즐거움을 누리고 싶다면
'2026 가평군 숙박 세일 페스타'를 놓치지 말자.

경기도 가평군이 비수기 여행 숙박 수요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월부터 4월까지 '2026 가평군 숙박 세일 페스타'를 진행한다. 가평군 내 숙박 시설 이용 여행객에게 숙박비 할인 혜택을 주는 것. 여행객이 가평군 내 등록 숙박업소(야영장, 민박, 일반 숙박업소 등)를 예약하는 경우 숙박 예약 금액 7만 원 이상은 3만 원, 7만 원 미만은 2만 원의 숙박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숙박비 부담으로 가평 여행이 망설여졌다면 더없이 좋은 기회. 숙소 선택의 폭도 그만큼 넓어졌다.

숙박 할인 쿠폰은 2회에 걸쳐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1차 쿠폰은 2월 19일부터, 2차 쿠폰은 3월 19일부터 소진 시까지 제공한다. 숙소 입실 기간은 1차 쿠폰의 경우 2월 27일부터 3월 29일까지, 2차 쿠폰은 3월 27일부터 4월 26일까지다. 할인 쿠폰은 놀 유니버스(NOL), 여기어때, 땡큐캠핑, 캠프, 맘맘, 반려생활 등 6개 숙박 예약 플랫폼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2026 가평군 숙박 세일 페스타'는 관광 생활 인구 확대를 목표로 체류·숙박형 여행객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가평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겨울과 초봄 같은 비수기에도 여행객의 체류를 유도하고, 가평을 찾는 여행객에게 보다 합리적인 숙박 여건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작 지원 가평군청



가평여행, 숙박이 가벼워졌다!

2026

가평군 숙박세일 페스타



1차 숙박세일 페스타 2월 19일 오픈

발급기간
2026. 2. 19.(목) 10:00 ~ 선착순 소진 시까지

입실기간
2026. 2. 27.(금) ~ 3. 29.(일)

쿠폰 사용처
각 플랫폼 내 가평군 등록 숙박업소

2차 숙박세일 페스타 3월 19일 오픈

발급기간
2026. 3. 19.(목) 10:00 ~ 선착순 소진 시까지

입실기간
2026. 3. 27.(금) ~ 4. 26.(일)

쿠폰 사용처
각 플랫폼 내 가평군 등록 숙박업소

쿠폰 발급처 및 할인혜택



할인혜택 • 7만원 이상 숙박 상품 예약시 3만원 할인 • 7만원 미만 숙박 상품 예약시 2만원 할인

사용방법 안내

- 1 온라인 플랫폼에서 숙박 할인쿠폰 발급받기
- 2 가평 등록 숙박업소 선택하기
- 3 결제 시 가평군 숙박세일 페스타 쿠폰으로 할인받기
- 4 가평에서 할인된 숙소와 여행 즐기기(1박이상)

상세내용 QR



꽃잎 나리다

백목련, 산수유, 애기동백. 색색의 바람이 분다.

숨털 보송한 외투를 벗고 팝콘처럼 튀어 오른 목련의 요염.

2024년 3월 초 전남 순천

새빨간 열매를 품은 샛노란 꽃잎의 유영.
2024년 3월 중순 전남 구례



붉은 점을 찍으며 후드득 추락하는 애기동백 꽃 무덤.
2025년 3월말 전남강진

EXHIB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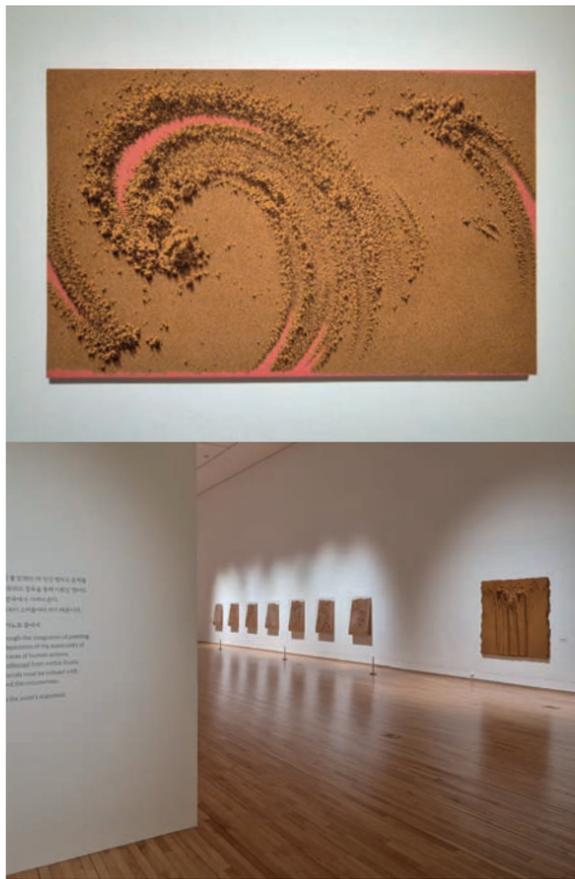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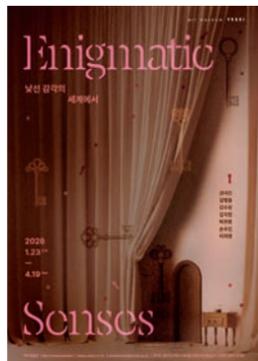


〈Enigmatic Senses: 낯선 감각의 세계에서〉

용인 01.23~04.19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작가 일곱 명이 각자의 고유한 경험을 토대로 구축한 작품 세계를 선보인다. 작가들은 서로 다른 감각 구조와 인지 경험을 바탕으로 조형 언어를 구축해 왔다. 반복적인 선의 축적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는 작업, 자연의 패턴과 내면의 정서를 긴밀히 연결하는 구성, 도시와 기계 구조를 분해해 재조립하는 접근 등이 전시장 곳곳에서 드러난다. 장애와 예술, 제도와 표현, 기준과 다양성에 대한 기존 관점을 돌아볼 좋은 기회다.

장소 경기도 용인벤티미술관 문의 031-333-2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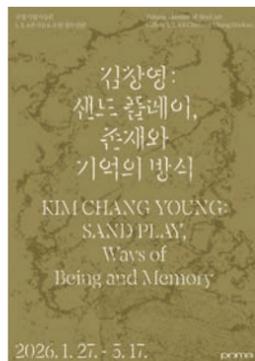


〈김창영: 샌드 플레이, 존재와 기억의 방식〉

포항 01.27~05.17

47년간 모래를 매체로 독특한 이미지를 구상해 온 김창영의 개인전이 열린다. 작가는 모래사장의 표면을 얇게 떠낸 것 같은 화면 위에 발자국을 사실적으로 그린다. 모래사장에 새겨진 무수한 발자국은 사라진 존재를 증명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이번 전시는 인간 존재의 성찰을 담은 초기작부터 회화의 물성을 고찰하거나 이방인의 삶을 투영한 작품까지 세 개의 장으로 나눠 공간을 조성했다. 포항 해변에서 수집한 모래로 제작한 대형 설치 작품을 포함해 회화 40여 점과 영상 2점을 공개한다.

장소 경북 포항시립미술관 문의 054-270-4700



SHOW



© (주)홍컴퍼니

〈A여고 사서의 영광과 비극〉

서울 01.27~04.26

1990년대 초에 사라진 문학 교사의 행방을 파헤치며 불확실한 미래와 마주하는 법을 배우는 도서부 여고생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2025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신작에 선정된 창작 뮤지컬로, 네 명의 여고생이 일상 속 작은 선택을 통해 스스로를 발견해 가는 과정을 담았다. 관객은 이들의 여정을 따라가며 저마다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고 용기를 얻는다. 뮤지컬 <팬레터> <개와 고양이의 시간>에서 호흡을 맞춘 한재는 작가와 박현숙 작곡가가 다시 만나 뮤지컬 팬들의 기대를 모은다.

장소 서울 링크아트센터드림 문의 02-3444-0205



© (주)나인스토리

〈해녀 연심〉

서울 03.14~22

제주도에 홀로 남겨진 해녀 수자가 다섯 살 때 헤어진 엄마 연심이 위독하다는 편지 한 통을 받고 손녀와 함께 일본 오사카로 향한다. 제주4·3사건 당시 생존을 위해 타국으로 떠나야 했던 재일 동포의 아픈 역사에 주목한 연극이다. 창작진은 해녀와 재일 동포의 삶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 영도해녀문화전시관, 제주해녀박물관, 재일 한국인 거주지를 방문해 자료 조사와 인터뷰를 했다. 극단 58번국도를 이끄는 배우 고수희가 나옥희라는 활동명으로 연출을 맡았다.

장소 서울 대학로예술극장 문의 02-941-5855



FESTIVAL



2026 고령대가야축제

고령 03.27~29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26~2027 문화관광축제'에 고령대가야축제가 선정됐다. 올해도 유물 발굴 체험, 금동관 만들기, 지산동고분군 야간 트레킹 등 대가야의 역사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고령군 특산물을 활용한 흥미로운 콘텐츠도 준비했다. 서바이벌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에 참여한 데이비드 리 셰프의 소스를 곁들인 돼지고기 꼬치구이를 맛보고 쿠팡 쇼를 감상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가야금 100대가 펼치는 공연도 놓치기 아쉽다.



장소 경북 고령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일원
문의 054-955-08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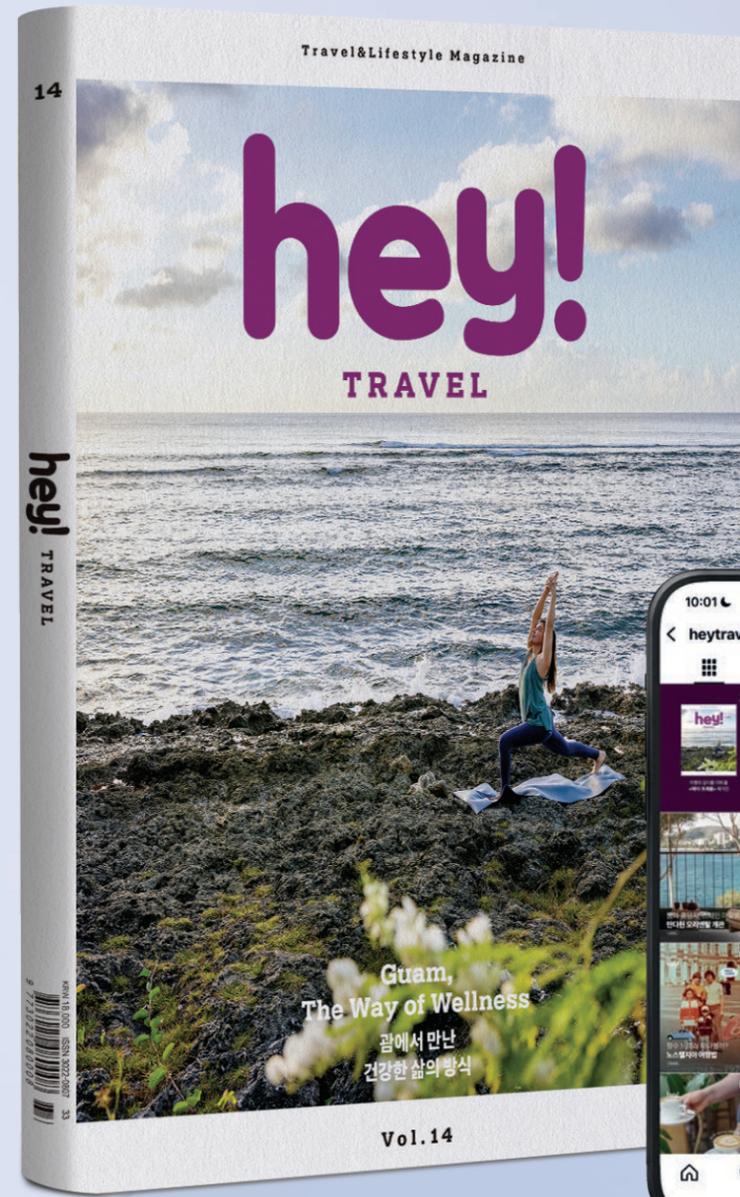
제64회 진해군항제

창원 03.27~04.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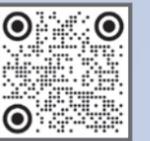
진해군항제는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세우고 추모제를 거행한 것이 시작이었다. 1963년부터 이어진 축제로, 본래의 취지를 살린 행사와 더불어 풍성한 문화 예술 행사를 즐기는 봄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군악 의장대가 거리에서 펼치는 호국 퍼레이드, 이충무공 승전 기념 해상 불꽃 쇼, 벚꽃이 활짝 핀 여좌천에서의 별빛 축제 등 매력적인 행사가 빼곡하다. 트로트부터 K-팝, 밴드 음악까지 아우르는 체리블라썸 뮤직 페스티벌에는 올해 볼빨간사춘기, 지소쿠리클럽 등이 참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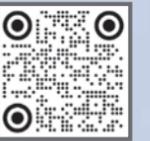
장소 경남 창원 중원로터리 및 진해루 일원
문의 055-542-8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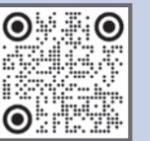
여행전문가와 로컬이 큐레이션한 여행 &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heytravelmag INSTAGRAM



hey! there Newsletter



heytravel.kr WEBSITE

최신 여행 트렌드를 담아낼 새로운 미디어 <hey! TRAVEL>

Inspiration is Everywhere

찬란한 사유의 땅 전북

자연휴양, 향토문화, 문화예술, 역사문화
네 가지 테마로 전북 서부내륙권을 누볐다.
지역민의 삶 속으로 스며들어 자연과 교감하는
이색 체험 프로그램도 즐겼다.

제작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

가는 방법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익산역까지
1시간 40분 정도 걸린다.

테마로 만나는 전북 4色 이음

전주, 익산, 정읍, 남원, 완주, 무주, 장수, 임실, 순창.
전북의 역사성과 아름다움을 지닌 9개 도시를 각기 다른 컬러의
네 가지 테마로 살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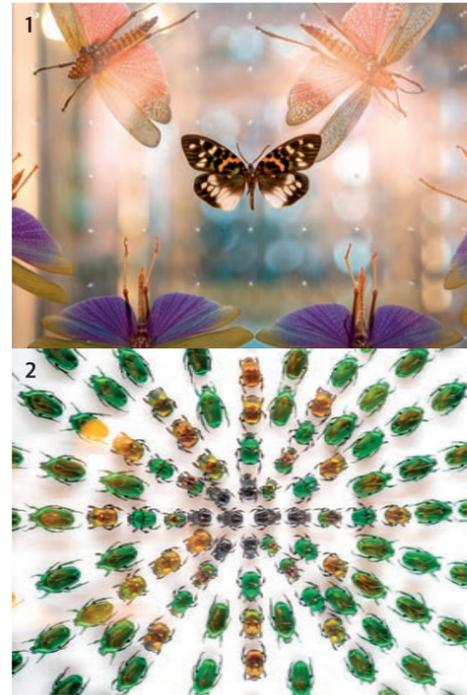
자연휴양

신비로운 곤충의 세계 무주 반디랜드

‘자연휴양’을 테마로 전북을 여행한다면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곳은 무주 반디랜드다. 무주대표 관광지로 곤충박물관과 천문과학관을 비롯해 통나무집, 야영장, 사계절 썰매장 등 체험 및 놀이 시설이 다양해 가족여행지로 제격이다.

입구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거대한 반딧불이가 매달린 건물이 방문자를 반긴다. 천연기념물인 반딧불이를 포함해 전 세계 곤충을 소개하는 곤충박물관이다. 지하 1층 환영의 장은 박물관 탐방의 시작점. 캄캄한 동굴 속 커다란 나무 주위로 형형색색의 나비가 날아다니고, 반딧불이가 뿜어내는 영롱한 빛이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한다. 곤충의 진화 과정을 실제 화석과 식물 표본으로 살펴보는 전시실을 필두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와 남아메리카 열대지방의 반딧불이 2000종이 진열된 공간이 차례로 펼쳐진다. 1층에는 반딧불이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전시와 체험이 기다린다. 반딧불이 생태 전시실에서는 무주에 서식하는 운문산반딧불이와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의 알, 번데기, 성충을 실제 현미경으로 관찰한다. 전시실을 나오면 이번에는 따스한 햇살 아래 싱그러운 초록빛을 뿜어내는 온실이 나타난다. 전북 최대 유리 온실로 660제곱미터의 생태 온실이다. 200여 종 1만여 주의 식물이 살아 숨 쉬며, 계류형 실개천과 우당삼, 폭포, 물웅덩이 등이 조성돼 실제 숲속을 산책하는 듯한 기분이 든다. 곤충박물관의 마지막 코스는 아쿠아존. 무주의 토종 물고기를 비롯해 실버바브, 가이양, 시클리드 등 쉽게 볼 수 없는 외래 어류도 서식한다. 그중 작은발톱수달 ‘수리’와 ‘아리’는 귀여운 외모와 사랑스러운 애교로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이다.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실로 1324 문의 063-324-1155



1 곤충박물관에서 세계의 나비 희귀종을 만날 수 있다. 2 천연기념물이자 환경지표종인 반딧불이. 3 곤충박물관 지하 1층에서는 곤충을 활용한 다양한 전시를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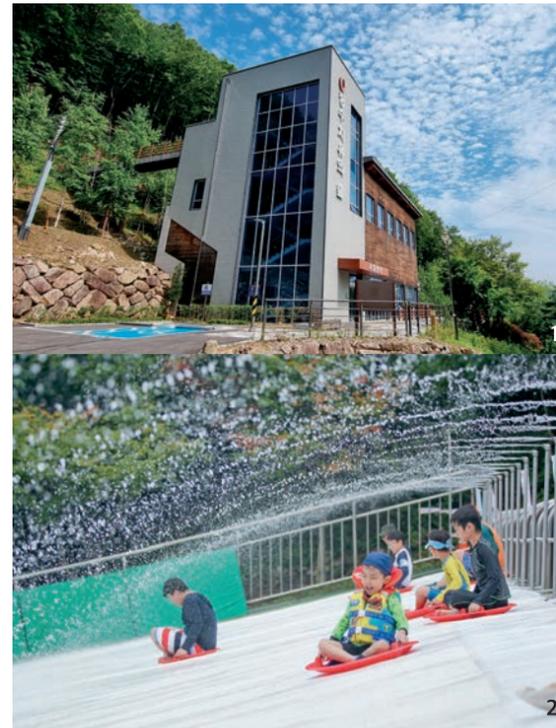
1멀티버스로 향하는 차원 통로를 콘셉트로 한 미디어아트 전시장 '차원의 문'. 21973년에 지은 병커를 활용한 완산병커 더 스페이스 외관.

병커의 화려한 변신

완산공원 & 완산병커 더 스페이스

전북 전주 완산구에는 '완산칠봉'이라고도 불리는 완산공원이 자리한다. 유서 깊은 칠성사와 전주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팔각정이 세워져 있어 관광객은 물론 주민들도 즐겨 찾는다. 공원 끝자락 완산6길 입구에는 전쟁에 대비해 만든 병커가 남아 있다. 1973년에 설치해 2014년에 폐쇄했는데, 지난해 2월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폐쇄된 다중 우주와의 연결 통로'를 콘셉트로 꾸민 완산병커 더 스페이스는 비밀의 공간을 탐험하는 듯한 전시로 아이부터 어른까지 흥미롭게 둘러본다. 병커 입구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화려한 LED 조명으로 뒤덮인 기둥이 등장하는데, 마치 땅에서 하늘로 솟아오르는 모양새다. 완산병커 더 스페이스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려면 먼저 이 세계의 비밀과 참가자의 역할을 이해해야 한다. 완산공원의 한 야산에 신비한 빛을 내는 에너지 기둥이 솟아올랐는데, 알고 보니 그곳이 1973년에 세워 비밀리에 운영하다가 폐쇄된 연구소였다는 것이다. 일반인에게는 군 시설로 알려졌으나 사실은 다중 우주속 여러 세계와 연결되는 통로라는 것. 관광객은 이 비밀스러운 병커를 조사하는 신입 요원이 되어 시크릿 스토리, 우주의 지도, 차원의 문 등 재미궁 처럼 이어진 10개의 테마 공간을 차례로 탐험한다. 가장 인기 있는 공간은 차원의 문. 화려한 LED 조명이 거울과 만나 비현실적인 통로를 만들어 낸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입구에 적힌 설명문대로 '멀티버스로 향하는 차원 통로' 한가운데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 전북에서 자연휴양과 더불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여행지를 찾는다면 완산공원과 완산병커 더 스페이스를 방문해 보자.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 612(완산공원), 완산5길 70(완산병커 더 스페이스)
문의 063-283-0010(완산병커 더 스페이스)



1팔공산 품에 안긴 치유센터. 2휴양림 내에 어른과 아이가 함께 즐기는 물썰매장이 있다. 3나무 덕을 따라 천혜의 자연 속을 거니는 산림욕장.

자연의 품에 안긴 시간 와룡자연휴양림

천혜의 자연 속에서 온전히 휴식을 취하고 싶다면 와룡자연휴양림만 한 곳이 없다. 1996년에 문을 연 이곳은 금강과 섬진강의 발원지인 전북 장수 팔공산 중턱, 해발 1151미터의 청정 지역에 자리한다. 울창한 소나무 숲과 아름다운 계곡을 품고 있으며 캠핑장과 펜션 등 숙박 시설을 비롯해 천연 물놀이장, 어린이 수영장, 물썰매장 등 다양한 놀이 시설을 갖춰 가족여행지로 사랑받는다.

와룡자연휴양림의 가장 큰 매력은 다양한 타입의 숙소가 마련돼 있다는 것. 4~10인실로 구성된 숲속의 집은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안성맞춤이다. 각 객실마다 넓은 거실과 야외 테라스도 갖췄다. 단체 여행객은 휴양관이나 숲속수련장을, 캠핑 애호가는 숲과 계곡에 조성한 야영장을 이용하면 된다. 휴양림 내에는 미끄럼틀이 설치된 어린이 전용 수영장 물놀이하기 좋은 계곡도 있다. 어른을 위한 공간도 충분하다. 언덕 위에서 썰매를 타고 물 위를 빠르게 미끄러져 내려오는 물썰매장이 대표적. 속도감이 상당해 아찔한 스릴을 즐길 수 있다. 계곡 건너편에는 자연의 품에 안겨 휴식을 취하기 좋은 산림욕장이 자리한다. 나무 덕을 따라 뻗은 소나무 숲을 걷다 보면 걱정과 피로가 훌훌 날아간다. 치유의 숲에서는 맑은 공기와 피톤치드를 만끽하며 산림욕을 하기 좋다. 휴양림이 자리한 팔공산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싶다면 캠핑장 근처에 조성한 등산 코스에 도전해 보자. 오계치, 샷샷봉, 각시소 등 난이도별 코스가 마련돼 있다.

와룡자연휴양림은 관광 취약 계층에게도 적합한 열린 관광지다. 건물마다 경사로를 설치하고 문턱을 없애 휠체어 사용자도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다.

주소 전북 장수군 천천면 비룡로 632 문의 063-350-24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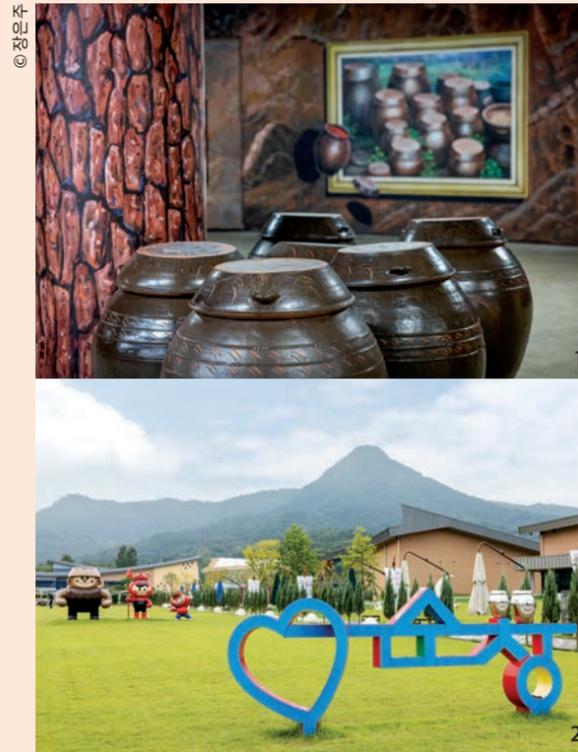
향토문화



1 하늘에서 내려다본 전주한옥마을. 밤이 되면 주홍색 불빛이 새어나와 분위기가 한층 낭만적으로 변한다.
2 호남 최초의 로마네스크 양식 건축물, 전통성당. 전주의 대표적인 포토존이다.

저항 정신이 깃든 마을
전주한옥마을

전북 '향토문화' 여행의 첫 번째 목적지는 전주한옥마을이다. 전주 풍남동 일대에 700여 채 한옥이 밀집한 지역으로 한국 최대 규모의 전통 한옥촌이다. 마을이 품은 이야기도 독특하다. 일제강점기에 풍남문을 기준으로 서쪽 지역에 일본인이 대거 거주하면서 반대편인 동쪽엔 한옥이 들어섰다. 전주 시민들이 일제에 저항하고자 민족적 자긍심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한옥을 지은 것. 풍남문을 사이에 두고 일본인 마을과 한국인 마을이 선명한 대립 구도를 만든 것이다. 오늘날 전주한옥마을은 근대 주거 문화의 발달 과정을 보여주는 동시에 경기전, 오목대, 향교 등 중요 국가유산을 품은 전주의 대표적 관광지로 자리 잡았다. 풍남문에서 전주한옥마을로 가는 길,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 전통성당이다. 1907년부터 1914년까지 건축했으며 호남 지역 최초의 로마네스크 양식 건축물로 한옥과 묘한 대비를 이뤄 독특한 풍경을 연출한다. 전통성당 앞에는 정겨운 돌담으로 둘러싸인 경기전이 자리한다.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의 어진을 모시기 위해 태종 10년(1410년)에 창건했다. 경기전은 독특한 분위기와 수려한 경관 덕에 역사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로도 사랑받고 있다. 마을 끝자락의 작은 언덕을 오르면 고려 말 이성계가 왜군을 물리치고 본향인 전주에서 승전고를 울리며 자축한 오목대가 모습을 드러낸다. 어둠이 내린 후 이곳에서 서 북서쪽을 내려다보면 골목을 수놓은 청사초롱과 담장을 비추는 조명이 어우러진 황홀한 야경이 펼쳐진다.



1 발효소스토굴에서 고추장과 된장, 간장, 장아찌가 맛있게 익어 가고 있다.
2 순창발효테마파크의 너른 정원. 귀여운 캐릭터 인형이 설치돼 포토존으로 인기 있다.
3 세계의 흥미로운 소스를 한데 모아 소개하는 세계소스관.

세계가 주목한 발효의 장
순창발효테마파크

한국의 대표적인 향토문화 중 하나인 '장(醬)'을 만나고자 전북 순창을 찾았다. 2021년에 문을 연 순창발효테마파크는 순창을 대표하는 키워드인 고추장을 비롯해 지역의 발효 문화를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약 13만 제곱미터 부지에 발효의 개념을 쉽고 재밌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체험장 및 발효와 놀이를 결합한 전시관, 발효 음식을 경험할 수 있는 마켓 등이 알차게 들어서 있다. 가장 먼저 방문해야 할 곳은 흥매관. 발효 식품의 원리와 특성을 미디어아트로 쉽게 풀어서 발효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효모관에서는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발효를 오감으로 체험 가능하다. 누룩의 역사와 세계 각국의 발효 식품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효모카 어드벤처 체험과 발효 식품을 활용한 쿠킹 클래스에도 참여한다. 효모관 옆 광이관에서는 미생물의 탄생과 성장, 변형을 전시로 선보인다. 트램펄린과 에어 저글링 등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 시설을 갖춰 잠시 쉬어가기 좋다. 조선 시대 장창고에 현대 기술을 접목한 세계 유일의 장 저장고가 금급하다면 발효소스토굴을 방문해 보자. 길이 134미터, 폭 46미터의 공간에 고추장과 된장, 간장, 장아찌 등을 장기숙성시키는 곳이다. 이 외에도 세계의 흥미로운 소스를 소개하는 세계소스관, 장의 제조와 숙성 과정을 미디어아트로 보여주는 미디어아트관 등 흥미로운 공간이 가득하다.

주소 전북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55 문의 063-652-6511



문화예술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곳
장금이파크

지난해 10월 대장금의 고향인 전북 정읍시 산내면 장금리에 전통과 음식, 치유를 한데 아우르는 장금이파크가 문을 열었다.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는 조선 시대 의녀 대장금은 남성 중심의 엄격한 관료 사회에서 남자 의관들을 제치고 왕의 주치의가 됐다. 출생 연도나 성씨, 본관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남아 있지 않지만 고향은 정읍이라 전해진다. 장금이파크에서는 전시를 통해 장금이의 삶을 살펴보고,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 장금이처럼 요리하며, 장금이의 처방을 바탕으로 치유의 시간을 보낸다.

1층에는 간단한 체질 검사가 가능한 키오스크와 몸에 좋은 차를 선보이는 장금이 카페가 자리한다. 키오스크로 몇 가지 질문에 답하면 체질을 분석해 주고 그에 맞는 음료를 추천해 준다. 2층은 체험 공간으로 채워졌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즉욕을 하는 오감체험관, 요리 전문가와 함께 궁중 떡이나 산채 김밥을 만드는 장금이의 부엌, 정읍의 숙지황을 넣은 쌍화탕 전시관이 차례로 이어진다. 약재를 활용해 향낭을 만드는 체험관도 인기 있다. 계피, 박하, 곱향 등의 약재를 전통 복주머니에 취향껏 골라 담으면 완성된다. 실내에 걸어두면 향이 은은하게 퍼져 건강해지는 것같은 기분이 든다. 옥상은 너른테라스를 갖춘 장금이 정원으로 꾸며졌다. 몸에 좋은 차를 음미하며 시선을 먼 곳에 두면, 장금산과 옥정호가 어우러진 평화로운 풍경이 파노라마 뷰로 펼쳐져 이곳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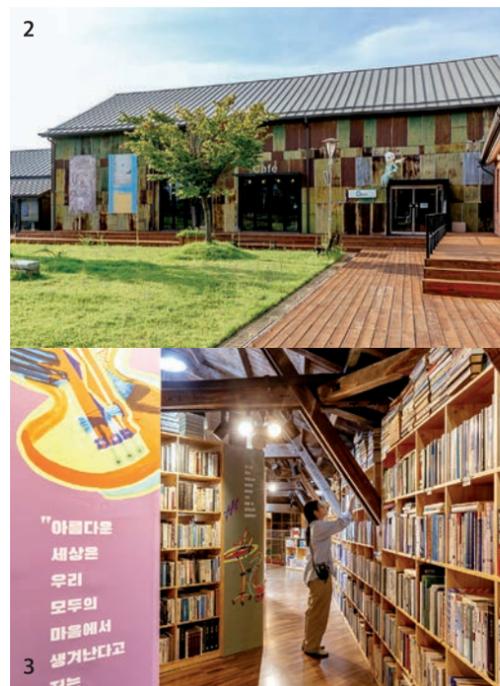
주소 전북 정읍시 산내면 태산로 1177 문의 063-535-0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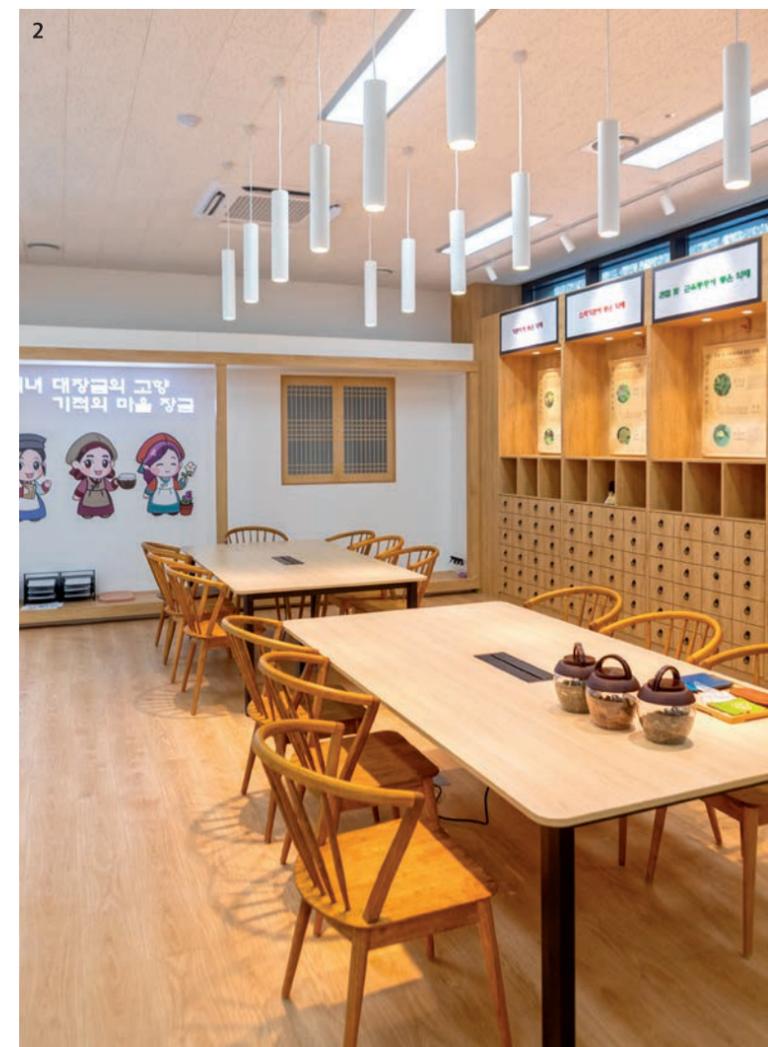
1 장금이 카페의 시그너처 메뉴, 쌍화탕. 2, 3 장금이파크 체험관에서는 약재를 활용해 향낭을 만들어 볼 수 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삼례문화예술촌

문화예술 여행에서 삼례문화예술촌을 빼놓을 수 없다. 본래 일제강점기에 양곡 수탈을 목적으로 지은 대규모 곡물 창고로, 해방 이후 삼례농협 저장고로 사용하다가 2013년 6월 지역 문화예술 재생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이곳에는 네 개의 전시관을 비롯해 카페, 다목적관, 공연장, 매점 등 다양한 공간이 들어섰다. 모든 건물은 양곡 적재를 위해 지은 목조건물을 그대로 활용했다. 현대적인 예술 작품과 향긋한 커피 향이 가득한 공간에 낡은 외벽과 서까래, 오래된 환기 시설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100여 년의 시간이 묘하게 교차한다. 야외에 설치한 매통이, 달팽이 등의 전시 작품 역시 오래된 건축물과 어우러져 이색적인 풍경을 연출한다. 삼례문화예술촌과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자리한 또 다른 양곡 창고는 2016년 삼례책마을로 변신했다. 고서점과 헌책방, 북 카페로 구성된 북하우스를 중심으로 한국학 관련 고서를 소장한 한국학아카이브, 전시와 강연이 열리는 북갤러리까지 세 동으로 이뤄졌다. 양곡을 쌓아두던 창고가 지식을 축적하는 창고로 거듭난 셈이다. 긴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헌책과 고서를 좋아하는 이라면 꼭 들러야 할 완주의 대표 여행 코스다.



1 옛 양곡 창고 외관을 그대로 살린 삼례문화예술촌. 2, 3 삼례문화예술촌 건너편에는 또 다른 양곡 창고를 활용한 삼례책마을이 자리한다.





세계 태권도의 성지 태권도원

무주에는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문화예술 공간이 있다. 태권도 역사를 한눈에 살펴보는 박물관부터 태권도 기술을 직접 배우는 체험관, 선수들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는 체육 시설과 숙박 시설, 태권도 시합이 열리는 경기장까지, 그야말로 태권도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태권도원이다. 규모가 231만 제곱미터인데, 이는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약 열 배에 달하는 크기다. 태권도원을 무주에 건립한 데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다. 무주는 삼국시대부터 백제와 신라, 고구려가 맞닿은 접경 지역으로 호국 무술의 요지였고, <조선왕조실록>에는 군병과 승병이 무주에서 무술을 연마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태권도원 중앙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태권도 경기장과 공연장을 갖춘 'T1 경기장'이 위용을 드러낸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삼태극을 닮았는데, 태권도의 근본정신인 천지인을 상징한다. 외벽은 유리로 마감해 주변 풍경이 거울처럼 비친다. T1 경기장 뒤편에는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 규모의 국립태권도박물관이 자리한다. 지하 1층에는 도서관과 기록관, 박물관으로 구성된 태권도라키비움이, 1층에는 1973년 국제 태권도 기구로 설립한 세계태권도연맹의 역사와 대회를 소개하는 역사관이 있다. 2층과 3층은 전시실로, 태권도의 뿌리 깊은 역사와 성장 과정을 살펴보고 잠재된 가능성까지 예측해 보는 공간이다. 전시 중간중간 전 세계 태권도인들과 태권도를 통해 삶이 변화한 사람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소개해 관람 내내 잔잔한 감동을 전한다. 박물관에서 나와 모노레일을 타고 전망대에 오르면 백운산과 태권도원 전경을 파노라마 뷰로 감상할 수 있다.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문의 063-320-0114

강을 품은 예술 공간 섬진강미술관 & 향가터널

전북 순창에는 마을 전체가 문화예술 명소인 동네가 있다. 섬진강 변에 자리한 구남마을이다. 이곳에는 공공 미술 프로젝트로 탄생한 작품들이 곳곳에 자리해 있다. 동네 어르신들의 캐리커처부터 옛 창고 외벽을 형형색색의 꽃으로 장식한 벽화, 작은 우물 위의 거북이 조형물까지, 마을에 자연스레 녹아든 작품을 숨은그림찾기 하듯 발견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순창으로 귀향해 작고하기 전까지 그림을 그린 박남재 화백의 초상화도 눈길을 끈다. 정겨운 돌담을 따라 걷다 보면 숨은 듯 자리한 섬진강미술관도 만난다. 2016년에 문을 연 별관을 지나 언덕을 오르면 2022년에 개관한 신관이 모습을 드러내는데, 민화 전시 <한국의 팝아트 민화, 순창에 오다>가 한창이다. 미술관 옥상에 오르면 구남마을과 섬진강이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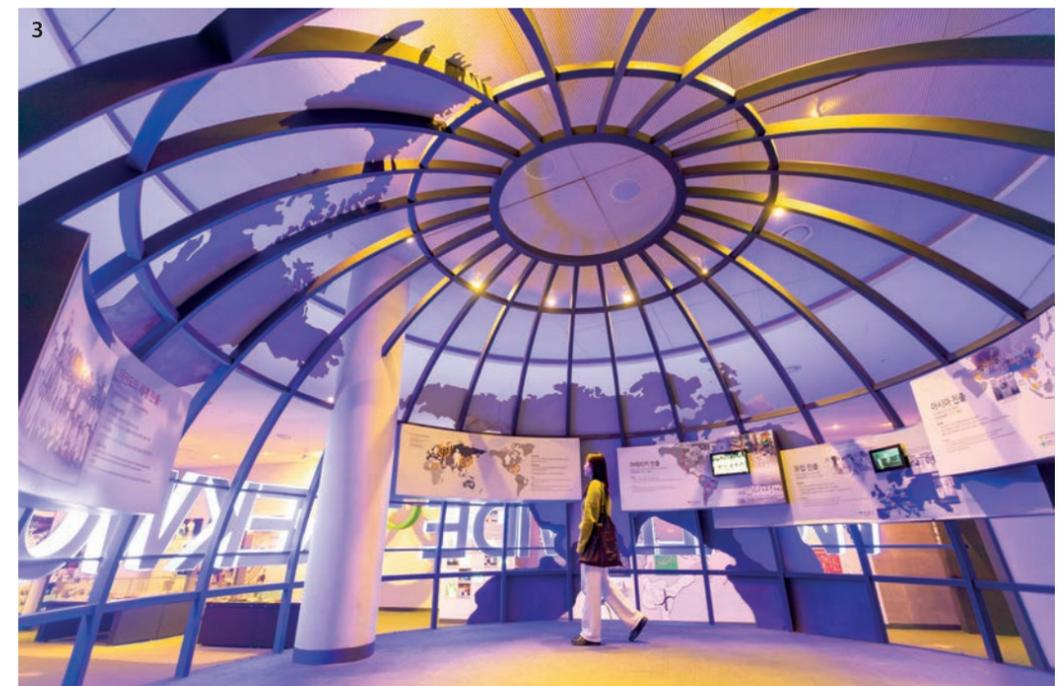
섬진강 물줄기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면 옥출산 아래 터널이 나온다. 일제강점기에 쌀을 대량으로 수탈하기 위해 일본군이 만든 향가터널이다. 당시 순창을 비롯한 호남의 곡창지대를 관통하는 철도가 이 터널을 지났다. 광복 이후 마을을 잇는 통행로로 사용되던 향가터널은 2013년 섬진강 자전거길 조성 사업으로 지금의 모습이 됐다. 향가터널 일대는 섬진강 자전거길 가운데서도 경치가 빼어나기로 유명하다. 터널을 지나면 섬진강 자전거길의 일부인 향가다리 만난다.

주소 전북 순창군 적성면 평남길 122(섬진강미술관),
풍산면 대가리 3(향가터널) 문의 063-653-2296(섬진강미술관),
063-650-1632(향가터널)

1, 2 일제강점기 건설한 향가다리와 향가터널. 현재 섬진강 자전거길의 일부가 됐다. 3 섬진강미술관의 포토존. 기우뚱한 액자 너머로 체계산 출렁다리가 보인다. 4 2022년에 개관한 섬진강미술관 신관.



1 국립태권도박물관에는 태권도의 역사를 소개하는 전시실이 자리한다. 2 세계 최대 규모의 태권도 경기장을 갖춘 T1 경기장. 3 '태권도의 세계화'를 주제로 한 전시 공간.



역사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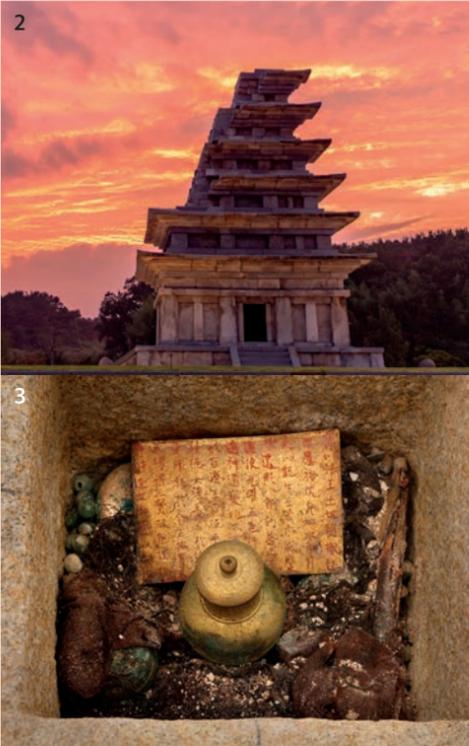


1 익산 미륵사지에서 발굴한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국립익산박물관 전시실. 2 보수 정비한 익산 미륵사지 석탑. 3 석탑 해체 보수 중 출토된 금제사리봉영기. 미륵사 조성 연대를 알 수 있는 주요 문화유산이다.

천년의 시간을 품은
익산 미륵사지 & 국립익산박물관

전북 익산은 백제 제30대 왕인 무왕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역사문화 도시다. 해발 430미터 미륵산 남쪽 자락에 자리한 미륵사지만 봐도 그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동양 최대 규모 사역인 익산 미륵사지는 대략 20만 제곱미터로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한다. 한국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미륵사지 석탑을 비롯해 1993년에 복원한 동원 구층 석탑, 사찰 입구에 서 있는 당간지주, 그리고 금당·승방·화랑 등의 건물을 짓는 데 사용된 초석이 남아 있다. 석탑을 해체 보수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사리장엄구를 포함해 백제 시대부터 조선 시대를 아우르는 1만 9000여 점의 유물이 발굴돼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때 출토된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전시하기 위해 석탑 옆에 국립익산박물관을 지었다. 이곳의 익산백제실과 미륵사지실, 역사문화실에서 백제 왕궁인 왕궁리 유적과 미륵사지를 비롯한 익산의 다양한 유물을 볼 수 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으면 미륵사지는 또 다른 얼굴을 보여 준다. 캄캄한 밤하늘 아래 은은한 조명으로 신비로운 자태를 드러내는 동서 석탑은 미륵사지 야행에서만 만날 수 있는 풍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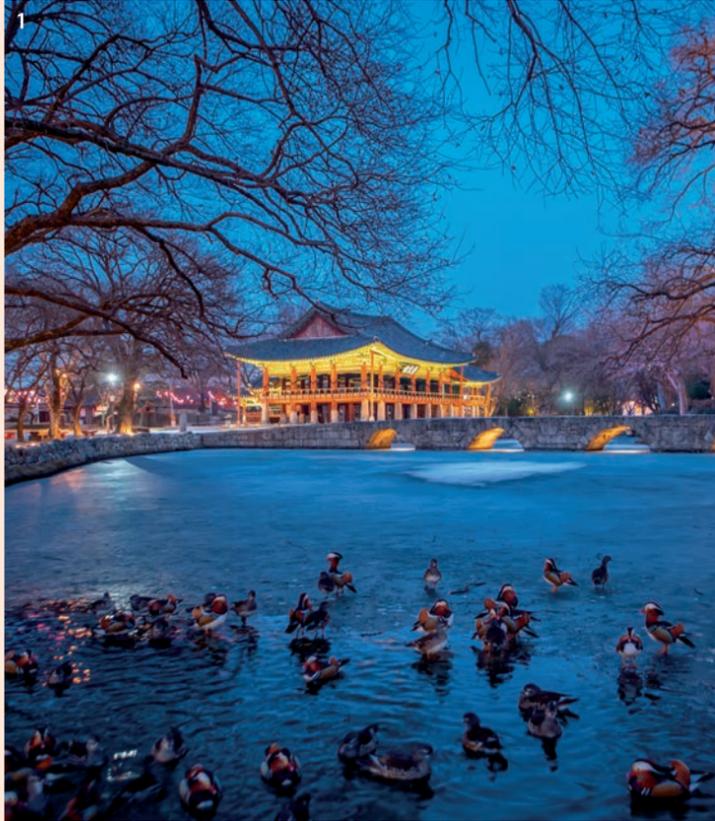
주소 전북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32-7(익산 미륵사지), 미륵사지로 362(국립익산박물관)
문의 063-859-3873(익산미륵사지), 063-830-0900(국립익산박물관)



천상 세계를 담은 정원
광한루원

전북의 역사문화 명소 중 사랑과 관련이 깊은 광한루원은 전국에서 찾아온 커플들로 늘 북적인다. 조선 전기에 광한루를 중심으로 조성한 전통 정원으로, 경복궁 경희루의 지원, 담양 소쇄원과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정원으로 손꼽힌다. 고전소설 <춘향전>에서 이몽룡이 그네 타는 춘향을 보고 첫눈에 반한 장소가 바로 광한루다. 광한루는 조선 시대 황희 정승이 남원으로 유배됐을 때 지은 누각으로 처음에는 '광통루'라 불렀다. 이후 세종 때 정인지가 '달나라에 있는 궁전'이라는 뜻의 광한루라 부른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광한루 앞 연못에는 신선이 산다는 전설 속 삼신산을 의미하는 세 개의 섬이 있다. 가장 왼쪽에 있는 섬은 한라산을 뜻하는 영주산, 가운데 섬은 금강산을 상징하는 봉래산, 그 옆은 지리산에 해당하는 방장산이다. 섬과 섬은 구름다리로 이어져 산책의 즐거움을 더한다. 방장산 옆에는 견우와 직녀가 만나도록 새들이 다리를 놓아 주었다는 전설이 깃든 오작교가 놓여 있다. 광한루원은 <청춘월담> <슈룹> <조선변호사> 등 여러 사극 드라마의 배경으로 등장하기도 했다.

주소 전북 남원시 요천로 1447 문의 063-620-89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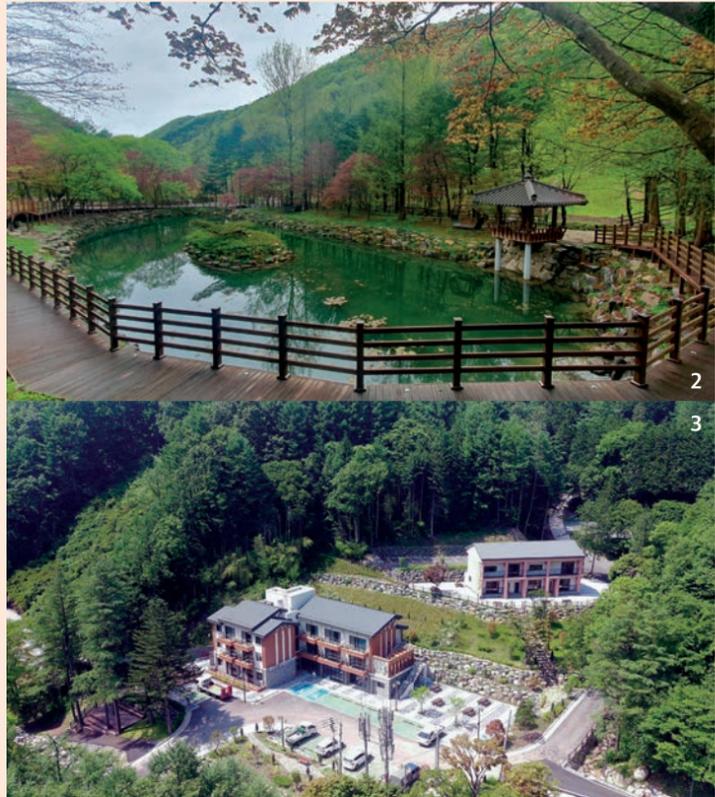


1 연못 너머로 광한루와 오작교가 한눈에 담긴다. 2 구룡천 생태연못에는 아홉 마리 용이 목욕 후 하늘로 승천했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온다. 3 성수산 왕의숲 자연휴양림 전경.

자연의 품에 안긴 하루
성수산 왕의숲 자연휴양림

전북 임실에 자리한 성수산은 태조 이성계와 인연이 깊다. 도선암에서 성심껏 기도를 올리던 이성계가 하늘에서 '성수만세(聖壽萬歲)'를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이후 조선을 건국하고 왕위에 오른 그는 도선암을 '하늘의 소리를 들었다'는 뜻의 상이암으로 고쳐 불렀고, 상이암 근처 팔공산 봉우리에는 '성수산'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성수산 자락에 자리한 휴양림 이름에 '왕의숲'이 더해진 이유다. 2024년에 개장한 성수산 왕의숲 자연휴양림에는 6인실부터 10인실까지 크기별 숙소를 마련한 휴양관, 건물 형태에 따라 이름을 붙인 펜션 '세모의 집'과 '네모의 집'을 비롯해 캠핑을 위한 야영 시설이 마련돼 있다. 모든 숙소가 울창한 숲에 둘러싸여 어느 곳을 선택하더라도 자연의 품에 안긴 듯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휴양림 안에 숲놀이터, 물놀이장 등 아이들을 위한 공간도 조성했다.

주소 전북 임실군 성수면 성수산길 461 문의 063-643-4683





Jeonbuk in Four Themes

Jeonju, Iksan, Jeongeup, Namwon, Wanju, Muju, Jangsu, Imsil, Sunchang. Nine cities and counties across Jeonbuk were explored in four themes: nature retreats, local heritage, culture and the arts, and historical culture.

For a nature-focused escape, the journey led to Muju Bandi Land, where clear streams and pristine forests provide a window into the ecology of fireflies. One of Muju's signature attractions, the complex includes an insect museum, an astronomy science center, log cabins, a campground, an outdoor water play area, and a year-round sledding hill, making it an ideal destination for families.

As a destination rooted in local heritage, Jeonju Hanok Village is a natural choice. Located around Pungnam-dong, the area is home to more than 700 traditional hanok houses, forming Korea's largest hanok village and the country's only urban hanok cluster. Highlights include Jeondong Catholic Church, the first Romanesque-style building in the Honam region that stands in striking contrast to the surrounding hanok, and Gyeonggijeon Shrine, founded in the 10th year of King Taejo's reign to enshrine the royal portrait of Yi Seong-gye, founder of the Joseon dynasty.

For culture and the arts, the itinerary stopped at Janggeumi Park in Janggeum-ri, Jeongeup, known as the hometown of Jang-geum. The park is a cultural complex that brings together tradition, food, and healing. Through exhibitions, visitors learn about Jang-geum's life, take part in hands-on cooking programs inspired by her story, and enjoy moments of rest and restoration based on her medicinal wisdom.

The journey concluded with a historical exploration of Iksan Mireuksa Temple Site and the Iksan National Museum, where the breath of a thousand years still lingers. Visitors encounter Korea's largest and oldest stone pagoda at Mireuksa, the nine-story east pagoda restored in 1993, flagpole supports standing at the temple entrance, and foundation stones that once formed the bases of structures such as the main hall, monks' quarters, and corridors.

Address 1324, Museol-ro, Seolcheon-myeon, Muju-gun, Jeonbuk-do (Muju Bandi Land); 99, Girin-daero, Wansan-gu, Jeonju-si, Jeonbuk-do (Jeonju Hanok Village); 1177, Taesan-ro, Sannae-myeon, Jeongeup-si, Jeonbuk-do (Janggeumi Park); 32-7, Giyang-ri, Geumma-myeon, Iksan-si, Jeonbuk-do (Iksan Mireuksa Temple Site)

오감으로 즐기는 전북의 매력 로컬 체험

완주의 숲속 오두막에서 피크닉을 하고, 건강한 흙으로
항아리를 빚는다. 익산 농장에서 수확한 열대 과일로 브런치를
즐기고, 정원에 앉아 독서 삼매경에 빠진다. 전주에서는
한약재를 달여 만든 전통 모주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도시마다 서로 다른 매력을 지닌 로컬 체험이다.



기다림의 미학 모주체험 여-모주 체험

전북 전주한옥마을의 경기전 앞에는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체험 공간이 자리한다. 각종 한약재를 달여 술을 빚는 모주체험 여다. 나무 계단을 따라 2층에 오르면 경기전이 시원하게 내려다보이는 통창에 시선이 머물러 있다. 이곳에서는 모주를 직접 만들고 맛볼 수 있는데, 종류는 전통 모주와 봄 모주 두 가지다. 봄 모주는 계절에 맞춰 새롭게 선보인 메뉴로, 전통 모주에 몸과 마음에 활기를 불어넣는 한약 재료를 더한다.

체험은 한약재를 고르는 일부터 시작된다. 선반 가득 진열된 약재 가운데, 레시피를 참고해 개인 재반에 골라 담는다. 전통 모주에는 계피·대추·황기·감초·편향·흑설탕이 들어가고, 봄 모주는 여기에 비트와 헛개가 더해진다. 다음은 약재를 달여 술을 담글 차례. 전기 포트에 전주 생막걸리를 가득 붓고 준비한 약재를 넣어 5분간 끓인다. 그런 다음 뚜껑을 열고 15분간 다시 끓이는데, 이때 나무 국자로 계속 저어야 알코올 성분이 날아가며 걸쭉하게 졸여진다. 다시 설탕을 넣고 끓인 후에는 모주가 식을 때까지 기다린다. 술을 빚는 동안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생기는데, 창밖 풍경을 보거나 골똘히 생각에 잠기기 좋다. 완성된 모주를 한 모금 마셔 보니 약재 향이 강하지 않고 은은하게 퍼지며 달콤한 맛이 부드럽게 감돈다. 오래 끓인 덕분에 알코올 성분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속도 편안하다. 식은 모주는 병에 담고 라벨을 붙여 완성한다. 재료 선정부터 술을 달이고 포장하기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경험해 보니 마음이 뿌듯하다.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 37 문의 0507-1355-3875



1 모주에 들어가는 다양한 한약재. 2 모주체험 여의 통창으로 경기전이 한눈에 담긴다. 3 완성된 모주는 그 자리에서 맛보거나 병에 담아 가져갈 수 있다.





1



2



3

©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 드림플힐링팜 - 오두막 힐링팜크닉

전북 완주군 소양면의 고요한 산자락에 자리한 드림플힐링팜은 자연과 농업, 휴식이 조화를 이루는 치유 농장이다. 이곳에서는 자연을 매개로 몸과 마음을 돌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원예치료'는 원예 활동을 통해 식물의 성장과 개화, 결실 등 변화를 관찰하며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텃밭정원'은 작물을 재배하며 생명의 순환과 곤충의 생태를 살펴보는 활동이고, '생태놀이'와 '숲체험'은 숲속에서 명상을 하거나 산책을 하며 자연의 일부가 되어보는 시간이다. 싱그러운 나무와 꽃으로 둘러싸인 오두막에서 피크닉을 즐기는 '오두막 힐링팜크닉'은 특히 인기가 많다.

오두막 힐링팜크닉을 신청하면 음료와 디저트, 동물에게 줄 간식이 담긴 바구니를 건네준다. 먼저 오두막에 들어가 음료를 마시며 잠시 숨을 고른다. 오두막에서 스며 나오는 나무 향과 산뜻한 바람을 만끽하니 도시의 숨가쁜 일상이 전생처럼 아득하게 느껴진다. 음료를 마신 뒤에는 텃밭으로 나가 허브와 샐러드 채소를 수확한다. 이렇게 얻은 자연 식재료로 로컬 피자나 허브 모히도를 만든다. 마지막으로 동물 간식 바구니를 들고 동물 농장으로 향한다. 염소와 토끼, 오리 등이 농장을 한가로이 거니는 모습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된다. 먹이를 건네자 의심 없이 다가와 받아먹는 토끼의 귀여운 모습에 미소가 절로 지어진다.

주소 전북 완주군 소양면 원암로 348-15 문의 063-246-3337

1 자연에 둘러싸여 프라이빗한 휴식을 즐기는 오두막 힐링팜크닉. 2 오두막 힐링팜크닉 체험에는 동물 먹이 주기가 포함돼 있다. 3 드림플힐링팜에서는 자연을 매개로 몸과 마음을 돌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www.korail.com 한국철도공사

1

흙이 주는 위로 봉강요 - 도예 원데이 클래스

전북 완주 위봉산 자락에 자리한 봉강요는 도예가 진정욱의 작업실이자 전시장이며 교육 공간이다. 이곳에서 20여 년간 전통 장작 가마를 사용해 분청사기의 맥을 이어 온 그는 전북 출신 최초로 2025년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됐다. 대한민국 명장에게 도예를 배울 수 있는 기회라니, 봉강요가 자리한 전북 완주 위봉마을로 한달음에 달려갔다.

클래스 참여에 앞서 진정욱 도예가의 안내를 받으며 봉강요를 둘러보기로 한다. 약 1만 1600제곱미터에 이르는 부지에 들어선 미술관과 체험관, 작업실, 현대 가마와 전통 가마, 전시장을 차례로 방문한다. 가마에서 도자기가 구워지는 과정과 작업실에서 작품이 탄생하는 단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으면 도자의 세계에 흠뻑 빠져든다.

이곳에서 운영하는 원데이 클래스는 물레 체험, 핸드빌딩, 달항아리 빚기 등 세 가지. 그중 달항아리 만들기에 도전했다. 달항아리의 핵심은 복을 가득 품을 수 있는 둥그스름한 곡선. 빠르게 돌아가는 물레 위 흙기둥의 중앙을 엄지로 꼭 눌러 원통을 만든 뒤, 원통의 안과 밖에 각각 왼손과 오른손을 대고 서서히 형태를 넓혀 간다. 고도의 집중력과 섬세한 손질이 필요한 순간, 자연스레 온 감각이 흙을 향하고 머릿속 잡생각은 사라진다.

수차례 시도한 끝에 유연한 곡선이 완성되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밀려온다. 흙을 다듬어 가며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과, 작품을 완성한 후에 찾아온 성취감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이다.

주소 전북 완주군 소양면 위봉길 75-14 문의 063-244-0067



2



3

1 대한민국 명장 진정욱 도예가가 진행하는 도예 원데이 클래스. 2 진정욱 도예가의 작품을 소개하는 전시장. 3 체험이 시작되는 문화공간에는 다양한 도자 작품이 전시돼 있다.

익산에서 즐기는 동남아 여행

서동팜 - 열대 과일 브런치 쿠킹 클래스

전북 익산시 금마면의 한적한 도로를 달리다 보면 '아열대 과일 체험 농장'이라 적힌 이정표가 시선을 끈다. 지극히 한국적인 농촌 마을에 아열대 과일이라니. 호기심에 이정표를 따라가니 커다란 온실 두 동이 나란히 있는 서동팜이 모습을 드러낸다. 온실 안에는 핑크벨벳 바나나, 파인애플, 파파야, 패션프루트 등이 림만 들어도 동남아의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는 열대 과일 15종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보기만 해도 침이 고이는 열대 과일을 맛보기 위해 '열대 과일 브런치 쿠킹 클래스'를 신청했다.

클래스에 앞서 진택성 서동팜 대표와 함께 열대 과일 농장을 둘러본다. 온실 안으로 들어서자 후끈한 기운이 꽃샘추위에 얼어붙은 몸을 단숨에 녹여준다. 열대식물의 거대한 잎이 사방으로 뻗어 있고, 온실 가득 색색의 열매가 탐스럽게 익어간다. 마치 동남아로 순간 이동한 듯한 기분. 가장 눈에 띄는 건 커피다. 동그랗고 앙증맞은 열매가 줄기를 따라 달려 있는데, 이 열매의 씨앗이 커피 원두가 된다. 중남미나 중동 아프리카에서 볼 수 있는 커피를 직접 보고 만지는 경험이 생경하면서도 흥미롭다.

열대 과일 브런치는 온실에서 자란 채소와 열대 과일로 만든다. 온실에서 수경 재배한 유리피언 샐러드를 수확하고, 파인애플·파파야·바나나·레드향을 따서 먹기 좋은 크기로 썬다. 프라이팬에 빵과 소시지, 떡갈비를 구워 한 그릇에 담고 서동팜의 특제 파파야 소스를 뿌리면 완성. 상큼하고 달콤한 과일과 신선한 채소, 부드러운 빵이 어우러져 먹는 내내 감탄사가 터져 나온다.

주소 전북 익산시 금마면 각봉길 15 문의 0507-1434-8290



1



©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

2



1 서동팜 온실에서 재배한 파파야, 반을 가르자 주홍빛 속살이 드러난다. 2 열대 과일 브런치 쿠킹 클래스에 참여해 신선한 재료를 직접 손질해 본다. 3 열대 과일 브런치 쿠킹 클래스를 위한 재료가 준비됐다.

©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



유럽의 시골 마을을 닮은 정원

봄과 로라의 치유농장 - 오감 팜크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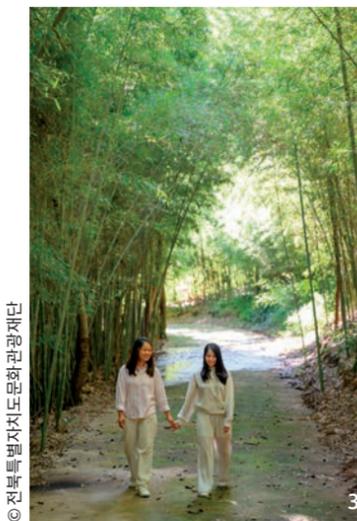
이름부터 이국적인 느낌이 물씬한 이곳은 유럽의 시골 마을을 연상케 하는 봄과 로라의 치유농장이다. 텃밭가꾸기, 숲산책, 명상, 에코프린팅, 치유 밥상 등 자연을 건강하게 즐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익산의 체험 명소로 인기 있다.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는 봄철에는 이 농장에서 진행되는 '오감 팜크닉'을 추천한다. 아름다운 정원을 맨발로 거닐며 자연과 어우러진 삶을 산 미국 동화 작가 타샤튜더의 라이프스타일을 모티브로 한 프로그램으로, 간식과 책, 따뜻한 차가 담긴 피크닉 바구니를 제공한다.

팜크닉에 나서기 전, 꼭 챙겨야 할 것이 있다. 타샤튜더가 즐겨 착용한 앞치마와 두건이다. 농장에 유럽 감성의 레이스 두건과 체크 패턴의 앞치마가 진열돼 있는데, 원하는 색과 디자인을 골라 착용하면 된다. 복장까지 완벽하게 갖췄다면 이제 타샤튜더가 되어 정원을 거닐 차례. 색색의 봄꽃이 만개한 정원과 빈티지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별장, 평온한 분위기의 대나무 숲 등에서 자유롭게 피크닉을 즐기면 된다. 먼저 정원 한가운데 놓인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바구니에서 음식과 음료를 꺼내 상을 차린다. 메뉴는 텃밭에서 가꾼 채소를 넣은 치유 김밥과 향긋한 커피. 싱그러운 초록빛으로 가득한 자연에 둘러싸여 먹으니 더욱 꿀맛이다. 배를 채운 후에는 대나무 숲 둘레길을 걸어보자. 오솔길을 따라 대나무가 하늘 높이 솟아 바깥세상과 완전히 차단된 기분이다. 발소리와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 소리만이 잔잔히 울려 퍼진다.

주소 전북 익산시 함라면 함라교동길 27-73 문의 0507-1428-3566

1 봄과 로라의 치유농장 곳곳을 수놓은 꽃. 2 농장 한가운데에는 피크닉을 위해 마련한 테이블이 놓여 있다. 3 대나무 숲 둘레길은 고요한 산책로를 걸으며 명상을 즐기기에 좋다.



©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

3



3

A woman with long dark hair, wearing a tan sweater, is standing in a greenhouse and taking a photo of a papaya tree with her smartphone. The tree is laden with green papayas. The background is filled with lush green foliage and large banana leaves. The lighting is soft and natural, suggesting an indoor greenhouse environment.

Jeonbuk Through the Five Senses, Local Experiences

At the foot of Wibongsan Mountain in Wanju, Bonggangyo is the studio and learning space of ceramic artist Jin Joung-wook, named a Korean Master Hand in 2025. The one-day classes offered here include wheel throwing, hand-building, and crafting a moon jar. Among them, the moon jar workshop is especially meaningful, as the rounded form is traditionally associated with good fortune.

Nestled in the quiet mountain landscape of Soyang-myeon, Dreamddeul Healing Farm is a restorative space where nature, agriculture, and rest come together. Guests who book the hut picnic experience receive a basket filled with drinks, desserts, and animal feed. Nearby, Bomgwa Laura-ui Chiyu Nongjang (Bom & Laura's Care Farm), whose name alone evokes a European countryside, offers a "five-senses healing farm picnic." Visitors enjoy wholesome food in a peaceful garden and walk barefoot through the grounds, inspired by the lifestyle of American writer Tasha Tudor, who championed a life in harmony with nature.

At Moju Cheheom Yeo (Moju Experience Yeo), visitors can make and taste moju, a traditional Jeonju rice wine. Two versions are offered: classic moju and a spring variation. The experience begins with selecting medicinal herbs. The traditional recipe uses cinnamon, jujube, astragalus root, licorice, dried ginger, and dark sugar, while the spring version adds beetroot and oriental raisin tree fruit.

Inside the greenhouse at Seodong Farm, clusters of tropical fruits fill the space. Pink velvet bananas, pineapples, papayas, passion fruit, and more, totaling 15 varieties, evoke the warmth of Southeast Asia at first glance. To sample these fruits at their freshest, visitors can join a tropical fruit brunch cooking class.

Address 75-14, Wibong-gil, Soyang-myeon, Wanju-gun, Jeonbuk-do (Bonggangyo); 348-15, Wonam-ro, Soyang-myeon, Wanju-gun, Jeonbuk-do (Dreamddeul Healing Farm); 27-73, Hamnagydong-gil, Hamnamyeon, Iksan-si, Jeonbuk-do (Spring & Rora Care Farm); 37, Taejo-ro, Wansan-gu, Jeonju-si, Jeonbuk-do (Moju Experience Yeo); 15, Gakbong-gil, Geumma-myeon, Iksan-si, Jeonbuk-do (Seodong Farm)

시간을 달리는 항구도시, 목포

100여 년 전 건물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근대 거리를 거닐고,
목포해양유물전시관에서는 바닷속에 잠들어 있던 보물 이야기를 듣는다.
고하도 해상 테크를 따라 걸으며 충무공 이순신의 얼을 되새기고,
해상 케이블카에 올라 도시와 바다 풍경을 한눈에 담는다.
시간을 거슬러 전남 목포로 떠난 여정을 펼쳐 보인다.

가는 방법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목포역까지 2시간 40분 정도 걸린다.



1

1

애환 서린 바다 위를 걷다
고하도 전망대 & 고하도 해상 데크

목포 앞바다에 길게 누운 용의 형상을 닮아 '용섬'이라 불리는 고하도로 향하는 길은 어렵지 않다. 차로 목포대교를 건너거나 해상 케이블카를 이용하면 금세 닿는다. 고하도 산책로를 따라 정상에 오르면 목재 블록을 엮갈려 쌓아 올린 듯한 이색적인 건축물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거대한 나무 성채이자 현대미술 작품을 연상시키는 이 건축물은 고하도 전망대다. 명량해전에서 판옥선 열세 척으로 왜군을 무찌른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세웠다. 고하도는 충무공이 106일간 머물며 군량미를 비축하고 판옥선을 재건해 전력을 가다듬은 전략적 거점이기도 하다. 1597년 보화도(지금의 고하도)에 배를 정박한 이순신 장군은 <난중일기>에 "서북풍을 막을 만하고 배를 감추기에 아주 적합했다"고 기록했다. 전망대에 오르면 사방이 시원하게 트인 조망과 함께 은폐에 유리한 섬의 지형이 한눈에 들어와 이곳이 군사적 요충지였음을 저절로 이해하게 된다. 안으로 들어서면 고하도 역사와 목포의 문학인들, 권역별 관광 정보를 소개하는 전시가 층층이 이어진다. 창밖 풍경 또한 층마다 각기 다른 매력을 선사한다. 낮은 층에서는 고하도의 푸른 숲과 완만한 해안선이 눈앞에 펼쳐지고, 위층으로 오를수록 목포대교와 다도해의 섬들이 시야를 채운다. 어렵פות이 들리는 파도 소리를 따라 전망대 아래 해상 데크로 내려서면 풍경은 한층 생생하게 다가온다. 목포대교가 놓인 용머리 방향에는 전장을 지휘하듯 기개 넘치는 이순신 장군 동상과 하늘 위로 비상하는 듯 생동감 넘치는 은빛 용 조형물이 자리하고, 반대편에는 1940년대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이 조성한 해안 동굴이 남아 있다.



2

주소 전남 목포시 고하도인길 234 문의 061-270-8217

1 고하도 해상 데크를 걷다 보면 발밑에서 파도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지며 마치 바다 위를 걷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2 열세 척의 판옥선 모형을 교차해 쌓아 올린 고하도 전망대는 조선 수군의 호국 정신을 담았다.



1



2

1 목포 대중음악의 전당 2층에선 1930년대 한국 대중음악의 태동과 확장을 살펴볼 수 있다. 2 근대역사문화거리에 곡선형 전면부가 인상적인 카페 화신연쇄점이 자리한다. 3 윤심덕의 '사의 찬미', 남진의 '님과 함께' 등 1930~1970년대 명곡을 감상하며 그때 그 시절의 향수를 느낀다.

주소 전남 목포시 해안로249번길 34(목포 대중음악의 전당) 전화로 75(화신연쇄점) 문의 061-244-2220(목포 대중음악의 전당), 0507-1316-8429(화신연쇄점)



3

| 2 |

100년 전으로 떠나는 시간 여행
목포 대중음악의 전당 & 화신연쇄점

목포 대중음악의 전당과 화신연쇄점은 1897년 개항 이후 100여 년간 목포가 겪은 번영과 쇠퇴의 시간을 가장 잘 간직한 공간이다. 목포 대중음악의 전당은 1920년, 일본 자본 은행들만 존재하던 거리에 한국인 지역 유지들이 힘을 모아 민족자본으로 세운 호남은행 목포 지점이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목재 트러스 구조의 천장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삼각형으로 조립된 목재가 하중을 지탱하는 서양 건축양식으로, 근대건축의 특징을 잘 보여 준다. 1층에서는 목포 개항 이야기, 극작가 김우진과 성악가 윤심덕의 사랑 이야기 등을 VR로 감상하고, 작곡 체험과 개화기 의상 촬영 등 체험형 콘텐츠를 통해 그 시대의 분위기를 오감으로 느낀다. 2층에서는 이난영과 김시스터즈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1930년대 한국 대중음악의 태동과 확장을 조명한다. 목포 대중음악의 전당에서 도보 1분 거리에는 곡선형 전면부가 인상적인 카페 화신연쇄점이 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소유 건물이었지만, 한국인이 인수해 서울 종로 화신백화점 분점이 들어섰고 이후 운송 회사, 갤러리를 거쳐 2025년에 카페로 재탄생했다.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기둥과 곡선형 계단, 옛 금고가 그대로 남아 있는 실내에는 시간이 켜켜이 쌓인 흔적이 느껴지고, 여기에 모던한 가구를 더해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낸다. 비엔나커피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1990 화신 크림 라테'를 한 모금 들이켜며 이곳이 백화점이던 시절의 풍경을 떠올려 본다. 이국의 낯선 물건들을 바라보며 눈빛을 반짝였을 사람들의 모습이 겹쳐진다.



주소 전남 목포시 남동로 136 문의 061-270-3001

3

바닷속 보물을 찾아서
목포해양유물전시관

1975년 여름,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한 어부의 그물에 청자 여섯 점이 걸려 올라왔다. 도자기의 정체는 14세기에 동아시아 바닷길을 오가던 대형 무역선 '신안선'의 유물이었다. 보물선의 존재가 알려지자 전국에서 도굴꾼이 몰려들었고, 이듬해 정부가 유물 보존을 위해 신안선 수중 발굴에 착수했다. 이후 수중 발굴한 해양 유산을 지키기 위해 1994년 영산강 하구 인근에 목포해양유물전시관을 열었다. 이곳은 네 개의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 어린이체험관으로 구성되었다. 1층 제1전시실에는 십이공파도선, 달리도선, 완도선 등 세 척의 고려 난파선을 전시해 고려 시대의 활발한 해상 운송 체계와 교역 규모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철제 프레임 안에 남은 선체의 목재 조각으로 배의 크기와 형태를 어렵듯이 그려 본다. 청자와 짚을 번갈아 쌓아 포장한 도자기 꾸러미에서 생활의 지혜가 읽히고, 솔과 장기 알, 나무 빗 같은 유물은 바다 위 뱃사람들의 일상을 상상하게 한다. 전시의 하이라이트는 제2전시실이다. 복원된 신안선 실물 앞에 서는 순간, 압도적인 규모에 그대로 몸이 얼어붙는다. 한눈에 담기지 않는 거대한 선체를 따라 걸으며 송·원대의 고급 자기와 28톤에 달하는 동전, 1017개의 자단목, 동남아시아산 향신료 등 신안선에 실려 있던 유물을 차례로 구경한다. 전시실 끝까지 이어지는 유물들은 신안선이 누비던 동아시아 바닷길이 문화와 물자가 오가던 거대한 네트워크였음을 증언한다. 전시는 2층으로 이어진다. 제3전시실에서는 디지털 실감 영상을 통해 생생한 수중 발굴 현장을 마주하고, 제4전시실에서는 한국 전통 배 '한선'의 구조와 제작 과정을 인터랙티브 콘텐츠로 살펴본다.

1, 3 신안선을 실물 크기로 복원해 놓은 제2전시실. 배에서 출수된 송·원대의 고급 자기, 동전, 자단목, 향신료 등을 함께 볼 수 있다.
2 바닷속 발굴 현장을 디지털 실감 영상으로 생생하게 재현해 마치 잠수사와 함께 물속으로 들어간 듯한 몰입감을 선사한다.

| 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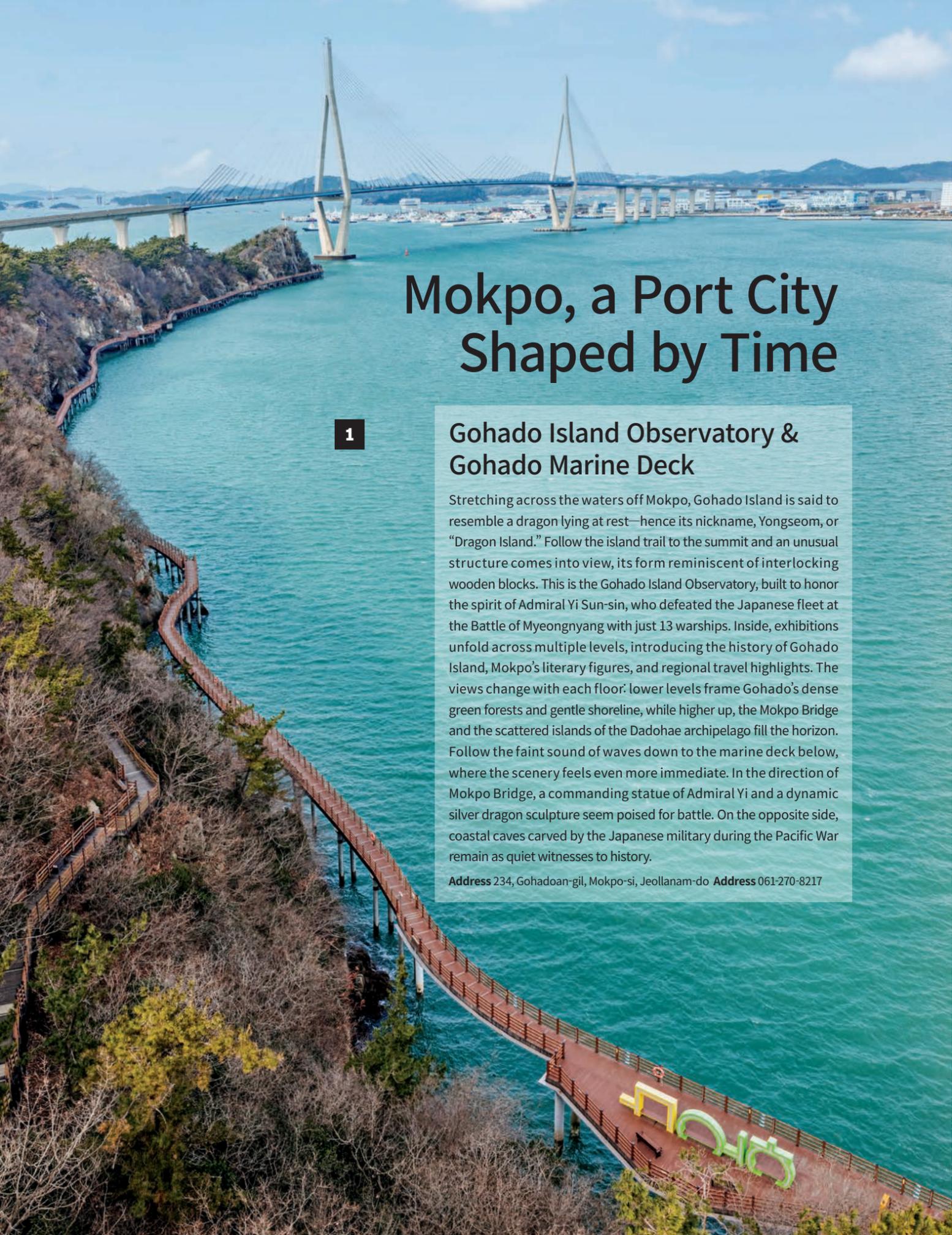
목포를 한눈에 담다
목포해상케이블카

왕복 거리 6.46킬로미터, 주탑 최고 높이 155미터. 목포해상케이블카의 스케일은 세계에서도 손꼽힌다. 북항승강장에서 출발해 유달산 정상부와 고하도를 지나 다시 기점으로 돌아오는 40분 동안 목포 전체가 고스란히 눈앞에 펼쳐진다. 목포해상케이블카의 진가를 느끼고 싶다면 크리스털 캐빈이 제격이다. 사방은 물론 바닥까지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어 공중을 나는 듯한 느낌이 짜릿하다. 케이블카가 최고 높이에 다다르자 시야가 단숨에 트이고, 풍경은 아스라하면서도 또렷하다. 유달산에서 양을산까지 이어지는 광활한 공간에 도시의 풍경이 펼쳐지고, 집 마당에 나란히 앉아 담소를 나누는 할머니들의 몸짓과 표정까지 생생하게 내려다보인다. 이내 시선은 유달산으로 옮겨 간다. 푸른 숲 사이로 일등바위와 이등바위가 능름하게 솟아 있고, 가지마다 맏힌 꽃봉오리가 봄기운을 전한다. 유달산의 일주 도로를 벗어나면 에메랄드빛 바다가 시야를 채운다. 영산강은 삼학도를 지나 서서히 바다로 스며들고, 작은 배 한 척이 잔잔한 물결을 일으키며 고하도 용머리를 휘돌아 나온다. 더없이 고즈넉한 장면이다. 고하도에 내려 전망대와 해상 데크를 들른 뒤 다시 북항으로 향하는 케이블카에 오른다. 풍경이 되감기하듯 펼쳐지지만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해는 다도해 너머로 빠르게 기울고, 남은 주황빛이 하늘에 천천히 번진다. 빛이 사라질수록 풍경은 한층 깊어지고, 시시각각 바뀌는 풍경에 홀린 듯 창밖을 바라본다. 마침내 어둠이 내려앉자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진다. 점점이 수놓인 빛은 우주에서 내려다보는 은하수처럼 아득하다. 목포에서의 하루가 그렇게 저물어 간다.

주소 전남 목포시 해안대화로 240(목포해상케이블카 북항승강장) 문의 061-244-2600(목포해상케이블카 북항승강장)



목포해상케이블카에서는 도시와 유달산, 해상 풍경을 두루 감상할 수 있다.



Mokpo, a Port City Shaped by Time

1

Gohado Island Observatory & Gohado Marine Deck

Stretching across the waters off Mokpo, Gohado Island is said to resemble a dragon lying at rest—hence its nickname, Yongseom, or “Dragon Island.” Follow the island trail to the summit and an unusual structure comes into view, its form reminiscent of interlocking wooden blocks. This is the Gohado Island Observatory, built to honor the spirit of Admiral Yi Sun-sin, who defeated the Japanese fleet at the Battle of Myeongnyang with just 13 warships. Inside, exhibitions unfold across multiple levels, introducing the history of Gohado Island, Mokpo’s literary figures, and regional travel highlights. The views change with each floor: lower levels frame Gohado’s dense green forests and gentle shoreline, while higher up, the Mokpo Bridge and the scattered islands of the Dadohae archipelago fill the horizon. Follow the faint sound of waves down to the marine deck below, where the scenery feels even more immediate. In the direction of Mokpo Bridge, a commanding statue of Admiral Yi and a dynamic silver dragon sculpture seem poised for battle. On the opposite side, coastal caves carved by the Japanese military during the Pacific War remain as quiet witnesses to history.

Address 234, Gohadoan-gil, Mokpo-si, Jeollanam-do **Address** 061-270-8217

Stroll through modern streets where buildings from more than a century ago remain intact, and uncover stories of treasures once hidden beneath the sea at the Mokpo Maritime Museum. Walk along the Gohado Island Marine Deck to reflect on the indomitable spirit of Admiral Yi Sun-sin, then rise above the city on the Marine Cable Car for a sweeping view of land and sea.



2

Mokpo Hall of Popular Music & Hwashin Chainstore

The Mokpo Hall of Popular Music and the former Hwashin Chainstore together encapsulate a century of the city’s rise and decline. The Hall of Popular Music occupies what was once the Mokpo branch of Honam Bank, founded in 1920 with Korean capital at a time when Japanese-owned banks dominated the area. On the first floor, visitors experience the story of Mokpo’s port opening, the tragic romance of playwright Kim Woo-jin and soprano Yun Sim-deok through VR, and hands-on programs such as composition workshops and photo shoots in early modern attire. The second floor traces the birth and spread of Korean popular music in the 1930s, centering on figures such as Lee Nan-young and the Kim Sisters. Just a one-minute walk away stands Hwashin Chainstore, now reborn as a café with a striking curved façade. Originally owned by Japanese interests during the colonial period, the building later became a branch of Seoul’s Hwashin Department Store, then served as a transport company and gallery before reopening in 2025 as a café. Inside, reinforced concrete columns, a sweeping curved staircase, and a preserved old vault speak to the building’s layered past, while contemporary furnishings lend a refined, modern atmosphere.

Address 34, Haeon-ro 249beon-gil, Mokpo-si, Jeollanam-do (Mokpo Hall of Popular Music), 75, Beonhwa-ro (Hwashin Chainstore)
Contact 061-244-2220 (Mokpo Hall of Popular Music), 0507-1316-8429 (Hwashin Chainstore)



3

Mokpo Maritime Museum

Opened in 1994 near the estuary of the Yeongsangang River, the Mokpo Maritime Museum was established to preserve marine heritage recovered through underwater excavation. On the first floor, Exhibition Room 1 displays three Goryeo-period shipwrecks—the Sibidongpado Ship, the Dallido Ship, and the Wando Ship—offering a tangible sense of the era’s active maritime transport networks and the scale of seaborne trade. The highlight awaits in Exhibition Room 2. Standing before the restored Shinan Ship, its sheer scale is arresting. Walking along the massive hull, visitors encounter exquisite Song- and Yuan-dynasty ceramics, nearly 28 tons of coins, 1,017 pieces of red sandalwood, and spices from Southeast Asia. The long procession of artifacts makes clear that East Asian sea routes were not merely passages of travel but vast networks through which goods, culture, and ideas circulated. The exhibition continues upstairs: Exhibition Room 3 brings underwater excavations to life through immersive digital media, while Exhibition Room 4 uses interactive displays to explain the structure and construction of traditional Korean wooden vessels.

Address 136, Namnong-ro, Mokpo-si, Jeollanam-do **Contact** 061-270-3001

4

Mokpo Marine Cable Car

With a total round-trip length of 6.46 kilometers and pylons rising to a height of 155 meters, the Mokpo Marine Cable Car ranks among the largest in the world. Over a 40-minute journey, it departs from the North Port Station, passes over the summit of Yudalsan Mountain and Gohado Island, and returns to its starting point, revealing Mokpo in its entirety below. To fully appreciate the experience, the crystal cabin is the ideal choice. Enclosed entirely in transparent glass—including the floor—it delivers the exhilarating sensation of gliding through open air. As the cable car reaches its highest point, the view opens wide. From 155 meters above ground, the landscape appears both distant and sharply defined: the First and Second Rocks of Yudalsan rise proudly amid dense green forest, while buds on the branches hint at spring. Beyond the mountain’s circular road, emerald waters fill the frame. The Yeongsangang River slips gently into the sea past Samhakdo Island, and a lone boat cuts a quiet arc around Gohado’s dragon-shaped headland. The scene is serene, almost suspended in time.

Address 240, Haeyangdaehak-ro, Mokpo-si, Jeollanam-do (North Port Station) **Contact** 061-244-2600 (North Port Station)



목포의 봄을 거닐다 2026 유달산 봄축제

전남 목포에 봄이 찾아왔다.
유달산 봄축제로 계절의 정취에 취해 본다.



목포 시민에게는 일상의 풍경이자 여행객에게는 반드시 들러야 할 곳으로 유달산을 빼놓을 수 없다. 목포 시내와 다도해가 한눈에 보이는 명소로, 매년 봄이면 유달산 경치를 만끽하는 축제가 열린다. 올해 유달산 봄축제는 '봄'을 키워드로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기기에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돛자리에 앉아 김밥과 샌드위치, 솜사탕 등을 먹는 봄 소풍과 돌레길 곳곳에 숨겨진 보물을 찾는 프로그램은 동심을 불러 일으킨다. 산책하듯 걷기 좋은 유달산 돌레길에는 이순신 장군 동상과 가수 이난영의 노래비, 연인들의 포토존으로 사랑받는 연리지 소나무, 전설을 품은 기암 괴석 등 시선을 붙드는 명소가 이어진다. 대학루와 달선각, 유선각 등 산책길 중간중간 자리한 정자에 앉아 잠시 쉬어 가기도 좋다. 축제의 순간을 오래 간직하기 위해 봄꽃으로 꾸민 포토존에서 인증 사진을 남기는 일은 필수다. 유달산 코앞에 위치한 노적봉예술공원에도 즐길 거리가 풍성하다. 시립 예술 단체의 공연과 시니어 합창단, 지역 예술인의 버스킹이 축제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리고, 봄꽃 비즈 링 및 화관 만들기, 봄꽃 편지 쓰기 등 체험 콘텐츠도 즐거움을 더한다.

078 기간 4월 4일~5일 장소 전남 목포 유달산 일주도로 일원 문의 061-270-8432



건강한 낙지 요리 한 상, 꽃낙

'갯벌 속의 인삼'이라 불리는 낙지 가운데서도 다리가 가늘고 연한 종을 세발낙지라 부른다. 목포항 사거리에 자리한 꽃낙의 고대호 대표는 재료 본연의 맛을 끌어내 기본에 충실한 낙지 요리를 낸다. 소낙탕탕이와 낙지 연포전골이 대표 메뉴. 갯잡은 낙지를 깨끗이 손질한 뒤 탕탕 떨어 참기름에 버무리고 껍을 얇은 낙지탕탕이에 쇠고기 육회를 더한 소낙탕탕이는 식감과 풍미를 모두 만족시킨다. 입안에서 살아 움직이듯 요동치는 낙지는 탱글탱글하면서도 부드럽고, 육회는 씹을수록 고소하다. 김에 싸 먹어도 좋고, 밥을 비벼 탕탕이비빔밥으로 즐겨도 그만이다. 한입 먹으면 속이 금세 따뜻해지는 낙지 연포전골도 빼놓을 수 없다. 알맞게 익은 낙지는 선홍빛을 띠며 다리가 힘 있게 솟아 오른다. 조개와 파, 무로 깊은 맛을 낸 국물은 담백하고 개운하며, 팽이버섯과 송이버섯은 쫄깃한 식감을 더한다. 메인 요리 곁을 채우는 반찬도 제철 식재료를 맛깔나게 차려내 입맛을 돋운다. 푸짐한 낙지 요리 한 상을 비우고 나면 힘이 불끈 솟는다.

주소 전남 목포시 해안로 175-1 문의 0507-1353-8081

봄이 차린 목포의 밥상

사시사철 해산물이 풍부한 전남 목포에서 별미로 손꼽히는 '목포 9미' 가운데 봄이 제철인 맛집 두 곳을 찾았다.

밥도둑의 계보를 잇는 꽃게무침, 너구리식당

간장게장과 양념게장을 잇는 또 하나의 밥도둑이 목포에 있다. 바로 꽃게무침. 꽃게 살만 발라 빨간 양념에 무친 모습은 양념게장을 닮았지만, 맛은 전혀 다르다. 목포의 대표 별미, 꽃게무침을 제대로 맛보려면 북항선착장 인근의 너구리식당에 가야 한다. 소문난 현지인 맛집으로 최근에는 여행객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아 문 열자마자 손님들이 줄을 잇는다. 너구리식당의 꽃게무침은 주문과 동시에 꽃게 살을 발라 특제 양념과 함께 오이, 당근, 양파를 넣고 무쳐 낸 뒤 게딱지 안에 듬뿍 담아내는 것이 특징이다. 꽃게무침을 싹싹 긁어 밥에 넣고 비벼서 한입 맛보면 달콤한 게살과 아삭한 채소, 감칠맛 넘치는 양념이 어우러져 손가락을 내려놓기 쉽지 않다. 허겔에 남은 양파의 알싸한 맛을 달래는 데는 시원한 동태찌개가 제격이다. 무와 파, 두부만 넣고 담백하게 끓이는 것이 맛의 비결.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 들 정도로 국물이 개운하고 칼칼하다. 여기에 통통한 동태 살까지 더하면 만족감이 배가된다. 꽃게무침 한 입, 동태찌개 한 숟갈을 번갈아 먹다 보면 어느새 밥 한 공기 말끔히 비워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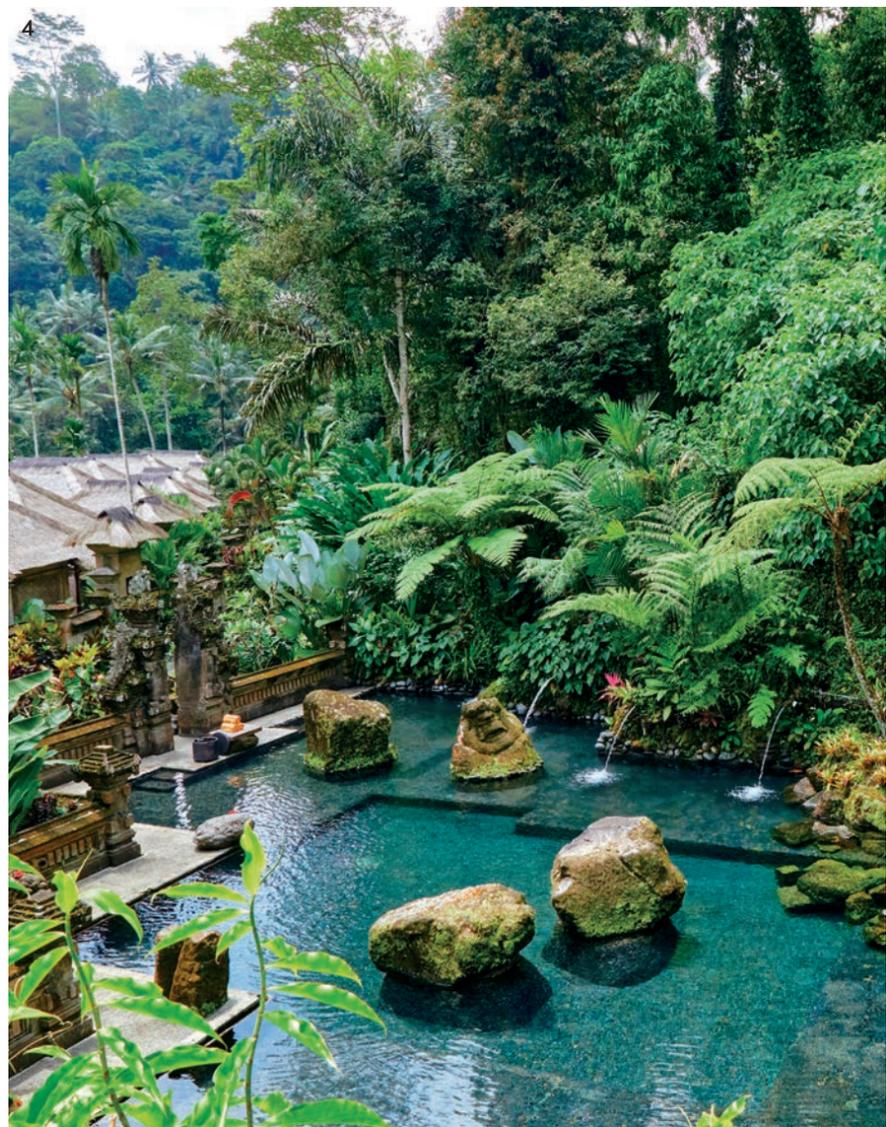
주소 전남 목포시 죽교천로122번길 9 문의 061-245-5310



치유하는 우붓

인도네시아 발리 우붓에서 소란과 완벽하게 단절된 곳에 머물며 신심 깊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냈다. 그간 발리 여행에서 단 한 번도 이루지 못한 꿈, '쉬고 비우고 채우기'를 마침내 실천하고 돌아왔다.

취재 협조 Supported by Resort Holiday Korea, The Royal Pita Mana



치유의 캠프

2년 전 번아웃을 극복해 보고자 2주간 발리에 머물렀다. 근 10년 만에 다시 찾은 우붓 중심가, 잘란 라야 우붓(Jl. Raya Ubud)에서 처음 마주한 장면은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비좁은 일차 선로. 줄지어 선 자동차와 마이크가 함께 만들어 내는 자욱한 매연과 소란 틈에서 “거기 어때?” 하고 묻는 친구의 메시지에 이렇게 답했다.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랑 요가 반(The Yoga Barn)이 우붓을 다 망쳐놨어.”

우붓에 더 이상 여유, 고요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한 나의 단정을 유보한 건 로얄 피타 마하(The Royal Pita Maha)였다. 우붓 왕궁, 푸리 사렌 아궁(Puri Saren Agung)에서 5.7킬로미터만 내달리면 닿는 이 리조트에서 발리에 지금도 왕이 산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우붓의 마지막 통치 군주 조코르다 그테 아궁 수카와티와 그의 아들 조코르다 그테 푸트라 수카와티(이하 푸트라 수카와티) 얘기다. 왕정은 끝났지만 왕국은 살아 있다. 로얄 피타 마하가 근거다. “이곳은 원래 왕실 저택이었습니다. 리조트가 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우붓인들의 일 자리를 위해, 그럼으로써 더 나은 삶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였죠.” 로얄 피타 마하 총괄 매니저인 데와 아림바와의 말이다. 우붓에서 수카와티 왕가가 운영하는 리조트는 총 세 곳. 1500여 명의 우붓인이 피타 마하 그룹에 소속되어 일과 삶을 꾸려간다.

데와에게 ‘수카와티 왕실의 지역사회 공헌에 관한 얘길 들었지만, 왕실의 공간을 의지인에게 공개하는 까닭은 못 들어, 머물면서 직접 알아보기로 했다. 첫날에는 정글을 바라보며 수영을 즐기는 독채 풀빌라, 지역 장인과 예술가의 작품으로 가득 찬 고풍스러운 방, 원시의 숲을 방불케 하는 정원, 텃밭에서 직접 재배한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내는 레스토랑의 화려한 면면에 마음을 뺏겼다. ‘예술로 우붓을 일으킨 왕조로 유명한 수카와티 가문의 취향이 고스란히 담긴 공간은 확실히 매력적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의문이 일었다. 그걸 과시하는 것이 푸트라 수카와티의 의도였을까?’

그가 베풀고자 한 것은 우붓의 번영기를 고스란히 품은 럭셔리 빌라에서 보내는 윤택한 며칠이 아니다. 그런 곳은 신혼여행객을 겨냥한 최고급 숙소의 각속장인 발리에 이미 차고 넘친다. 내가 로얄 피타 마하에서 경험한 건 20세기 전, 순전한 우붓 그 자체다. 이곳이 ‘약(medicine)’이라는 뜻을 가진 지명의 발원지에 자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추측은 확신이 됐다. 로얄 피타 마하가 자리한, 승천하는 용의 몸짓처럼 힘차게 굽이치는 아융강(Ayung River)이 품은 산기슭은 이 땅에 우붓이라는 이름을 붙인 성자, 르시 마르칸테아의 모험기가 펼쳐지는 무대다. 그 역사의 ‘기승전’을 이곳에 풀려면 사흘도 모자라므로 ‘결’만 간략히 요약하겠다. 신의 계시를 받고 자신을 따르는 이들과 발리로 온 성자가 고행 끝에 찾은 안식처가 바로 아융강 일대. 치유의 식물이 자라고 성수가 샘솟는, 우붓에서 가장 기운이 좋은 이 부지는 자연스럽게 큰 권력을 가진 왕의 집이 됐다. 그 기운은 떠나는 날까지 길을 잃고 헤맬 만큼 드넓은 리조트 부지를 천천히 걷다 보면 자연스레 경험하게 된다. 빌라가 포진한 산기슭 중간, ‘홀리 워터(Holy Water)’를 이름으로 내건 수영장의 물은 우붓 사람들이 정화 의식에 사용하는 진짜 약수다. 수영장 안쪽 깊숙이 자리한 사원, 365일 향이 피어오르는 제단 위 차낭사리, “생리 중인 여성은 출입을 금합니다”라고 쓰인 표지판이 이곳이 진짜임을 입증한다.

로얄 피타 마하가 보여 주는 우붓다움의 백미는 이곳에서 일하는 이들의 환대에 있다. 제너럴 매니저부터 텃밭 농부까지, 모든 이가 내게 베푼 꾸밈없는 친절이 인상 깊어 바쁜 데와를 붙잡

1 우붓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조각 예술, 신화, 신, 역사, 풍습 등의 이야기가 담긴 작품이다.
2 과거 왕가의 저택이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리조트의 한 공간. 3 매일 하루 세 번 신에게 바치는 차낭사리. 코코넛잎으로 엮은 바구니에 꽃과 제물, 향을 담는다.
4 몸과 마음을 정화해 주는 ‘홀리 워터’ 수영장.



고 이유를 물었다. “이곳 직원들에게 여긴 그저 일하고 돈만 받는 직장이 아니에요. 왕이 선물한 삶의 터전이죠. 그래서 집에 온 손님처럼 진심을 다하는 겁니다. 또 우붓 사람들은 타인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면 그 에너지가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믿어요. 내가 오늘 만난 이를 축복하면 신이나를 축복한다는 것도. 그런 진심이 당신에게 닿았나 봐요.” 래프팅 보트를 실어나르는 아용강의 넘치는 기세, 우림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실린 농도 짙은 흙·풀·꽃 냄새에 취하게 되는 왕의 정자에 앉아 그의 말을 곱씹어 본다. 지난 10여년 동안 다섯 번 넘게 온 발리에서 이 섬에 사는 사람들과 이토록 자주, 깊게 통한 적이 있었나? 내게 쉽을 느끼게 해 준 건 요가도, 스파도 아닌 사람이었다. 우붓에서 태어나 우붓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 매일 하루 세 번, 이 세계와 타인의 평화를 빌며 기도하는 일이 곧 삶인 사람들 말이다.

영혼을 씻는 시간

“내면의 평안을 찾고 싶을 때 많은 사람이 우붓을 떠올립니다.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우붓에 대체 무엇이 있길래? 왜, 언제부터 우붓이 치유와 정화의 땅이 됐을까?” 왕궁에서 만난 남자에게 대뜸 이런 질문을 던졌다. 마지막 우붓 왕, 아궁수카와티의 아들 푸트라수카와티가 내 눈앞

1 푸라티르타 엠폴에서 정화 의식을 치르는 사람들. 2 로알 피타마하 리조트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붉은 꽃, 히비스커스. 3, 4 요가와 스파 모두 자연 속에서 이루어진다. 5 방에 걸린 그림, 정원의 사원 등 곳곳에 신이 깃들어 있다.



1 우붓 사람들은 매일 아침 차낭사리 공양으로 신에게 감사 인사를 건넨다. 2 사원의 가장 안쪽에 자리한 성수의 원천. 3 왕궁의 문 뒤에 왕이 실제로 거주하는 집이었다.

에 있다는 사실, 기념사진이나 찍는 유적인 줄 알았던 우붓 왕궁이 진짜 왕이 사는 집이며, 내가 그 집 응접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다는 사실에 떨리는 마음을 꼭꼭 숨긴 채. 통역한 말을 들은 푸트라 수카와티의 맑고 깊은 눈이 반짝 빛난다. “글쎄요, 그 ‘무엇을 어떤 단어로 묘사하긴 힘들 것 같아요. 나 역시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말을 찾으려고 했죠. 만질 수도, 볼 수도 없고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도 없지만 느낄 순 있어요. 육체의 눈이 아니라 영혼의 눈으로 포착되는 오라, 주파수 같은 것 말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일정 기간 원하는 것에 깊이 집중한다면 그걸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들이 뿜어내는 기운이 바로 지금의 우붓을 만든 것 아닐까요?”

이해하려고 마음먹으면 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다고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이에게 설명하려고 하면 횡설수설할 게 분명한 알쏭달쏭한 답의 진의를 푸라 티르타 엠풀(Pura Tirta Empul)에서 찾았다. 홀리 워터 템플(Holy Water Temple)이라고도 불리는 이 사원은 성수를 근간으로 하는 발리식 힌두교, 아가마 티르타(Agama Tirta)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성지다. 매표소를 지나 사원 안으로 들어서면 질푸른 녹색 사롱 위에 붉은 띠를 둘러매는 예식용 옷(이라고 하기에 보자기에 가까운)을 입고 제단에 차낭사리를 바치는 여행객 무리가 시선을 끈다. 생전 기도란 것은 단 한 번도 해 본 적 없을 것 같은, 온몸을 타투와 피어싱으로 치장한 이, 인스타그램을 위해 젊음과 재산과 시간을 다 바칠 것 같은 이들도 가부좌를 틀고 제법 진지한 얼굴로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그 장면을 지나 중앙에 자리한 안뜰로 가면 성수가 분수처럼 솟구치는 풀, 자바 텐가(Jaba Tenga)가 나타난다. 그곳은 더 기묘했는데, 녹색 사롱을 입은 수백 명의 외국인이 물줄기가 팔팔 쏟아져 나오는 분수 앞에서 물을 받아 마신 후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는 모습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호기심과 충격으로 뒤엉킨 내 얼굴을 본 가이드가 건넨 설명은 다음과 같다. “푸라 티르타 엠풀에서 행하는 이 의식은 멜루캣(Melukat)이라고 합니다. 몸과 마음, 영혼의 불순물을 깨끗이 씻어 내는 예배죠. 예배자가 성수가 흘러나오는 분수구 앞에서 할 일은 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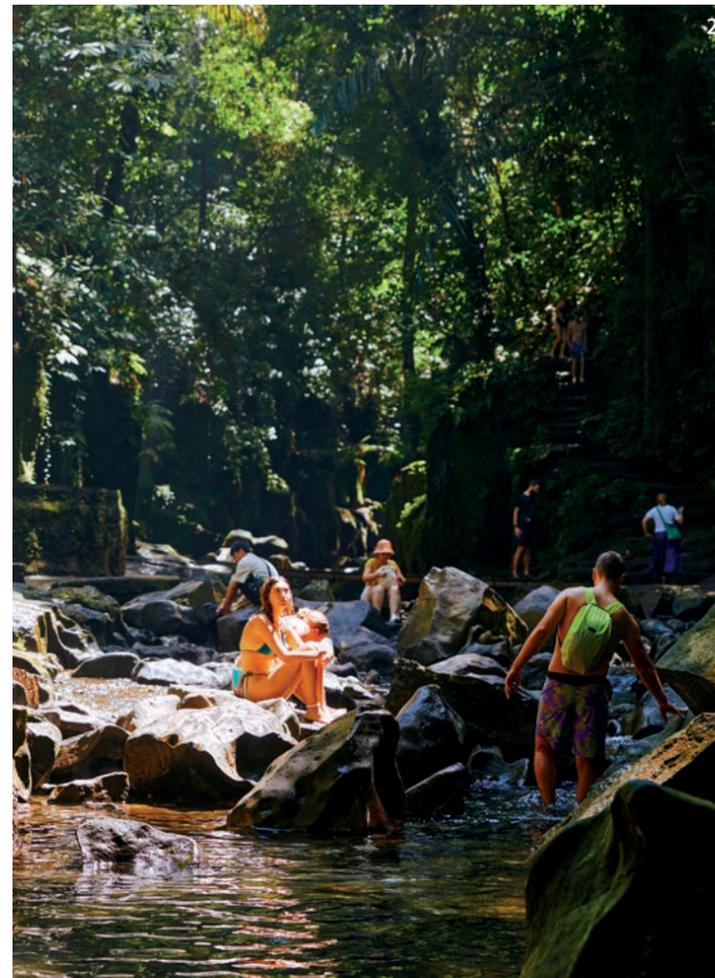
단계로 나뉘어요. 처음엔 두 손을 모아 기도하고, 다음엔 분수 물을 한 모금씩 세 번 마시고 얼굴을 세 번 씻어 냅니다. 마지막으로 그 성수 아래에서 머리를 씻어요. 분수 중에는 장례식에만 사용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안내자의 말을 잘 따라야 해요.”

막 의식을 마치고 나온 이들 중 천년 묵은 때를 벗겨 낸 듯 개운한 얼굴을 한 남녀에게 다가가기 분을 몰았다. “글쎄요, 우리는 사실 특정 신을 믿는 신자는 아니지만 뭔가 특별한 계시를 받은 느낌이에요. 우주와 연결된 듯한 기분, 그래서 앞으로 원하는 게 다 이뤄질 것 같은 믿음이 생겼어요.” 둘의 해사한 미소 뒤로 또 다른 희망찬 얼굴들이 뚝뚝 떠다녔다. 저 여행객 무리 중 사원을 수호하는 물의 신 비슈누를 믿는 힌두교도가 있긴 할까? 수도국의 수질 안전성 환경 안내장이 없어도 ‘성스럽다고 전해 내려오는’ 신화에 마음을 맡긴 채 몸 안팎을 적시는 이들을 보며 푸트라 수카와티에게 했던 질문의 답을 찾았다.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굳게 믿으려는 마음이 모여 만드는 오라, 그게 바로 우붓을 덮은 치유의 기운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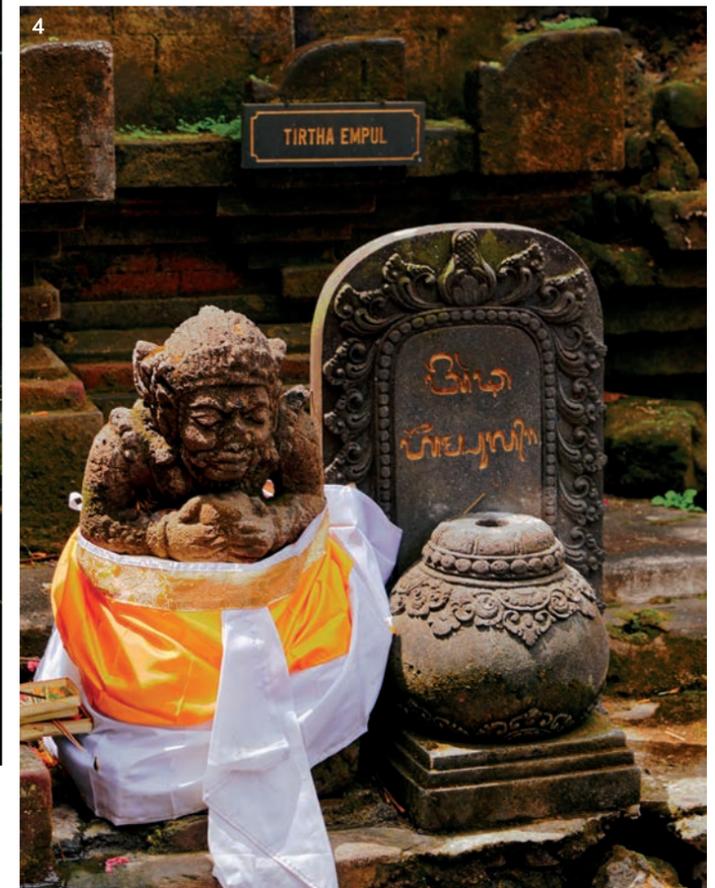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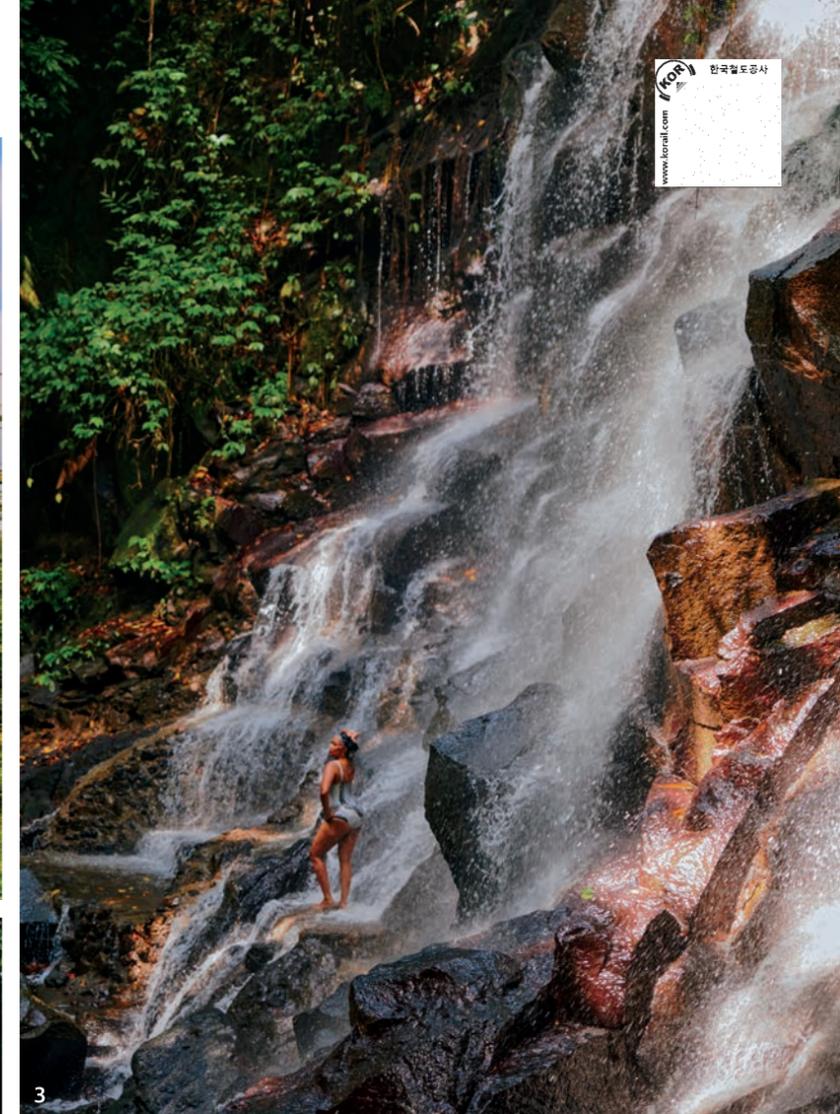
몸의 기운을 돋우는 법

쉬고 비우며 원기를 채운 덕에 마침내 바깥으로 나가 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복적이든 사내 말고 조용하게 걸을 만한 곳은 없을까요?” 리조트 직원의 입에서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나온 이름은 참푸한 리지 워크(Campuhan Ridge Walk). 약 2킬로미터 길이의 이 산책로는 우붓 사람들이 가볍게 운동하고 싶을 때 즐겨 찾는 곳이다. 영문 가이드북에서는 트레일로 소개되었지만 대부분은 평지에 포장도로라 등산화, 스틱, 드라이핏 티셔츠 같은 건 필요 없다. 모자, 선글라스, 물, 모기 기피제(발리 어디에서나 필요한 것들 말이다)만 챙겨 들고 길을 나섰다. 햇볕이 이마와 등을 따갑게 쬐어 대는 들판의 골든 스팟(golden spot)을 지나면 풀과 나무가 우거진 숲이 나타난다. 더 걸을 수 있는 길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정을 끝내는 곳에서 걸음을 멈췄다. 에어컨 바람과 얼음물, 차가운 수건이 기다리는 차로 서둘러 돌아가려는데 산책길을 안내한 데와가 옷깃을 잡는다. 그의 뒤를 따라 다리 아래로 내려가니 싯누런 흙탕물이 넘실대는 계곡이 나타난다. “여긴 우붓에서 가장 신령한 기운이 깃든 장소예요. 오른쪽 강 위스 텐젠(Wos Tengen)과 왼쪽 강 위스 키와(Wos Kiwa)가 합류해 하나의 강물을 이루는 곳이거든요. 음과 양이 만나는 지점이죠. 우붓 사람들은 간절하게 원하는 것 혹은 치유받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이곳, 구농 레바(Gunung Lebah)에 와서 치성을 드려요.”

역사와 종교에 해박한 나의 우붓 구루, 데와와 함께한 덕분에 여정 내내 그 어디에도 제대로 기록되지 않은, 오직 우붓 사람들만 구전으로 간직한 이야기를 들었다. 물론 그런 것을 몰라도 우붓 곳곳을 누비다 보면 숨통이 트이고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 이곳 사람들 표현을 빌리면 좋은 기운을 느낄 수 있다. 거대한 바위가 첩첩이 쌓여 만들어진 절벽을 이불처럼 뒤덮으며 강하하는 물줄기가 눈을 사로잡는 칸토 람포 폭포(Kanto Lampo Falls)에서도 그랬다. 별다른 정보 없이 지명만 듣고 찾아간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을 건지려는 이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풍경에 눈을 질끈 감지만, 그 장면을 뒤로하고 아래쪽으로 난 물길을 따라 건다 보면 비옥한 화산토, 차고 넘치는 물과 햇빛, 깨끗한 산소를 마음껏 취하고 자란 열대식물, 고요한 절벽, 잔잔하게 흐르는 계곡, 그리고 마른 바위에 걸터앉아 따뜻한 별을 쬐는 사람들이 차례로 시선을 끈다. 그들과 햇빛이 적당하게 데운 바위에 앉아 그 좋은 기운, 더없이 평화로운 순간을 한참 동안 누렸다. 발리인들이 사랑하는 물의 여신, 자애로운 데위 다누가 내린 은총 같은 순간이었다.



1 우붓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산책로, 참푸한 리지 워크. 2 칸토 람포 폭포의 메인 폭포를 벗어나면 계곡과 우림에서 한가로운 휴식을 취할 수 있다. 3 웅장한 칸토 람포 폭포에서 드라마틱한 순간을 남기는 여행자. 4 장례식에만 물을 사용하는 분수.



댕댕아, 우리 여기서 놀까?



펫 프렌들리 공간이 단순한 동반 입장을 넘어 반려동물의 습성을 이해하고 보호자와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무대로 확장하고 있다. 반려동물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원부터 세심한 큐레이션이 돋보이는 최고급 호텔까지, 반려동물과 특별한 추억을 쌓을 사랑스러운 곳을 모았다.



© 강아지숲



춘천, 강아지숲

강원도 춘천 추곡터널 부근에 자리한 강아지숲은 약 11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부지에 조성한 국내 최대 규모의 반려 문화 복합 공간이다. '개와 인간의 아름다운 관계'를 조명하는 반려동물 전문 박물관도 운영한다. 국내 최초이자 유일의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기관인 이 박물관에서는 3개의 전시실을 통해 반려동물이 인간에게 주는 도움과 올바른 양육을 위한 책임감,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고민 등을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다. 야외에는 약 4000제곱미터의 강아지숲 동산을 비롯해 반려동물의 체중을 고려한 대·소 운동장을 따로 마련해 강아지들이 목줄을 풀고 자유롭게 뛰놀 수 있다. 아름다운 자작나무 산책로에는 반려견의 안전을 위해 전 구역에 야자수 매트를 시공했고, 천연 연못을 보존해 계절마다 다른 정취를 자아낸다. 날씨가 화창한 날에는 숲속 풀장인 네이처풀에서 신나게 놀고, 네이처 푸드 테라스에서는 반려견과 함께 식사를 하며 느긋한 시간을 보내도 좋다. 매년 봄에는 도그페스타와 세계 대회 진출권이 걸린 디스크도그, 어질리티 등 역동적인 도그 스포츠 대회도 열린다.

주소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충효로 437

© 강아지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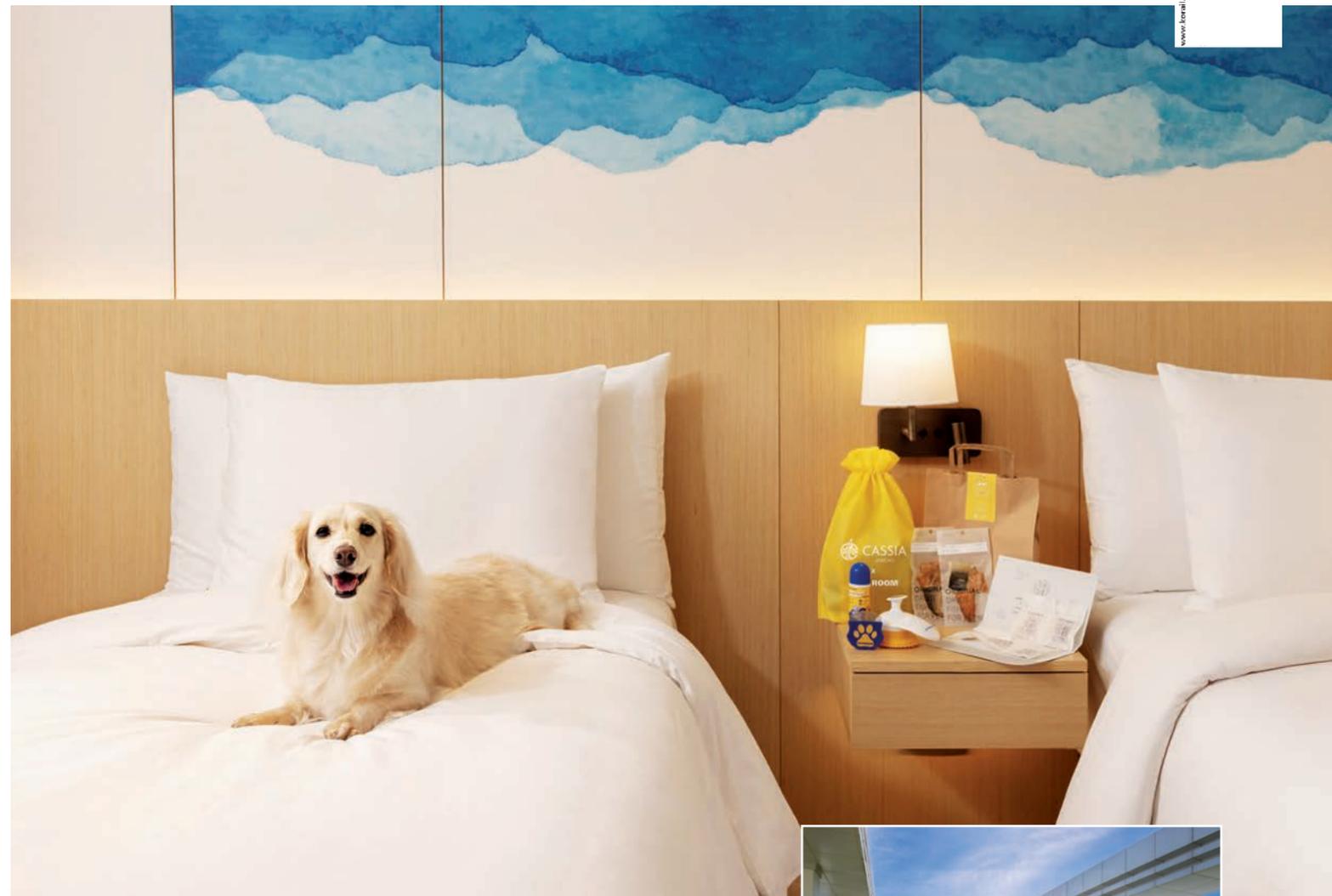


© 스타필드

하남·수원, 스타필드

스타필드는 한국에서 반려동물 동반 쇼핑 문화를 정착시킨 복합 쇼핑몰이다. 전국의 스타필드 지점에서 펫 유모차 대여 서비스, 반려동물과 함께 탑승 가능한 펫 배려 엘리베이터, 배변 위생 봉투, 반려동물 전용 실내 침터 등 편의 시설을 운영 중이다. 스타필드 하남의 야외 펫 파크는 오프리시존(off-leash zone)만 약 1200제곱미터로 전국 스타필드 중 가장 규모가 크다. 강아지 눈높이에 맞춘 분수대와 워브폴, A-프레임 같은 미니 어질리티 시설을 마련해 반려견이 마음껏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다. 스타필드 수원에는 750제곱미터에 이르는 전국 최대 규모의 물리스가 들어섰다. 물리스는 반려동물용품 판매는 물론 동물병원과 애견 미용 샵 등을 갖춘 가족형 반려동물 전문 매장이다. 반려견과 반려인의 커뮤니티 공간인 물리스 라운지와 반려견과 함께 사진 찍기 좋은 셀카 존을 비롯해 파티·욕실 등 다양한 콘셉트로 '견생샷'을 남기는 포토 부스도 마련되어 있다.

주소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750(스타필드 하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175(스타필드 수원)



인천, 웨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

송도 센트럴파크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웨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프리미엄 펫캅스를 위한 완벽한 호텔이다. '반려견과 함께하는 웰니스 & 스파 호캉스'를 테마로 객실 내에 힐링 공간과 전용 아메니티가 세심히 준비되어 있다. 반려견 전용 '스파 스테이션(Spa Station)'은 웨라톤 펫캅스의 하이라이트. 편백나무로 만든 반려견 전용 욕조와 에어 샤워, 드라이 룸은 물론, 스파 키트에는 반려견을 위한 미니 수건과 입욕제, 미스트도 갖췄다. 그에 더해 반려인이라면 한 번쯤 들어 봤을 레모나×댕모어의 버블 샴푸, 모이스처 크림, 덴탈 클리너와 이눔의 여행용 아워 어스 비건 펫 샴푸, 로렌츠의 못난이 덴탈겜, 펫트리온츠의 루트릿 덕 파티믹스와 오씨트릿 오메가3 영양제 등 프리미엄 브랜드 제품도 사용해 볼 수 있다. 동봉된 지도에는 호텔 인근에 자리한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기 좋은 공원, 반려동물 동반 가능 레스토랑과 쇼핑몰 등이 소개되어 있다. 입실 시 펫 트래블 다이어리도 선물하니 반려동물과의 추억도 기록해 보자. 최고의 환대를 받으며 반려동물과 특별한 여행을 즐기고 싶다면 이만한 곳이 없다.



© 웨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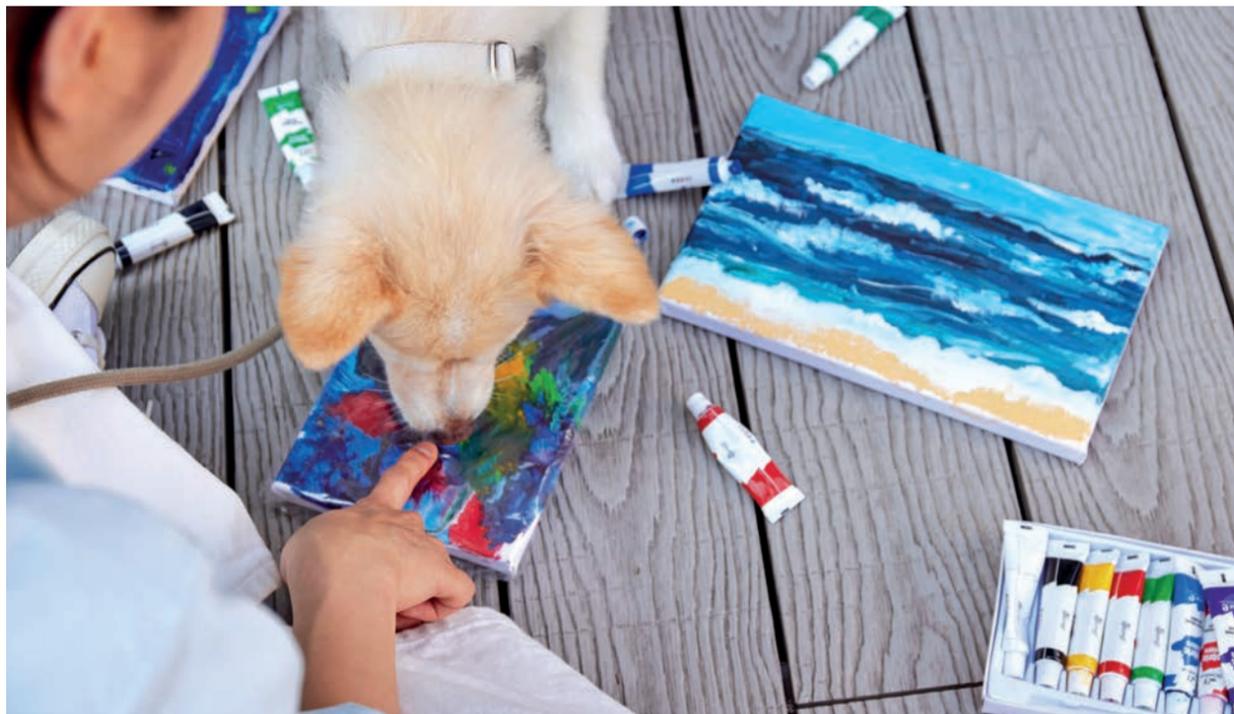
속초, 카시아 속초

프리미엄 펫캅스의 정점을 경험하고 싶다면 카시아 속초로 향하자. 동해 바다와 설악산이 모두 바라다보이는 대포항 끝자락에 자리한 카시아 속초는 반얀그룹이 국내에 처음 선보인 레지던스 호텔이다. 펫 패키지 '포펙트 갯웨이(Pawfect Getaway)'를 통해 반려동물의 완벽한 힐링 스테이를 보장한다. 객실에 들어서면 강원도 고성 of 수산물로 만든 프리미엄 펫 푸드 브랜드 동해형씨의 간식과 반려동물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페이스룸의 케어 아이템이 반려견을 맞이한다. 친환경 소재인 실리텍스 원단으로 맞춤 제작한 전용 계단과 방석, 카시아 브랜드의 감성이 고스란히 담긴 자체 제작 펫 배스로브 등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모두 감동할 요소가 객실 곳곳에서 발견된다. 반려동물의 놀이 공간도 훌륭하다. 26층 야외 스카이 파크에 '펫 프렌즈 파크'를 조성해 탁 트인 바다와 푸른 산을 배경으로 반려동물과 마음껏 어질리티를 즐길 수 있다. 반려인이 수영장이나 사우나 등 호텔 시설을 이용할 때 반려동물을 잠시 맡아 주는 펫 라운지도 있다.

주소 강원도 속초시 대포항희망길 120



© 카시아 속초



© 소노펫클럽앤리조트 비발디파크

홍천, 소노펫클럽앤리조트 비발디파크

강원도 홍천의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소노펫클럽앤리조트 비발디파크는 숙박과 레스토랑, 놀이 공간을 결합한 반려동물을 위한 프리미엄 복합 문화 공간이다. 총 157실의 객실은 반려동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설계했는데, 관절 부상을 방지하는 논슬립 플로어와 낮은 높이의 침대, 틈마루를 배치한 저상 구조에서부터 세심한 배려가 돋보인다. 반려동물의 눈이 편안하도록 간접조명으로 조도를 맞추고, 반려동물 전용 배기 시스템을 설치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한다. 5000제곱미터에 달하는 천연 잔디 플레이그라운드에는 반려동물이 목줄을 풀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오프리시 존. 구역을 반려견의 체급에 따라 분리해 안전에도 신경 썼다. 레스토랑 겸 카페 '싱킹 도그(Thinking Dog)'에서는 전문 셰프가 개발한 닭 가슴살이나 연어 레이어드 같은 펫 메뉴와 반려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페어링 메뉴를 선보인다. 24시간 운영하는 셀프 워시 시설 '소노펫 포미와 위탁 관리 서비스 '소노펫 보당'을 운영하는 점도 매력적이다. 펫 트레이너와 함께하는 아침 산책이나 매주 토요일에 열리는 명랑운동회 등 반려견과 깊이 교감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놓치지 아깝다.

당진, 도그팰리스 애견글램핑

도시의 아파트와 좁은 산책로에서 마음껏 뛰놀지 못한 대형견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곳, 충남 당진의 도그팰리스 애견글램핑이다. 반려견 여행 시장의 발전을 막는 규제와 차별을 보기 좋게 깨뜨린 글램핑장으로 유명하다. '모든 반려견은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는 철학 아래 '3無(3-free) 정책'을 시행한 것. 리트리버부터 맹견 로트와일러까지 견종에 제한을 두지 않고, 무게나 마리 수에 따른 제약도 없었다. 특히 한 마리든 열 마리든, 혹은 50킬로그램이 넘는 초대형견이라도 추가 비용을 받지 않는 파격적인 정책 덕분에 다견 가정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곳이 사랑받는 이유는 대형견의 행동 특성을 철저히 고려한 건축에서도 드러난다. 모든 독채 객실에 180센티미터 높이의 튼튼한 나무 울타리를 설치해, 점프력이 좋은 대형견도 외부 시선이나 사고 걱정 없이 안전하게 머문다. 객실마다 배정된 넓은 개별 운동장은 공용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반려동물과 반려인만의 완벽한 프라이버시를 보장한다.

주소 충남 당진시 고대면 당주막길 114



© 맘마

서울, 맘마

서울 송파구 중대로의 한적한 골목에 들어서면 고소한 고기 냄새가 식욕을 자극한다. 펫 푸드 비스트로, 맘마가 반려견의 식탁을 차리고 있는 것. '내 아이에게 먹이지 못할 것은 만들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사람이 먹는 식재료와 똑같은 등급의 '휴먼 그레이드' 재료만 쓰고 있다. 수의사의 엄격한 자문을 거쳐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을 마련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닭 가슴살과 신선한 채소를 다져 만든 테린부터 연어와 소고기를 넣은 화려한 비주얼의 영양식까지,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긴 메뉴들에 반려인의 지갑이 저절로 열린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아기자기한 모양의 수제 케이크와 쿠키. 반려견의 기념일이 가까워 온다면 그냥 지나치기 어렵다. 은은한 조명과 감각적인 가구로 꾸민 인테리어도 매력적이다.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반려견과 함께 사진을 남기기에 좋다. 반려견 전용 시기와 방식이 좌석마다 준비되어 있어 여유롭고 편안한 식사가 가능하다.

주소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312



© 도그팰리스 애견글램핑



포천, 핫도그342 애견글램핑카라반

‘핫(hot)한 강아지(dog)’에 주소의 지번을 넣어 이름 지은 핫도그342 애견글램핑카라반은 프리미엄 애견 전용 글램핑 & 캐러밴 단지다. 이곳의 가장 큰 장점은 철저한 개별화와 안전. 모든 글램핑동과 캐러밴 앞에 높은 개별 펜스를 설치해 다른 강아지나 외부 시선에 구애받지 않고 프라이빗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운동장 역시 대형견과 중·소형견 구역을 엄격히 분리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했다. 여름에는 깨끗한 지하수로 야외 수영장을 채워 반려동물과 함께 시원한 한때를 보내기 좋다. 일부 객실에는 개별 수영장도 갖추어 프라이빗한 물놀이 가능하다. 대형견과 소형견 전용 셀프 목욕실과 함께 드라이 룸도 마련해 물놀이 후 쾌적하게 털을 말릴 수 있다. 대형견 전용 폴딩도어 캐러밴과 높은 층고의 오페라 글램핑 객실을 운영하며, 개별 테라스도 있어 바비큐 파티를 열고 불멍을 즐기기도 좋다.

주소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수임로 342

안성, 안성맞춤랜드 같이파크

지난해 6월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에 문을 연 안성맞춤랜드 같이파크는 시에서 운영하는 전국 최초의 반려견 전용 공공시설이다.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경계 없이 어울릴 수 있는 이 놀이터는 넓은 부지에 쾌적한 시설을 갖추어 사계절 내내 방문객이 끊이지 않는다. 중·소형견과 대형견 오프리시 존을 따로 마련해 모든 반려동물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다. 놀이기구, 음수대, 그늘막, 벤치 등 반려동물과 반려인을 위한 쉼터도 조성해 경기관광공사가 추천하는 ‘반려견과 떠나기 좋은 여행지’로 꼽혔다.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하며 입장료와 주차비 모두 무료라 반려인들에게 인기가 높다.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마음껏 뛰노는 강아지를 보며 보호자도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주변에 수변 공원과 안성맞춤천문과학관, 박두진문학관 등이 있어 한나절 나들이를 즐기기에 제격이다.

주소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남사당로 198



made in

대구를 만드는 공간과 사람, 일곱 가지 이야기

DAEGU

no.15



1



3



4

1 방문객을 맞는 로비 공간, 대화장살롱. 2 이만수 대표는 매주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변이 아카이빙된다. 3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열리는 홀스위트홈. 4 대화장의 모든 공간에서 식사도 가능하다. 토마토 콜드 파스타와 해물 파에아가 대표 메뉴. 토마토 콜드 파스타는 부라타 치즈를 두부로 바꾸어 비건도 즐길 수 있다.

대화장

북적한 공간을 잇는 안전지대

북성로 골목 한복판, 낡은 갈색 타일 건물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1920년대에 지은 대화장여관을 리모델링한 복합 문화 공간, 대화장이다. 로컬, 청년, 소수자의 이야기를 영상, 축제, 전시 등 다양한 콘텐츠로 풀어 온 레인메이커 협동조합 이만수 대표가 2019년에 운명처럼 대화장여관을 만났고, 대화를 통해 사회적 이슈를 풀어 가겠다는 취지로 이 공간을 만들었다. 대화장은 서로 다른 분위기와 목적을 지닌 공간이 미로처럼 연결된다. 가장 먼저 로비 역할을 하는 '대화장살롱'에 들어서면 '최후의 만찬'을 모티브로 한 스테인드글라스 창이 빛을 드리운다. 한쪽 벽면에는 매주 이 대표가 준비한 새로운 질문이 걸린다. 대화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지, 어떤 하늘을 좋아하는지, 기억에 남는 축제가 있는지 등 개인의 취향과 경험, 철학적 질문까지 총망라한다. 질문 아래에는 방문객들이 답변을 적은 엽서가 빼곡하다. 대화장살롱을 나서 왼쪽으로 향하면 여럿이 모여 이야기 나누기 좋은 '홀스위트홈'이 나온다. 이곳에서는 브랜드 팝업 스토어, 지역 아티스트들의 공연은 물론 공동의 관심사를 가진 이들이 모여 소통하는 '토크 아워', 대화를 통해 서로를 알아 가는 '만남의 장' 등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열린다. 바로 옆 건물 1층에는 북성로를 배경으로 레트로 콘셉트의 사진 촬영이 가능한 '대화장사진관'이, 2층에는 싱그러운 식물과 우드 톤 가구가 어우러진 '대화장에식당'이 자리한다.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 대화 카드를 활용해보자. 카드에 적힌 질문을 주고받는 사이, 상대방과 한뼘 더 가까워진다.

주소 대구시 중구 북성로 104-15
문의 053-291-2569



2

interview

이만수 대화장 대표

대화를 테마로 한 공간을 만든 이유가 궁금해요. 살면서 서로를 너무 쉽게 이해한다고 느낄 때가 많았어요. 다양한 사람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면 이해를 이해로, 편견을 공감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죠. 지역 문제를 푸는 열쇠도 대화라고 믿었고, 이 공간만큼은 모든 활동이 대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 같았습니다. **대화 카드는 어떻게 탄생했나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 장치가 필요했어요. 평소 직원들과 고민을 나누며 주고받던 질문들을 구체화해 대화 카드로 발전시켰죠. 자아·과거·현재·미래·가치·감정·관계·취향 등 여덟 개 카테고리로 구성된 기본 카드에 더해, 양자택일로 생각을 나누는 '밸런스 카드', 타인의 입장을 상상해 보는 '만남에 카드' 등 다양한 형식으로 확장했습니다. **대화장이 지향하는 커뮤니티는 어떤 모습인가요?** 대화장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플랫폼입니다. 공간이 필요한 이들에게 합리적인 조건으로 대관하고 있죠. 로컬 디자이너나 스몰 브랜드 대표 등 관심사가 비슷한 이들의 모임은 물론, 펫로스 증후군이나 실패를 경험한 사람 등 상실을 겪은 이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받는 자리도 마련하고 싶습니다.



하이마트 음악감상실 & 카페향촌

1980년대엔 스무 곳이 넘던 대구의 음악감상실이 1990년대부터 오디오가 보급되며 점점 자취를 감췄다. 음악감상실에 독일어로 '고향'이란 뜻의 하이마트(Heimat)를 더해 작명한 하이마트 음악감상실은 이름처럼 향수를 자극하는 인테리어로 3대째 명맥을 이어 가는 중이다. 스테인드글라스로 장식한 무대 양쪽에 1926년에 출시한 영국산 하이엔드 오디오와 탄노이 스피커가, 그 앞에는 음악 감상용 의자 50여 개가 나란히 자리한다. 입장료 8000원을 내면 음료 한 잔을 마시며 두 시간 동안 마음껏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입장권에 신청곡을 써서 주크박스로 건너면 그 곡을 틀어 준다. 향촌동의 수제화 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또 다른 레트로 공간인 카페향촌을 만난다. 2층 창 너머로 경상감영공원의 장독대와 뱃나무가 내려다보여 계절의 변화를 느끼기 좋다. 시그너처 메뉴는 옥수수 소금빵. 이 메뉴에는 옥수수 쿠포트,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듬뿍 올린 찹쌀 모나카와 갓 구운 소금빵을 함께 낸다. 카페향촌에서는 근대 의상을 대여해 주기도 한다. 특별한 점은 백화점의 류 매장에서 근무한 전력이 있는 손보화 대표가 의상과 어울리는 모자와 액세서리를 추천해 준다는 것. 멋진 의상을 입고 향촌동 일대를 거닐며 인증 사진을 남겨보자.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대구 레트로 여행이 될 것이다.

주소 대구시 중구 동성로6길 45(하이마트 음악감상실), 서성로14길 74(카페향촌)
문의 053-425-3943(하이마트 음악감상실), 0507-1327-5358(카페향촌)

1



1 LP로 신청곡을 틀어 주는 하이마트 음악감상실 주크박스. 2 카페향촌에서 대여한 근대 의상을 입고 기념사진을 남긴다. 3 카페향촌 2층 창 너머로 경상감영공원이 내려다보여 계절의 변화를 느끼기 좋다. 4 음악에 집중하도록 편안한 의자를 마련한 하이마트 음악감상실. 5 카페향촌의 시그너처 메뉴인 일본 우지 말차 라테와 옥수수 소금빵.

2



3



4



5



1

1 물비늘 이보람 대표의 취향이 묻어나는 공간.
 2 노실리콜렉트 강민우 대표가 수집한 1988 서울 올림픽 포스터. 3 물비늘에선 문진, 키링, 머그잔 등 이 대표가 손수 만든 소품을 판매한다.
 4 오래된 나무 천장 아래 가지각색의 매력을 지닌 빈티지·아트 포스터가 모여 이색적인 분위기를 이룬다.

2



3



4



숨겨진 취향을 찾아서 물비늘 & 노실리콜렉트

가파른 계단을 올라 2층 철문을 열고 들어서면 뜻밖의 장면이 펼쳐진다. 이름처럼 몽환적인 분위기의 소품 숍, 물비늘이다. 서른 살이 되기 전에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던 이보람 대표가 손수 꾸민 공간으로, 힘들 때마다 강물에서 위로받았던 기억을 담아 이름 지었다. 물가에 핀 꽃을 상상해 그린 그림이 물비늘의 로고. 방문객이 이곳에서 위안을 얻길 바라는 마음으로 갤러리처럼 소품을 전시하고, 벽에는 이 대표가 좋아하는 시와 사진을 붙여 두었다. 만들고 싶은 소품이 많은 그는 손수 제작한 키링과 티셔츠, 머그잔, 문진 등을 판매한다. 물비늘을 열 당시만 해도 주변 사람들이 마이너 취향의 물건이 팔리겠냐며 걱정했지만, 이제는 누군가가 그 취향을 찾아 발걸음하는 곳이 됐다. 3층에서는 싱그러운 기운을 뿜어내는 식물도 선보인다. 물비늘에서 도보 2분 거리에는 또 다른 취향의 아지트, 노실리콜렉트가 자리한다. 116년 된 건물 2층에 동지를 튼 빈티지·아트 포스터 숍으로, 나무 천장에 반한 강민우 대표가 리모델링을 최소화해 매장을 꾸몄다. 영화 <펄프 픽션> 포스터, 나가이 히로시의 일러스트 포스터, 애니메이션 <통과 제리>의 오리지널 포스터 등 강 대표가 전 세계에서 수집한 아트 포스터와 세심히 큐레이션한 빈티지 포스터를 만날 수 있다. 정식 라이선스를 통해 발행한 오리지널 포스터를 소장하고 싶다면 노실리콜렉트에 들러 보자. 구경만 해도 눈이 즐겁다.

주소 대구시 중구 중앙대로 455-2(물비늘), 북성로 98-1(노실리콜렉트)
 문의 0507-1349-8647(물비늘), 0507-1473-9017(노실리콜렉트)



1



2

1 위스키 라인업을 빼곡히 채운 화려한 진열장이 인상적인 온점. 2 온점의 시그너처 칵테일 '사계'. 사계절의 매력을 표현한 칵테일이 보물 상자 안에 담긴다. 3 향수를 자극하는 빈티지 소품을 모아 놓은 노르웨이의 숲. 4 문학 칵테일 바, 노르웨이의 숲에선 소설과 영화에서 영감을 얻은 칵테일을 선보인다. 5 노르웨이의 숲에서는 비치된 책을 읽으며 술을 즐겨도 좋다.



3



4



5

영감을 끌어내고 위로를 전하러

서민영의 술 & 이젠

북성로 끝자락, 오래된 일본식 가옥 2층에 문학 칵테일 바, 노르웨이의 숲이 자리한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동명 소설에서 이름을 따온 이곳은 문학과 영화에서 영감을 얻은 칵테일을 선보인다. '인간 실격' '데미안' '존재의 이유' '일 포스티노' '탑건' 등 익숙한 소설과 영화 제목의 메뉴가 줄을 잇는다. 칵테일을 주문하면 책 속 구절이나 영화 대사가 적힌 카드를 건네준다. 공간 곳곳에는 주인장이 수년간 수집한 슬램덩크 아이템과 빈티지 소품이 눈길을 끈다. 빛바랜 달력과 전화기, 선풍기 등이 놓인 창가 풍경은 옛날 방송국의 소품실을 떠올리게 한다. 인디 밴드 공연이 열리는 날이면 작은 무대로 변해 흥겨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대구에서 칵테일 바를 이야기할 때 온점도 빼놓을 수 없다. 삼덕동 골목 끝에서 조용히 불을 밝힌 온점은 오준호 대표가 안동대학교 대학로와 안동 시내에 이어 대구에 세 번째로 선보인 바다. 시그너처 칵테일은 '사계'. 계절마다 재료와 플레이팅을 달리해 매번 새로운 칵테일을 선보이는데, 보물 상자에 담아내는 것이 특색이다. 상자를 여는 순간 꽃향기를 머금은 연기가 몽글몽글 피어오르고, 꽃으로 장식한 핑크빛 봄의 사계가 모습을 드러낸다. 묵직한 크림과 딸기 라테를 닮은 달콤한 맛이 따뜻한 봄을 떠올리게 한다. 싱어송라이터 김광석에게서 영감을 받은 '멜로디도 여행자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 텐테이블 모양의 코스터 위에 칵테일을 올리고, 신청곡 적는 종이를 함께 건넨다. 선물처럼 받아 든 칵테일 한 잔이 마음을 차분히 다독인다.

주소 대구시 중구 북성로 59(노르웨이의 숲), 국제보상로150길 92(온점)
문의 053-252-1116(노르웨이의 숲), 0507-1495-0338(온점)



1



2

1 1919년 3월 8일 대구 학생들이 일본 순사의 눈을 피해 독립 만세를 외치려 올랐던 길. 2 청라언덕으로 향하는 길목에 대구 도심을 그린 벽화와 우뚝 솟은 계산성당의 쌍탑이 묘하게 겹쳐진다. 3 붉은 벽돌 건물에 기와지붕을 얹어 한식과 양식을 절충한 스위트 주택. 4 3·1만세 운동을 그린 벽화. 태극기를 높이 치켜든 이들의 함성과 열기가 벽화를 뚫고 나올 듯하다. 5 동산의료원 개원 100주년을 기념해 세운 종탑. 1996년 담장 허물기 운동이 한창일 때 철거한 본원의 유서 깊은 담장을 이곳에 옮기고, 초창기에 개척한 수많은 교회의 종 중 하나를 달았다.

근대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 걷다

청라언덕

푸를 청(靑), 담쟁이 라(蘿). 푸른 담쟁이넝쿨로 뒤덮인 언덕이란 뜻의 청라언덕은 20세기 초 대구에 온 미국인 선교사들이 정착한 곳이다. 붉은 벽돌 건물과 낮은 돌담, 오래된 가로수가 어우러진 풍경은 고요하고 단정한 분위기를 자아내 동네 주민은 물론 여행객에게도 사랑받고 있다. 청라언덕에 가려면 계산성당 맞은편 청라언덕관광센터 뒤편으로 이어지는 90계단을 올라야 한다. 1919년 3월 8일 대구 학생들이 일본 순사의 눈을 피해 독립 만세를 외치려 올랐던 길이다. 계단을 따라 언덕 초입까지 늘어선 태극기는 그날의 함성을 대신하듯 바람에 힘차게 펄럭이며 물결을 이룬다. 언덕을 오르면 오밀조밀 모인 붉은 벽돌 집 세 채가 눈길을 끈다. 챔니스 주택, 블러어 주택, 스위트 주택이다. 1910년경에 지은 건물로 외관과 내부 구조가 온전히 남아 있어 당시의 서양 건축양식을 알려 주는 귀중한 사료로 평가된다. 선교사의 이름을 딴 주택들은 비슷한 듯 하면서도 저마다 개성이 뚜렷하다. 주변에는 대구·경북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제중원과 선교사가 심은 서양 사과 나무 자손목, 동산의료원 개원 100주년 기념 종탑 등도 자리한다. 마지막으로 발길이 닿는 곳은 은혜정원. 청라언덕에 머물던 선교사와 그 가족 14명이 잠들어 있다. 18년간 교육 선교에 힘쓴 스위트와 지역민에게 농사와 축사를 가르친 챔니스 부부의 어린 딸 바바라도 이곳에 묻혔다. 사시철 정원에 머무는 따스한 햇볕이 그들의 헌신을 조용히 기리는 듯하다.

주소 대구시 중구 달구벌대로 2029
문의 053-421-3339(청라언덕관광센터)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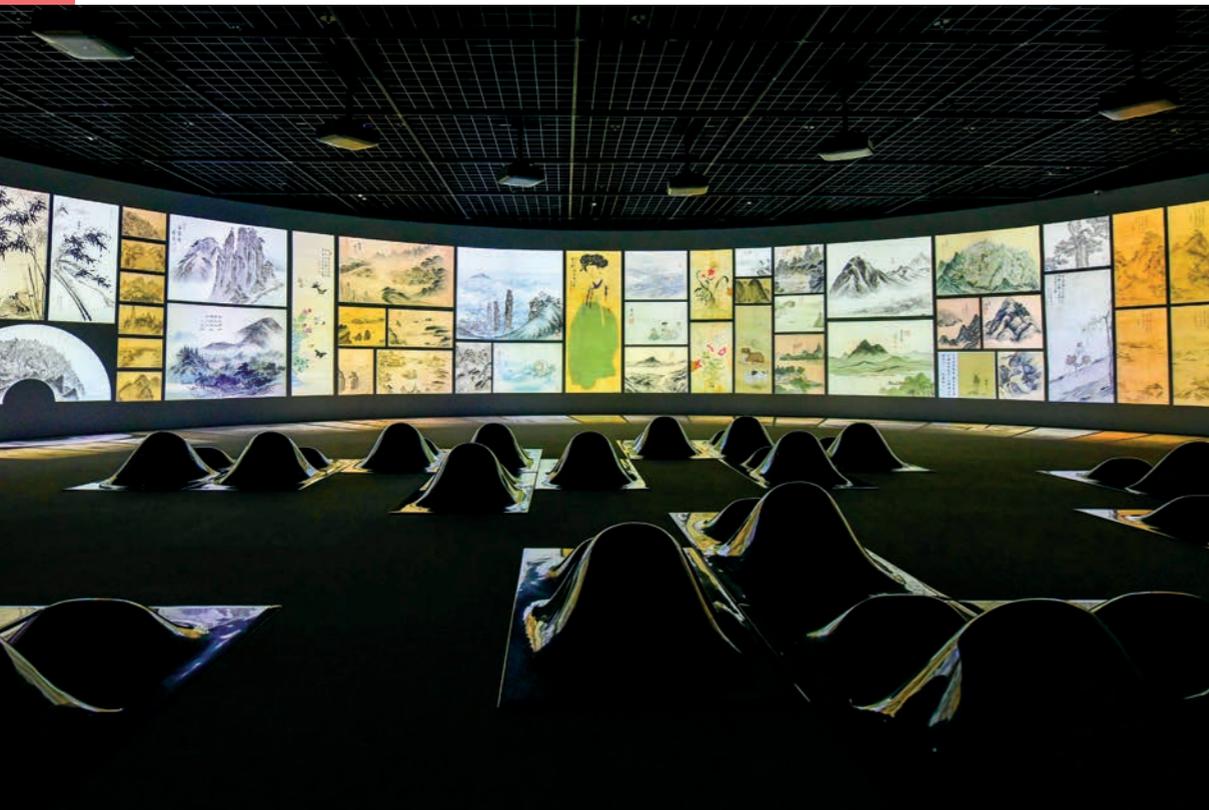


간송의 문화보국 정신이 맺어낸 결실

대구간송미술관

일평생을 바쳐 한국의 문화유산을 지켜 낸 간송 전형필의 문화보국 정신이 대구에 뿌리내렸다. 서울 성북동 간송미술관에 이어 2024년 9월에 문을 연 대구간송미술관은 대덕산 자락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들어섰다. 경사진 지형을 살린 덕분에 2층에서 시작해 지하로 이어지는 동선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다.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가장 먼저 '간송의 방'이 관람객을 맞는다. 전형필 선생이 빛은 도자, 손수 쓴 골동품 구입 기록 등을 통해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그의 노력과 예술·학술적 역량을 엿볼 수 있다. 간송의 방 맞은편 전시실 1은 간송의 소장품을 상설 전시하는 곳. 지난 1월부터 서화와 도자 30건 39점을 새롭게 선보인다. 고려청자와 분청사기, 백자 하나하나를 찬찬히 살피니 각기 다른 미감이 또렷하게 대비된다. 호랑이와 봉황, 매 등 상서로운 동물을 그린 세화를 통해 새해의 평안을 기원했던 선조들의 바람을 헤아린다. 신윤복, 김홍도, 이인문 등 조선 후기 대가들의 풍속화에서는 당시 선비들의 놀이 문화와 생활상이 생생하게 드러난다. 바로 옆 전시실 2는 작품 한 점을 독대하는 공간으로, 5월까지 오원 장승업의 고사인물화 '삼인문년'을 만날 수 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 신선의 표정과 옷자락, 산세와 기암괴석이 섬세하게 묘사되어 금방이라도 살아 움직일 것만 같다. 지하로 이어지는 전시실 5에서는 사군자를 비롯한 다양한 고화가 미디어 아트로 되살아난다. 그림 속 파도가 일렁이고 꽃잎이 흩날리며, 도포를 입은 선비가 화면을 가로지른다. 거대한 반원형 스크린이 간송의 소장품으로 채워지는 순간, 우리의 것을 지켜 내고자 했던 한 사람의 숭고한 집념이 마음속 깊이 스며든다.

주소 대구시 수성구 미술관로 70
문의 053-793-2022



1



2



3
© 간송미술문화재단



4

1 하지훈 디자이너가 제작한 '자리(Jari)'에 기대어 앉아 미디어 아트로 되살아난 간송의 소장품을 감상한다. 2 각기 다른 아름다움을 품은 고려청자와 분청사기, 백자 등을 한자리에서 만난다. 3 해원 신윤복의 <해원전신첩>에 수록된 '주사거배'. 4 오원 장승업의 고사인물화 '삼인문년'을 만나러 가는 길. 작품 속으로 천천히 스며든다. 5 건물 진입로에 간송의 상징과도 같은 소나무 기둥을 세우고, 건물 내외부에 박석 마당과 중정, 수변 공간을 배치해 자연에 녹아드는 미술관을 구현했다.

5



© 대구간송미술관

연대와 실험의 플랫폼

아란

세월의 흐름이 느껴지는 크림색 벽돌과 외벽 콘크리트를 드러낸 건물이 궁금증을 자아낸다. 간판 없는 이 건물은 무얼 하는 곳일까. 호기심을 품고 안으로 들어서면 "유락은 카페가 아닙니다"라는 문구가 공간의 성격을 단번에 드러낸다. 이창수 유락 대표는 이곳을 '공공 프로젝트 플랫폼'이라 정의한다. 그를 연고도 없는 대구로 이끈 건, 어린 시절 자신을 키워 준 할아버지의 유산, 바로 이 건물이었다. 유락은 할아버지의 이름, 이 대표는 유락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다짐으로 청년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카페 수익금으로 청년 작가의 시 한 편을 사들이는 '시(詩)샵니다', 로컬 아티스트의 작품을 오브제로 재구성해 판매 수익금을 기부하는 '프로젝트 PIECE', 누구나 6달러만 내면 작품을 출품할 수 있는 비주류 전시의 장 <대구 양대방당전>까지. 유락을 채운 포스터들은 이곳이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연대와 실험의 장임을 말해 준다. 어디에 앉아도 영감이 떠오를 듯한 유락에는 자연스럽게 청년 예술가들이 모여든다. 1~2층에는 카세트테이프와 TV 브라운관, 이 대표가 합점으로 만든 테이블, 아르떼미데 조명과 부처상 등이 뒤섞여 있는데, 이질적인 듯하지만 의외로 잘 어울리지며 공간에 독특한 결을 더한다. 지난해 12월 확장한 3층에는 독립 서점이자 출판사인 '야행성동물'이 들어서며 또 다른 느낌의 빈티지 오피스 무드를 완성했다. 유락의 역할은 분명하다. 평생 스틸 일 없던 이들을 만나게 하고, 서로 다른 장르의 이야기가 오가다 끝내 마음 맞는 이들이 협업하도록 판을 마련하는 것. 앞으로 또 어떤 아이디어로 대구를 흔들어 놓을까. 유락의 다음 프로젝트가 기다려진다.

주소 대구시 중구 태평로51길 8-19
문의 0507-1308-4066



1



2



3



4

1 갓 로스팅한 신선한 커피와 푸짐한 바나나 푸딩은 유락의 인기 메뉴. 2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벽면은 유락의 정체성을 보여 주는 프로젝트 포스터로 꾸몄다. 3 빈티지 오피스 무드를 자아내는 독립 서점, 야행성동물. 4 넓은 책상과 탄탄한 독서대가 비치된 2층은 개인 작업에 몰입하고 싶은 이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interview

이창수 유락·야행성동물 대표

유락의 목표는 '공동체에 대한 기여'라고 들었어요. 어떤 방식으로 실천하나요? 유락이 벌이는 일은 모두 비영리 프로젝트입니다. 수익이 나면 지역사회에 기부하거나 예술가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 씁니다. 지난해 12월 문을 연 야행성동물은 어떤 공간인가요? 빈티지 오피스 콘셉트의 독립 서점이에요. 녹슨 철제 책상과 두툼한 철 캐비닛, 좌우로 길게 뻗은 데스크 램프 등 콘셉트에 어울리는 가구를 몇 달에 걸쳐 수집해 공간을 완성했죠. 첫 큐레이션은 대중적이면서도 제가 좋아하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입니다. 기존 서점에서 만나기 어려운 절판본을 판매하고 있어요. 올해는 대구를 주제로 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요. 대구의 신생 브랜드 100개를 소개하는 전시를 기획 중이에요. 단순한 소개에 그치지 않고, 각 브랜드가 겪은 실패와 위기의 순간을 함께 기록하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통찰을 공유해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현실적인 인사이트를 전하고 싶어요.



no.15

DAEGU



KTX MAGAZINE

대화장

하이마트 음악감상실 & 카페향촌

물비늘 & 노실리콜렉트

노르웨이의 숲 & 온점

청라언덕

대구간송미술관

유락

WRITER 신승희, 우지경(여행 칼럼니스트) • PHOTOGRAPHER 봉재석

지금 여기

여성극작가 황지영 | 아랍에미리트 현대미술전 <근접한 세계> | 박정원 캔버스가든 대표가 안내하는 수선의 세계
한국의 통신 역사를 살피는 KT 온마루 | 파리지영 안젤리나의 동묘 탐험 | 조치원 골목 산책



21세기 정년이, 황지영

한때 대한민국 대중 예술의 꽃으로 불렸으나 지금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진 여성국극. 과거의 찬란한 광휘를 현재로 잇고자 하는 이가 있다.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이수자이자 여성국극 창작자인 황지영은 여성국극의 멋과 흥은 살리되 동시대 관객이 공감할 수 있는 등장인물과 서사로 창작극을 선보인다.





1

여성이 주축이 된 대중 예술

풍문으로 전해 들은 전성기 여성국극의 인기는 지금의 K-팝 아이돌 공연 못지않았다. 티켓을 사려고 새벽부터 줄을 서는 것은 예삿일. 몰려든 관객 때문에 공연장 일대 교통이 마비돼 기마경찰이 나서 교통정리를 했고, '인생네컷'처럼 여성국극 배우들의 의상과 소품을 갖춘 사진관에서 분장하고 사진 찍는 것이 유행했으며, 인기 배우에게 혈서를 보내거나 가상 결혼식을 올린 팬도 있었다. 여성국극이 뭐길래 그토록 인기를 끌었을까, 그리고 왜 한순간에 사라졌을까.

여성국극은 판소리, 연극, 무용이 한데 어우러진 공연으로 모든 역할을 여성 배우가 맡는다. 창극(국극)의 한 갈래로 보는데, 창을 하는 소리꾼과 북을 치는 고수가 무대를 꾸미는 판소리와 달리 창극은 여러 명의 배우가 배역에 맞는 의상을 입고 무대를 채워 볼거리가 많다. 그러나 1940년대 한국 사회는 남존여비 사상이 강해 여성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국악계도 예외가 아니었다. 뛰어난 여자 소리꾼이 많았지만 남성 중심의 세계에서 제대로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1948년 여성 국악인 30여 명이 여성국악동호회를 창

립해 여성만으로 이뤄진 국극을 만든 것이 여성국극의 시작이다. 여성국악동호회는 1948년 10월 창립 공연 <옥중화>를 무대에 올렸다. 단원이 모두 여성이었기에 여성 국악인들이 남장을 하고 공연했다. 그리고 이듬해 <햇님과 달님>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던 시대에 여성이 주축이 된 새로운 예술 장르가 탄생한 것이다.

전쟁의 아픔과 가난의 설움을 위로하는 무대

여성국극의 전성기는 1950년대다. 6·25전쟁 당시 피란을 다니면서도 공연을 이어 갈 만큼 인기가 대단했다. 비결은 간단하다. 당시 창극이 판소리 다섯 마당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반면, 여성국극은 화려한 의상과 무대장치로 극적인 요소를 더해 볼거리가 풍부했다. 레퍼토리도 다양했다. 설화나 역사에 뿌리를 둔 창작극부터 해외 문학을 각색한 <청실홍실>(로미오와 줄리엣) 번안극, <흑진주>(오셀로) 번안극, <햇님과 달님>(투란도트) 번안극 등을 녹여 냈다. 내용은 주로 멜로 드라마로 결말은 해피 엔딩이었다. 그러나 여성국극의 전성기는 오래가지 않았다.



2

1 '두산아트랩 공연 2026'에서 보여 줄 여성국극 <자네는 왜 그리 굉장히 기다란 담뱃대로 담배를 피이나>를 연습 중인 연극배우 한지규와 여성국극 배우 황지영. 2 황지영 배우가 소장한 여성국극 소품. 스승 조영숙 명인이 부채·떨잠·비녀를, 1세대 여성국극 배우 박옥진 명인이 초커를 물려줬다. 3 여성국극을 소재로 한 창작극 <벼개가 된 사나히> 공연 장면. 4 90세가 넘는 지금도 무대에 오르는 조영숙 명인.



3



4

1960년대에 TV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고 영화나 드라마를 집에서 볼 수 있게 되자 공연장을 찾는 이가 줄었다. 정부 지원 아래 전통문화 보존을 위해 1962년 국립창극단이 설립됐지만, 여성국극은 전통문화로 지정되지 못했고 문화 예술계에서도 소외되었다. 여성국극단 내부 분쟁과 함께 우후죽순 극단이 생겨나면서 수준 미달의 공연을 하게 되어 인기가 식었다는 지적도 있다. 물론 결혼과 출산으로 무대를 떠나야 했던 배우들의 사정도 있었다. 무대를 만드는 인력은 국립창극단으로 옮겨 갔고, 일부에서는 여성국극을 창극사의 수치료 취급하며 흔적 지우기에 급급했다. 그러나 여성국극의 맥은 끊어질듯 이어졌다. 전성기를 이끈 1세대 배우들은 꺼져 가는 불씨를 되살리려 노력했고, 그들의 공연을 보며 자란 2세대 배우들을 키워 냈다. 하지만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여성국극의 새로운 가능성

공연 예술 분야의 젊은 예술가를 지원하는 '두산아트랩 공연'이 시작됐다. 올해는 신진 예술가 8팀의 실험적인 무대 중 여성국극 <자네는 왜 그리 굉장히 기다란 담뱃대로 담배를 피이나>가 포함됐다. 작품을 만들고 공연할 황지영은 3세대 여성국극 배우이자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이수자다. 여덟 살 때 우연히 판소리를 접하고 아홉 살 때부터 판소리와 창극, 여성국극 등 장르를 넘나들며 활동했다. 그의 스승은 1세대 여성국극 배우 조영숙. 이번 공연에서 황지영은 작가, 연출, 작창, 연기를 맡아 올라온더로 활약한다. 1950년대 6·25전쟁을 겪은 세대를 위로했던 여성국극이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와 공감을 전할 수 있을까. 시대를 풍미한 여성국극의 과거와 현재를 지근거리에서 지켜보며 미래를 고민하는 황지영 배우를 만났다.



1



2

1 전통과 실험 사이에서 현대 여성국극의 언어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 황지영 배우.
2 황지영 배우의 손가락에 여성국극 배우 김성예 예인이 물려준 은가락지가 끼여 있다. 분장과 의상을 배우 스스로 챙겨야 할 때도 있지만, 선배들의 마음이 함께해 외롭지 않다.

두산아트랩에서 여성국극을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지원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동시대 관객과의 접점을 찾고 싶었어요. 두산아트랩 공연 사업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었는데, 2022년 <오버더탑 창: 문전본풀이>에 출연하면서 더 관심을 갖게 됐어요. 집 안 곳곳에 신이 있다는 제주도 무속 신화를 현대적으로 각색한 판소리 합창이었는데, 다양한 장르의 창작자들과 즐겁게 작업했거든요. 그러면서 막연하게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공연을 보여 주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자연스럽게 여성국극의 여성 역할을 탐색하는 작품을 구상했고, 기왕이면 신진 예술가들에게 기회를 주고 실험적인 시도에 열려 있는 두산아트랩에서 공개하고 싶었죠.

제목이 재미있어요. <자네는 왜 그리 광장히 기다란 담뱃대로 담배를 피어나>는 어떤 작품인가요?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여성국극 배우인 저와 조영숙 선생님, 그리고 춘향, 선화, 평강, 낙랑 등 여성국극 속 여성들이 등장해요. 제가 맡았던 역할이기도 하죠. 여성국극 속 여성을 연기하면서 그들에게 공감하지만 이해되지 않는 면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전통적인 여성국극은 로맨스 지향적이예요. 남성의 성공을 소망하며 자신을 희생하고, 성공해서 돌아온 남성과 사랑을 완성하는 스토리가 많죠. 동시대 여성과는 차이가 있어요. 따라서 저는 전통성에 갇혀 드러내지 못했던 여성의 욕망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제목의 '기다란 담뱃대'는 제가 여성국극을 하면서 보낸 시간을 의미해요. 여성국극을 배우면서 여성국극과 함께 성장해 온 시간, 전통적인 배역을 연기하면서 동시대 여성으로 성장한 저와 캐릭터 사이의 거리감을 아우르는 표현이예요. 이 작품에서는 여성국극 속 여성성을 연기하며 제가 그들과 거리를 좁혔다 멀어지기를 반복하고, 때로는 그들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동일시하는 과정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여성국극이 전통적으로 그려 온 완성된 사랑의 결말을 동시대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의미를 재해석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큐멘터리 영화 <여성국극 끊어질듯 이어지고 사라질듯 영원하다>에서 “여자가 하는 남자이기 때문에 이 여자는 더 여자스러워야 된다”고 했던 김성예 선생님의 말씀에 대한 답변처럼 느껴지네요.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에게 '여성스러움은 무엇이며 남성스러움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여성국극 속 여성의 역할과 실제 사이에 거리감이 생겼고, 의구심도 들었어요. '모든 역할을 여성이 연기하는 여성국극 안에서 남성스러움과 여성스러움을 찾는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가'라는 생각도 했고요. 물론 그것이 여성국극의 재미 중 하나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어요. 중요한 건 제가 여성국극을 통해 여성스러움과 남성스러움을 정의할 수 없다는 걸 체감했다는 거예요. 젠더는 고정된 본질이 아니라 반복되고 학습된 행위라고 생각하니까요. 이러한 방향성이 라면 이분법적인 성별을 가지고 노는 것 자체가 여성국극의 매력 아닐까요.

첫 장면에 담배 피우는 춘향이 등장해요. 우리가 알던 춘향기와 거리가 있어요.

판소리하는 선배님께 지금 전승되는 판소리 <춘향가>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춘향가> 이본에는 춘향과 이몽룡이 서로 담배를 나눠 피우며 이별하는 장면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보니 <춘향가>에는 왜 수절하는 춘향이지만 있고 담배 피우는 춘향이는 없을까, 반발심이 들었죠. 삭제된 장면을 살려 관념화된 성 역할을 뒤집어 보고 싶었어요.

여성국극과 창극은 어떻게 다른가요?

여성국극과 창극 모두 판소리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여성국극은 여성 배우만으로 무대를 만든다는 뚜렷한 정체성이 있죠. 그 점을 제외하면 지금의 창극과 여성국극은 비슷한 점이 많아요. 물론 초기에는 완전히 달랐어요. 과거 창극은 판소리 다섯 마당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반면, 여성국극은 전통 국악에 현대 연극을 결합해 서사 중심으로 발전했어요. 전통을 따르는 판소리는 가사가 어렵고 독특한 발성 때문에 알아듣기 힘든 반면, 대중 예술을 지향하는 여성국극은 가사에서 한자어를 빼고 현대어를 받아들이는 등 쉬운 언어로 만들었어요. 의상 역시 전통을 바탕으로 하되 수입 원단을 사용하는 등 변주를 했고요. 이야기기도 해외 유명 소설이나 오페라, 연극을 빈한한 작품이 많죠. 그래서 머리가 복잡해요. 과거에는 여성만으로 구성한 무대가 특별했지만 지금은 딱히 그렇지 않아도, 동시대 관객과의 접점을 넓히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이예요.

<자네는 왜 그리 굉장히 기다란 담뱃대로 담배를 피이나>가 여성국극이 전통적으로 그려 온 완성된 사랑의 결말을 동시대적 시각으로 다시 바라보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덟 살 때 판소리를 배우면서 여성국극을 접했다고 들었어요. 한눈판 적은 없나요?

저는 판소리와 여성국극을 동시에 접했어요. 두 장르를 구분하지 못했고, 고등학생이 되어서야 친구들을 통해 판소리와 여성국극이 다르다는 걸 알았죠. 혼란스러웠지만 여성국극을 그만두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일찍 시작한 덕에 저는 1세대 선배님들의 공연을 보며 자랐으니까요. 그 경험이 굉장히 강렬하게 남아 있어요. 생경하면서 잊을 수 없는 두근거림, 그 감정을 사람들에게 나눠 주고 싶어요.

여성국극의 맥을 이어야 한다는 사명감이 무거울 텐데, 도망치고 싶은 때는 없었나요?

2019년 대학원에 입학해 문화유산학을 공부했는데, 사실 그게 도망친 거였어요. 더 이상 무대에 설 자신이 없었거든요. 누구도 지적하진 않았지만, 무대 위 저 자신이 더 이상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무대를 떠날 수는 없으니 공부를 핑계로 잠시 거리를 둔 거죠. 문화유산과 전통 연화는 결이 같다고 여겼는데 완전한 착각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연구자들 사이에 있으니 저는 타고난 광대더라고요. 연구자로서 벽을 느꼈지만, 공부는 재미있었어요.

지금은 독립했지만, 박수빈 배우와 여성국극제작소를 설립한 것도 2019년이죠.

당시 저희의 화두는 여성국극의 확장이었어요. 박수빈 선배와 함께 고민했고, 결국 우리가 하고 싶은 공연을 만들어 보자고 의기투합해 여성국극제작소를 결성했죠. 그러다 코로나가 확산됐고, 설 수 있는 무대가 사라졌어요. 이대로 무대에 오를 수 없다면 오랫동안 소망했던 일을 해 보자고 뜻을 맞췄어요. 이전에는 조영숙 선생님 곁에 머물면서 대작이나 전통과 닿아 있는 작품 위주로 공연을 했어요. 모든 공연이 소중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동시대와 닿아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갈증이 생겼어요. 작품을 무대에 올린다는 건 자본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적은 자본으로 작은 공연을 지속적으로 올리면서 여성국극의 다양성을 보여 주고 가능성을 실험해 보자고 생각한 거죠. 여성국극제작소를 통해 창작극을 만들기도 하고, 대작을 무대에 올리기도 하면서 다양한 시도를 했어요.

여성국극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여성국극은 자유로워요. 저는 다양한 장르의 무대 예술을 사랑하고, 모두 도전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장르를 넘나들며 재미있는 작업을 해 봤는데, 어느 것이든 여성국극이 묻어나더라고요. 이번 작품은 연극하는 한지구 배우와 호흡을 맞춰요. 전통이 아닌 다른 시각으로 작품을 해석하고 도움을 주고받을 동료가 필요했어요. 음악적 요소는 제가 연기 분야는 한지구 배우가 리드하며 극의 완성도를 높여 가고 있어요. 그런데 1950년대에도 연극배우들이 여성국극 무대에 섰다는 기록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여성국극은 유연하고 자유로웠던 거죠.

조영숙 선생님은 여성국극의 무형문화유산 지정을 소망한다고 하셨어요. 여성국극 창작자이자 배우인 황지영의 꿈은 무엇인가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다는 것은 여성국극의 전승과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하지만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보호라는 명목하에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기 어려워질까 봐 걱정되기도 해요. 여성국극 실연자로서 문화유산 전승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공연을 계속하고 싶어요. 그게 저의 꿈이에요.

+
**<자네는 왜 그리
굉장히 기다란
담뱃대로
담배를 피이나>**

9세 때부터 여성국극 무대에 오른 3세대 배우 황지영이 그동안 맡아 온 여성국극 속 여성역할의 인물을 탐색하는 작품으로,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창작극이다.

기간 3월 19일 ~ 21일
장소 서울 두산아트센터

헤어 메이크업 전성애 | 촬영 황조 두산아트센터

지금, 여기, 아랍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가장 매력적인 방법은 예술을 마주하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동시대 미술과의 조우는 여행보다 짜릿하고 독서보다 강렬한 경험을 선사한다. 초단위로 풍경이 바뀌는 시대에도 여전히 낯선 그곳, 사막 한복판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직관적인 가이드, <근접한 세계>.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전환적 시기를 담아낸 마이타 압달라의 '몽상과 악몽 사이에서'(2020). 개인적 혼란과 젠더적 총위, 사회적 억압과 지역 신화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진다.

지금 미술계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는 '중동'이다. 지난 2월 초 카타르 도하에서 '아트 바젤 카타르'가 열렸다. 스위스 바젤에서 시작돼 홍콩, 마이애미, 파리로 이어진 아트 바젤이 최초로 중동에 깃발을 꽂자 유명 컬렉터와 셀럽들이 전세기를 타고 와 아트 쇼핑에 나섰다. 오는 6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는 '구겐하임 아부다비'가 개관하고, 11월에는 아트 바젤과 함께 글로벌 양대 아트 페어인 프리즈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제 미술 애호가들의 발걸음이 뉴욕이나 파리가 아닌 중동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미술 시장의 주무대가 사막 한가운데로 옮겨가는 이유는 분명하다. 미래의 먹거리로 '문화 관광'을 점찍은 중동 국가들이 천문학적인 오일 머니를 투자해 예술을 육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물리적 거리만큼이나 심리적 거리도 먼 중동 미술은 어떤 일

굴을 하고 있을까. 거대 자본의 수혜를 받으며 급성장하는 현대미술은? 지금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국내 최초의 아랍에미리트 현대미술전 <근접한 세계>가 좋은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오랫동안, 멀고도 낯선

<근접한 세계>는 아랍에미리트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46명(팀)의 작가, 110여 점의 작품을 소개하는 대규모 전시다. "세계 전시실에서 각각 세대를 대표하는 작가들을 만날 수 있도록 충실히 구성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 처음으로 현대미술의 온기를 불어넣은 1세대, 그들이 사력을 다해 성장시킨 2세대, 200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동시대 미술을 대표하는 3세대를 모두 만날 수 있는 기회죠. 다만 시대순이 아니라 가장 새로운 예술을 먼저 만나도록 했습니다." 바로 '지금'의 미

전시장에 들어서면 아랍에미리트의 동시대 미술과 가장 먼저 조우한다. 저명하게 활동 중인 3세대 작가들은 새로운 뿐 아니라 상상 이상으로 대담하고 파격적인 세계를 펼쳐 보인다.



팬톤 컬러 213C번 염료로 물들인 모래로 가득 찬 주마리의 '아랍어로, 쉽표'(2019). 기묘한 분홍빛 사막 풍경을 만끽하러는 젊은 관람객들의 오픈런이 이어지는 작품이다.

술을 먼저 배치한 기획 팀의 전략이 어찌면 지루할지도 모를 낯선 세계 탐험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일까. 전시장은 덕수궁 돌담길 데이트를 하던 커플이며, 오랜만에 모임을 가진 중년의 친구들과 기분 좋게 복적이다. 첫 번째 섹션 '회전의 장소'에 들어서자 벽면을 채운 화려한 사진 작업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3세대 작가의 대표 주자이자 광주비엔날레를 통해 한국에도 소개된 파라 알 카시미의 카메라는 비슷한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대화를 나누는 두 소녀, 가정집 소파 위에 올라가 있는 염소, 차도르를 쓰고 게임을 하고 있는 청춘의 모

습을 무심히 포착한다. 아부다비 젠지 세대의 SNS를 훑어보듯 별다른 것 없는 일상의 공간이지만, 알 수 없는 관계와 모호한 표정, 과장된 패턴과 컬러 탓에 은근한 긴장감이 감돈다.

익숙하지만 묘한 간극이 감지되는 낯선 세계로의 여행은 여성 작가 마이타 압달라의 '몽상과 악몽 사이에서'로 이어진다.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전환적 시기를 담아낸 사진 연작으로 사춘기에 겪는 불안과 환상, 순수와 성장의 이중성을 새와 돼지가 등장하는 아랍 우화에 접목해 표현해 낸다. 작품 속 강렬한 파스텔 핑크 타일은 아랍권에서 직관적으로 화장실을 연상시키는 장치라니, 가장 개인적인 공간에서 펼쳐지는 섬뜩한 판타지랄까. 외부 시선과 내밀한 감각이 충돌했을 때 느끼는 그 시절의 불안을 절묘하게 포착해, 관람자의 기억 한 자락을 기어이 꼬집어내고야 마는 작품이다.

이 전시실의 대미를 장식하는 작품은 주마리의 '아랍어로, 쉽표'다. 가벽을 돌아 들어가면 시야가 특 열리며 팬톤 컬러 213C번으로 물들인 형광 핑크빛 모래사막이 펼쳐진다. 인터뷰를 할 때도 토끼 털을 쓰고 나타날 정도로 신비주의를 고수하는 작가는 종말론적 분위기를 자아내는 이 폐쇄적 공간을 '생과사의 중간 시대'로 설정했다. 신발에 커버를 씌우고 황량한 핑크사



그림자를 이용한 설치 작품인 삼마 압달라의 '판단 보류'(2018). 세 번째 놓인 글자가 회전하며 '생각'에서 '주망된'으로 단어의 의미가 바뀐다.



'가말 칸데'라 이름 붙인 당나라와 함께 아랍에미리트 북부 산악 지대를 걸으며 작가의 여정을 수채화와 영상으로 담아낸 압둘라 알 사아디의 카탈 칸데의 여정 (2010-2011). 상단의 벽에 걸린 작품은 방향을 잃은 나침반들을 설치한 타레크 엘카수프의 '어디로부터 오셨나요?' (2023).



막을 저벽저벽 걸어 다니다 보면, 천장에 달린 마이크가 관람객의 소리에 반응해 외계 생명체의 비명 같은 디지털 사운드를 생성해 낸다.

어쩌면, 가깝고도 친밀한

사실 아랍에미리트는 중동에서도 독특한 서사를 가진 나라다. 사우디아라비아처럼 거대한 단일 왕국이 아니라 7개의 사막 부족(토호국)이 한데 모여 만든 연방 국가이자, 이란처럼 수천 년 된 제국이 아니라 1971년 현대적 국가를 이룬 신생국이다. 지금이야 명실공히 슈퍼 리치의 상징이지만 1960년대에 유전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바다로 나가 진주를 캐며 생계를 이어가던 가난한 지역이었다. 짧은 기간에 사회·경제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으며 부를 일구었지만, 단일국가로서의 정체성은 굳건하지 않은 나라. 이 파란만장한 스토리를 알고 나면 아랍에미리트에 대해 호기심이 조금 더 생긴다.

큐레이터의 설명을 들어 보면 이 나라의 현대미술도 궁금해진다. "아랍에미리트와 한국 미술의 서사에는 비슷한 맥락이 많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에서 서구 미술을 접한 예술가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나라도 영국에서 공부한 유학파들이 돌아와 현대미술을 전파했거든요. 정식 미술 교육은 커녕 부족 단위의 전통

짧은 기간에 사회 경제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으며 부를 일구었지만, 단일 국가로서의 정체성은 굳건하지 않은 나라. 이 파란만장한 스토리를 알고 나면 아랍에미리트에 대해 호기심이 조금 더 생긴다.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아랍에미리트 파빌리언을 장식했던 누조 알가넴의 2채널 비디오 작품 '통로' (2019). 현실과 허구의 서사를 담아낸 두 개의 영상이 스크린 양면에서 펼쳐진다.

모하메드 카짐의 '창' 2003-2005 (2005). 급격한 도시 개발 과정에서 고층 건물이 창밖 풍경을 변모시키는 한편 사유의 지평을 탐색하는 과정을 담아낸 2년간의 프로젝트다.



25° 12.51N
055° 16.31E
57 FT
03:55:22 PM
14 MAR 05



공예가 전부였던 시절부터 급변하는 사회를 온몸으로 겪으며 미술의 영토를 넓혀 온 것입니다." 그러나 아 이러니하게도 전통이 와해되고 풍경이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이야말로 예술가에게는 좋은 땀감이 됐을 것이다. 자극과 불안이 가중될수록 이야기가 샘솟고 사유가 확장하며 표현은 무르익는다.

바로 이 시기, 그야말로 '선구자'라고 불려도 좋을 1세대 작가들은 실존적 개척 정신으로 현대미술의 지평을 넓혀 갔다. '지형이 아닌, 거리를 기록하기'라고 이름 붙인 두 번째 섹션은 이들을 소개한다. 그중에서도 누조 알가넴의 '통로'를 만나는 행운을 놓치지 말자.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아랍에미리트 파빌리언을 장식했던 이 유명한 작품은 전시장을 가로지르는 벽 크기의 스크린 양면에 서로 다른 영상이 투사되는 2채널 비디오다. 작가 자신의 이주 기억을 모티브로 한쪽은 현실, 다른 한쪽은 허구의 이야기를 담아내며 서사의 정점에서 두 세계가 하나로 포개진다. 영화감독이자 시인인 작가의 통찰로 가득 찬 이 명상적 영상은 현대 아랍 시에 보내는 헌사이자 끝나지 않은 실험이다. 작고 어두운 방에 따로 설치한 모하메드 카짐의 '창 2003-2005'도 지나칠 수 없는 수작이다. 작가는 작업

실 창문 밖으로 부르즈 할리파가 건설되는 풍경을 2년간 지켜보며 이 거대한 마천루가 점차 수평선을 가리는 과정을 담담히 담아냈다. 도시 개발의 광풍 속에서 자본이 창밖 풍경을, 그리고 인간의 상상력을 어떻게 잠식하는지 보여 주는 동시에 외부에서 수혈된 값싼 노동의 문제도 날카롭게 짚어 낸다. 제3세계 노동자들의 움직임에 주의 깊게 쫓은 작가는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 초호화 건물을 짓는 사람들의 흔적은 사막의 모래바람과 함께 가장 먼저 지워질 것임을.

근접한 세계, 빨간 예술

전시의 마지막 섹션 '그것, 양서류'에서는 독특한 제목 그대로 흥미로운 서사가 펼쳐진다. 상황에 따라 피부 색을 바꾸는 양서류처럼 정체성을 유연하게 바꾸하며 살아남는 젊은 예술가들의 오늘을 담아낸 것이다. 생계를 위해 국가 산업과 가까이 손잡는 이들의 작업은 사뭇 진지하면서도 묘한 웃음을 자아낸다. 누군가는 건국 50주년 기념 쇼를 디렉팅하고, 누군가는 엄청난 스케일의 우주 산업 전시회 구조물을 만들며(이렇게 먼 우주인이 가져올 미네랄로 만든 미래의 벽돌 같은 기상천외한 것), 누군가는 국민용 선물을 디자인하기



아이만 제다니의 3채널 비디오 작품 '사막의 수호자들'(2022). 다양한 숙주에 기생하는 사막고사리를 모티브로 적막한 땅에서 살아가는 사막 민족의 삶을 신비롭게 은유한다.

도 한다. 프로파간다에 충실한 창작물들을 천천히 둘러보는 동안 한국의 올림픽이나 엑스포 풍경이 겹쳐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아랍에미리트의 작가들은 그 '양서류적 운명'을 충분히 즐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홀루드 사라피가 만든 아랍에미리트 건국 51주년 기념 담요를 보라. 7개 도호국을 상징하는 일곱 겹의 파동과 각 지역 문양, 전통 알 사두(Al Sadu) 직조를 결합해 누구라도 탐낼 만한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다!

신드바드의 모험처럼 신비한 이 여행(46명(팀)의 작가, 110여 점의 작품의 끝에는 마지막 작품, 아이만 제다니의 3채널 비디오 작품 '사막의 수호자들'이 있다. 작가는 다양한 숙주에 기생하는 사막고사리를 모티브로 척박한 땅에 터를 잡고 살아가는 사막 민족의 정체성을 신비롭게 드러낸다. 이는 곧 익숙한 것과 변화하는 것 사이에서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존재하는 예술가의 운명에 대한 은유이기도 하다. 묵직한 내레이

션으로 들려주는 "우리는 다만 살아남아 기록할 뿐, 모든 존재는 서로 이어져 있음을 알고 있다"라는 독백을 마지막으로, 외부로 향하는 출구로 천천히 나아가면 마침내 이 탐험이 마무리된다.

다시 서울 한복판, 덕수궁 돌담길을 걸으며 문득 오르 한 과목의 소설 <내 이름은 빨강>을 떠올렸다. 전시장에서 마주한 그 강렬한 풍경들이 빨강의 독백을 소환해 냈다. "나는 빨강이라서 행복하다! 나는 뜨겁고 강하다. 나는 눈에 띈다. 그리고 당신들은 나를 거부하지 못한다." 황색 모래와 검은 차도르에 갇혀 있던 중동 미술은 지금, 새빨간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다.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혁신이 부딪히는 혼란 속에서 길을 찾던 소설 속 화공들처럼, 서구의 언어로 쓰인 현대미술의 각축장에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분투하는 아랍의 예술가들은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뿜내고 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중동은 진짜일까, 만들어진 신기루일까.



관매박물관 ©

중동 미술을 만나는 또 다른 공간

서울시립미술관과 더불어 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중동 미술을 만날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이슬람 미술, 찬란한 빛의 여정'을 주제로 상설 전시실 최초의 이슬람실을 개관한 것이다. 이슬람 문자 예술의 시작점을 보여 주는 초기 <쿠란> 필사본, 아라베스크 무늬와 서예로 장식한 모스크 램프, 이슬람의 높은 과학 수준을 상징하는 천구의와 아스트롤라베 등 83점의 예술품을 통해 이슬람 문명의 정수를 선보인다. 전시는 '종교미술' '문화의 포용과 확장' '궁정 문화와 필사본'이라는 세 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7세기부터 19세기에 이르는 이슬람 문화의 다채로운 예술 세계와 폭넓은 미감을 조명한다. 모스크에 들어온 듯한 물입감을 주는 돛지붕과 팔각형 구조, 다마스쿠스 귀족의 응접실을 미디어로 재현한 신비로운 공간 등 이슬람 문화를 처음 접하는 관람객을 배려한 세심한 연출도 돋보인다. 카타르 도하의 이슬람 예술 박물관과 공동 주최하는 이번 전시는 10월 11일까지 계속된다.



www.torali.com 한국필도협사

두바이에서 도로 안전표식을 도색하는 노동자들과 협업해 작업한 비크람 디베차의 '도로 표식'(2017). 지역과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표식이 도로 페인트의 질감과 만나, 생생한 회화로 탄생했다.



급격한 도시화가 토착 식물을 밀어내고 인공적 경관을 만드는 과정을 기록한 타레크 알-구세인의 '미화' 연작(2012).

수선의 기쁨

의류 수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캔버스가든의 박정원 대표를 만났다.
개개인의 취향이 가득 모여 있는
서울 동묘 구제시장에서 그와 첫인사를 나눴다.





1

환경에 끼칠 영향을 생각하면 옷 사는 걸 주저하게 된다. 어떤 제품을 골라야 지구에 덜 해로울까 고민하는 사람들은 각자 기준점을 정한다. 패스트 패션 브랜드를 지양하거나 동물 착취 없이 만든 제품을 찾아보는 등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실천 방법을 모색한다. 비건을 지향하는 이들은 잔혹한 도축 방식과 생명 윤리 문제로 논란이 되는 동물성 가죽 제품만은 구매하지 말자고 다짐한다. 환경에 대한 책임과 소비 욕구 사이에서 괴로워하던 중에 식물성 가죽을 활용한 캔버스가든의 가방이 운명처럼 다가왔다. 다양한 크기와 색상의 가방이 홈페이지 화면에서 저마다 개성을 뽐내고 있었다. 구제시장에서 구한 옷으로 하나뿐인 가방이나 모자 등을 만들어 파는 조각마켓, 수선의 즐거움을 나누는 조각워크숍까지, 이 브랜드의 행보가 계속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1월에는 박정원 캔버스가든 대표의 에세이 <직물을 잇고 조각을 수선합니다>가 출간되었으니 이젠 그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다.

직물에 대한 상상력을 넓히다

박정원 대표가 선택한 식물성 원단은 선인장·다나무·사과 가죽이다. 버섯 가죽이나 대나무 가죽 등 여

러 소재에 도전해 본 뒤 형태가 잘 무너지지 않고 원하는 질감이 구현되는 원단을 선별했다. 선인장 가죽은 선인장에서 셀룰로오스를 추출해 제작하는데, 다육 식물 특성상 재배할 때 물이 적게 들고 잘라 내도 빠르게 자라는 장점을 지녔다. 다펜대 겹질로 만든 한지에 식물성 원단을 접합한 다펜대 가죽은 땅속에서 빠르게 분해돼 환경에 덜 해롭다. 사과 가죽 또한 버려지는 사과 껍질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22년 8월 캔버스가든의 가방이 세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식물성 가죽으로는 보통 정적인 디자인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다르게 표현하고 싶어요.” 프릴이나 꽃 장식으로 포인트를 준 가방은 물론 녹두색, 적갈색, 은색 등 다채로운 색감의 제품도 출시했다. 상시 판매하는 제품 외에 비정기적으로 마켓을 열어 헌 옷으로 만든 세상에 하나뿐인 제품도 선보인다. ‘조각마켓’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장에서 판매자는 실험적인 시도를 할 수 있고, 구매자는 희소성 높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얻는다. 서울의 동묘구제시장·동대문 일요시장·아름다운가게, 강원도 춘천의 창고형 빈티지 가게, 경기도 광주의 구제특화거리, 경기도 일산의 구제집합장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은 조각이 박 대표의 손을 거쳐 새로운 얼굴을 갖는다. 모자 두 개를 덧대어 손가방으로 탄생시키거나, 청치마를 활용해 데님 특유의 빈티지한 느낌을 살린 숄더백을 만들기도 한다. 흰색 주름 원피스와 물방울무늬 블라우스가 만나 매력적인 가방이 되고, 핫 핑크 바지는 허리 고무줄 부분을 활용해 프릴 장식 가방으로 변신한다. 같은 원단에서 나온 다양한 작업물을 구경하다 보면 직물이 지닌 무한한 가능성에 새삼 놀란다.

박 대표의 작업 과정이 궁금해 조각마켓에 사용할 옷을 구하기 위한 탐방에 동행했다. 시장을 한 바퀴 돌고 난 뒤 그가 구매한 건 기하학적 패턴의 검은색 외투였다. “빅 백을 만들면 좋겠어요. 가방이 작으면 패턴의 임팩트가 사라지니까 큰 사이즈로 작업하려고요.” 조각마켓의 제품은 옷감을 구매할 때부터 이미 무엇으로 변모할지 결정된다. 즉석에서 옷의 디테일을 보며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이다. 옷 등판이 위로 가도록 반듯하게 접고, 소매를 이어 손잡이 모양으로 형태를 잡으니 결과물이 얼추 짐작된다.



2

1 지난 1월 21일에 출간된 박정원 대표의 에세이 <직물을 잇고 조각을 수선합니다>.
2 빈티지 숄더백에 들른 박 대표가 옷의 패턴과 소재를 살핀다.
3 동묘 구제시장에서 산 기하학적 패턴의 아우터는 빅 백으로 바뀔 예정이다.
4 조각을 활용한 단추 달린 갈색 구두, 구두 모양의 핸드백 오브제, 구슬 달린 회색 신발 등 자투리 천을 이어 붙여 만든 작업물.



3



4



1 옷을 해체해 다시 활용하려고 하니 주름이나 무늬 등 디테일이 새로 보인다.
 2 티 코스터를 만들기 위해 워크숍 수강생이 남기고 간 치마의 꽃무늬를 살려 잘랐다.
 3 한 수강생이 평화를 주제로 직물 액자를 완성해 나가는 모습. 반려견이 어릴 때 입던 옷을 사용해 천사를 표현했다.
 4 수선의 세계로 이끄는 다채로운 빛깔의 실.



낮선 재봉틀과 친해지기

박 대표는 지난해부터 수선 워크숍을 열어 수강생들과 표현의 즐거움을 나누고 있다. 재봉틀을 사용하는 워크숍은 주로 다섯 번에 걸쳐 진행하는데, 첫 번째 수업에서는 재봉틀 사용법을 익히기 위해 행주나 티 코스터를 만든다. 보통 각자가 가져온 헌 옷을 활용하지만, 이날은 이전 수강생들이 남긴 원단으로 티 코스터를 제작하기로 했다. 보관함을 뒤적거리다 짙은 주황빛 치마에 끌려 그와 어울릴 만한 옷감 두어 가지를 함께 챙겨 자리로 돌아왔다.

차분한 마음으로 재봉틀 앞에 앉자 어떻게 만들 거냐는 질문이 들어온다. 완벽주의 성향인 사람이 새로운 분야에 첫발을 들이는 일은 항상 어렵다. 일일 선생님이 된 그에게 눈빛으로 도움을 구하자 무언의 응원을 전한다. ‘어떤 걸 만들어도 좋아요.’ 그렇다면 이 옷의 빈티지한 색감과 꽃무늬를 살려 일단 사각형으로 자르기로 한다. 마침 치마에 이사귀 무늬도 있으니 그것도 오려 박음질하면 되겠다. 재봉틀 위에 적힌 순서대로 실을 꿰고, 원단도 바늘 아래 제자리를 찾았다면 이젠 페달을 밟을 차례. 우렁찬 소리와 함께 수선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열린다. 재봉틀이 돌아가는 속도에 맞춰 천을 밀고, 툼툼이 천이 울지 않게 펴 주고, 원하는 방향으로 각도를 트는 내내 한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다.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발에 들어가는 힘도 조절해야 한다. 그런데 묘한 희열이 느껴진다. 사용법을 익히니 자신감도 붙는다. 기계를 작동하는 순서를 따르고 방향과 속도만 조절하면 재봉틀은 머릿속으로 그린 작품을 눈앞에 그대로 보여 준다.

조각조각 표현하는 개성

재봉틀 사용법을 익혔다면 직물 액자 만드는 과정을 거친 뒤 마지막으로 가방을 완성한다. 처음에는 헌 옷을 콜라주해 가방 만들기 수업을 바로 진행했는데, 수강생 대부분이 옷을 어떻게 자르고 활용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 걸 보고 직물을 마음껏 해체하고 이어 붙이는 시간을 먼저 갖기로 했다. 각자의 개성이 드러나는 결과물은 액자에 담아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한다. “밑실이 영 썩어 몽땅이지만 스티치로 포장해 또 다른 모양을 내도록



“수선은 완성과 망침 사이를 고요히, 격렬하게 오가는 행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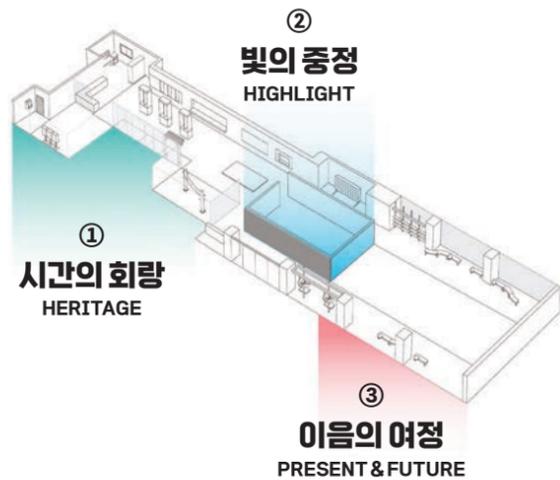
뚝고, 밀그림보다 많이 비뚤어지면 틀어진 대로 과감히 더 밀고 나가 추상적인 형태로 바꾸는 방법을 함께 궁리했어요.” 수강생들이 실수를 실수라고 여기지 않도록 의견을 보태는 것이 그의 역할이었다.

직물 액자 만들기 수업이 열리는 날, 각자의 과업을 마치고 온 수강생들이 하나둘 작업실에 모인다. 아이패드 화면에 시안을 띄워 놓고 배경이 되는 천 위에 원단 조각을 하나씩 더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결을 살리기 위해 파란색 천을 손으로 쪽 찢어 또 다른 배경을 만드는 사람도 보인다. “뭐 하나 들어맞는 게 없어요.” “원래 그런 게 재미예요.” 의도한 대로 구현되지 않아 속상해하는 수강생들에게 박 대표가 유쾌한 위로를 건넨다. “실밥 정리 안 해도 잔디 같은 느낌이 나서 좋네요.” 작업 과정을 지켜보다 감상도 덧붙인다. 여백을 채울 방법을 고민하는 이에게는 색연필로 칠하거나 메탈 단추를 붙여도 괜찮겠다고 힌트를 준다. 작은 실수에 아쉬워하던 수강생들은 어느새 작품의 완성도보다는 개성을 자유롭게 펼치는 일에 집중한다. 입거나 버리기. 옷을 대하는 두 가지 선택지에서 벗어나 이제 수선이라는 길을 탐색해 보는 건 어떨까. 직물을 해체하고 새롭게 만드는 과정에서 자신의 취향을 세심히 살피고, 어울리지 않을까 봐 망설이던 패턴이나 소재에도 과감히 도전할 수 있다. 마음을 빼앗는 실과 원단을 만나면 누구나 수선의 매력에 빠져들 테다.

어썬요, 뽀뽀의 시대

서울 종로구에 문을 연 KT 온마루에서 전화기의 역사를 한눈에 살핀다. 전시관에는 소통 방식의 변천사도 함께 녹아 있다.

전화받는 모습을 표현하는 손동작으로 그 사람이 어느 시대를 살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손바닥을 귀에 갖다 대는 사람과 엄지와 새끼손가락만 펴서 귀로 가져가는 사람. 집이나 공중전화 부스에서 유선 전화를 사용해 봤다면 두 동작을 모두 이해하겠지만,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한 세대에게는 후자의 동작이 낯설다. 또래 사이에서도 전화기 형태나 사용 방식이 구별될 만큼 한국의 통신 기술은 빠르게 발달했다. 그 변천사를 한눈에 살필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KT 온마루를 찾았다. 전시관에 들어서니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방문 후기에서 본 것처럼 주제와 관련된 흥미로운 체험이 가득했다. 수신자와 발신자의 통화를 연결해 주는 전화 교환원이 되어 송수신 선을 조명이 켜진 포트에 꽂고, “용건만 간단히”라는 문구가 적힌 전화기 앞에서 다이얼을 돌리는가 하면, 송수화기를 손에 든 채 공중전화에 동전을 넣어 보기도 했다. 통신수단이 제한적이던 시절의 전화기는 지금보다 더 큰 의미를 지녔을 거다. 낯설고 익숙함이 혼재하는 전시관에서 연결의 가치를 되새겼다.





전신은 전류를 이용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통신 기술이다. 글자 수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내용을 최대한 간략하게 전달하는 전보체가 사용됐다. 키오스크에서 용지 디자인을 선택한 뒤 엄마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입력했다. 앞날을 응원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보체로 변환하자 “당신의 내일 항상 응원함”이 되었다. 효율을 챙겼지만 예의가 생략된 문구 완성. 다시 변환하니 이번에는 “빛나는 나날, 늘 당신 곁에”로 바뀌었다. 정해진 글자 수 내에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고민했던 표어 짓기 대회가 떠오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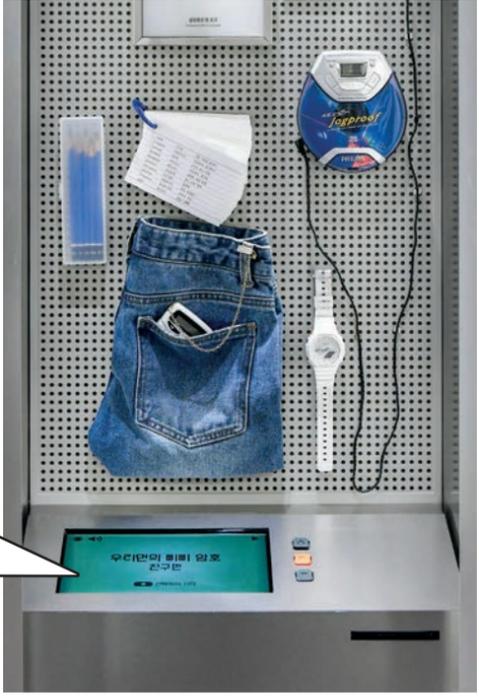
동전을 넣어 공중전화를 사용해 봤지만 카드는 낫살다. 공금증을 안고 공중전화카드 키링을 만드는 기계 앞에서 줄을 섰다. “용건만 간단히” “통화는 짧게 배려는 길게” “기다림의 미학”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 등의 문구가 적힌 디자인 중 고민하다가 “용건만 간단히”를 고르고 다이얼 전화기 스티커로 꾸며 완성했다. 당시에는 뒷사람을 위한 배려의 말이었지만, 과도한 통화로 피로를 느끼는 현대인에게도 필요한 문구 같다.

시간의 회랑

한국 통신의 변천사를 살펴보는 상설 전시관이 다. 덕수궁에 설치한 국내 최초 전화기 ‘덕물풍’부터 손가락으로 돌리는 다이얼 전화기, 동전을 넣어 이용하는 공중전화, 광고 음악을 연상시키는 추억의 스마트폰까지, 시대별로 다른 형태의 전화기를 한데 모았다. 전보 보내기, 공중전화 카드 키링 만들기, PC 통신 채팅방 접속하기, 삐삐 영수증 출력하기 등 흥미로운 체험도 마련되어 있다.



1982년에 출시한 무선 호출 서비스 ‘삐삐’를 통해 사람들은 짧은 숫자로 마음을 전했다. 알쏭달쏭한 삐삐 암호를 누른 뒤 영수증을 인쇄해 정답을 확인했다. 사랑의 표현도 여러 가지인데, 암호라서 그런지 화끈하고 강렬하다. 1010235(열렬히 사모해), 4486(죽도록 사랑해), 1177155400(I Miss You), 0000(당신은 나의 0순위)... 11010은 고개를 왼쪽으로 돌려서 보면 ‘흥’이 된다.



튀어나올 듯한 눈으로 관람객을 뵈히 바라보는 이것은 바로 한국 최초의 전화기 덕물풍이다. ‘Telephone’을 발음이 비슷한 한자로 옮겨 덕물풍이라 불렀다. 수화기를 들어 귀에 대고 발전기 손잡이를 돌리면 이 전화기에 얽힌 흥미로운 에피소드를 들려준다. 덕물풍이 김구 선생을 살렸고, 고종이 무덤에 전화선을 설치해 세상을 떠난 어머니 신정왕후에게 예를 올렸다는 이야기가 수화기에서 흘러나온다.



1990년대 PC 통신 서비스 ‘하이텔’ 이용자의 방을 재현한 공간에 들어섰다. 초기 PC 통신 시대의 채팅 문화가 궁금해 닉네임을 입력하고 채팅방에 접속하자 익명의 사람들이 “어싸요” “방가방가”라는 말과 함께 새로운 참여자를 반긴다. 채팅이 마무리될 즈음 한 명이 밤새 대화할 생각이 있냐고 묻고, 다른 이들이 “전화비 폭탄 맞는다” “통신비 때문에 밤에 몰래 몰래 한다”고 답한다. 추천 답변을 참고해 “통신비 때문에 못 올지 모르겠다”고 보내니 해피엔드님의 다정한 인사말이 돌아온다. “못 오셔도 괜찮아요. 전 그냥 가끔 여기사 기다릴게요.” 제한된 연결이 알 수 없는 애뜻함을 만든다.





빛의 중정

빛과 미디어가 어우러진 몰입형 미디어 아트 공간. 1982년 세계에서 열 번째로 개발에 성공한 한국의 전화 교환기, TDX(Time Division Exchange)를 주제로 한 미디어 아트 영상이 펼쳐진다. 입장하기 전 키오스크에서 얼굴을 촬영하면 시가 디지털 아트로 변환해 화면에 띄워 준다. 관람 후에는 QR코드를 통해 결과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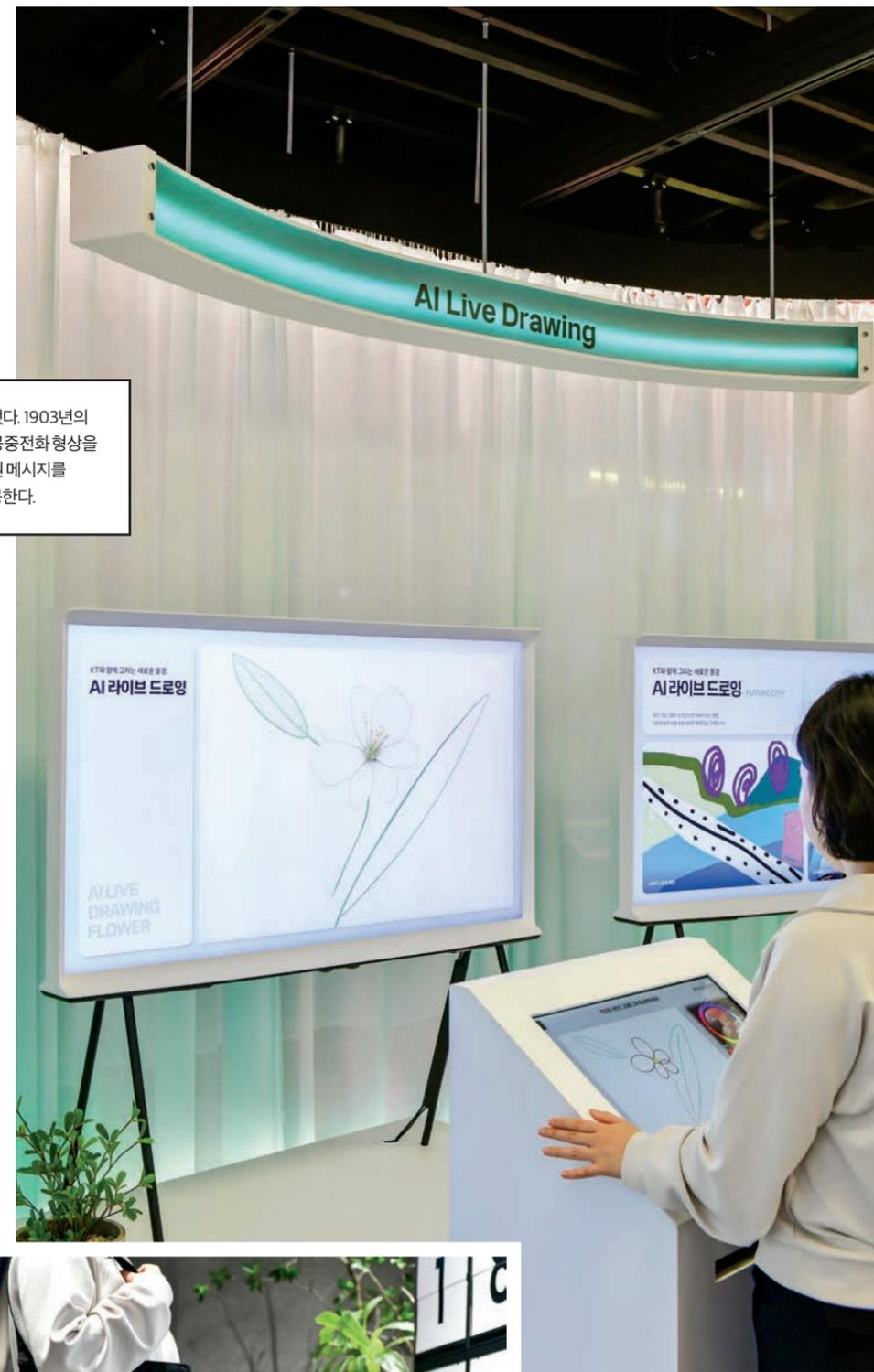
이음의 여정

KT의 기술력을 살펴보고 이를 활용한 굿즈를 만들어 보는 공간이다. AI 라이브 드로잉 존에서 AI 기술로 완성한 그림을 인쇄해 에코백을 제작한다. 11미터 규모의 대형 LED 미디어 방명록에 방문 소감을 남기면 재방문 시 검색 기능을 통해 추억을 소환할 수 있다. 3~4개월 주기로 콘텐츠를 변경하는 팝업 형태로 운영한다.

전시관 개관을 기념해 한정판 굿즈를 마련했다. 1903년의 벽걸이형 자석식 전화기와 1977년의 시내 공중전화형상을 딴 자석이다. 네이버 지도 'KT 온마루'에 응원 메시지를 남기면 수량이 소진되기 전까지 굿즈를 제공한다.



'미래 도시' '꽃' '자연 풍경' 중 원하는 테마를 골라 화면에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면 시가 실시간으로 인식해 예술적인 그래픽으로 변환한다. 꽃 테마를 선택한 후 꽃잎과 수술을 그리고 잎사귀 두어 개를 더하니 세밀한 그림이 탄생했다. 리사이클 코튼 소재로 만든 가방 위에 근사한 작업물이 그대로 올라간다.



KT 온마루, 이런 곳이에요

지난해 12월 KT 광화문빌딩 West 2층에 체험형 전시 공간 'KT 온마루'가 문을 열었다. 온마루는 '모든'을 뜻하는 '온'과 '가장 높은 곳이자 중심이 되는 장소'를 뜻하는 '마루'라는 순우리말을 결합한 이름이다. 전시관은 '시간의 회랑(상설 전시)', '빛의 중정(미디어아트 전시)', '이음의 여정(팝업 전시)' 세 파트로 이루어졌다. 1885년 광화문 한성전보총국에서 시작된 한국의 정보통신 역사를 훑으며 시대별로 다른 소통 방식을 경험하고, 기술 발전이 일상의 풍경을 어떻게 바꿨는지 알아본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료 개방하며, 사전 예약을 하면 국·영문 도슨트 투어도 가능하다.

안젤리나의 동묘 탐험

Angelina's Dongmyo Exploration



이 여행은 가장 한국다운 서울의 시간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했다. 프랑스 파리에서 온 친구 안젤리나와 함께 한국만의 빈티지가 살아 있는 서울 동묘 구석구석을 온종일 탐험했다.

This journey began with a simple intention: to introduce a side of Seoul that feels unmistakably Korean. Spending a full day wandering Dongmyo with Angelina, a friend from Paris, we explored every corner of this neighborhood where Korea's vintage culture still thrives.

아날로그의 매력, 헌책방과 레코드 숍

The Charm of the Analog: Bookshops and Record Stores

동묘 투어의 시작은 '없는 것이 없다'는 송인풍물시장. 동묘공원을 지나 골목 김숙이 들어서자 구제 의류부터 서적, DVD, 전자 제품, 자전 거까지 온갖 종류의 물건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디스코나 트로트 CD를 장당 2000원에 파는 가판과 바닥부터 어깨 높이까지 책이 켜켜이 쌓인 헌책방이 안젤리나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골목에 빼곡히 늘어난 점포들을 구경하며 걷다가 하얀색 건물 2층에 자리한 예음레코드 앞에서 발길이 멈췄다. 서울 강남의 투라이온스 레코드 대표가 2024년에 새롭게 문을 연 곳이다. 벽면을 둘러싼 진열장에 올드 팝, 재즈, 록,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LP가 가득 채워져 있다. 오랜 시간 머물고 싶은 쾌적한 공간과 더불어 갖고 싶은 LP를 고민 없이 골라도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 매력적이다. 안젤리나는 어릴 적 좋아했던 마이애미 사운드 머신의 <Congal>를 비롯해 명반을 찾는 재미에 푹 빠졌다. LP 마니아들 사이에서 '나만 알고 싶은 곳'으로 통한다고 하니, 아직 구하지 못한 음반이 있다면 예음레코드를 찾아가 봐도 좋겠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58길 41

Our Dongmyo tour began at Sungin Folk Flea Market, often described as a place where "nothing is missing." Passing Dongmyo Park and heading deeper into the alleys, we were met with a dizzying array of goods—vintage clothing, books, DVDs, electronics, even bicycles. Street stalls selling disco and trot CDs for KRW 2,000 each and secondhand bookstores with shelves stacked from floor to shoulder height instantly captured Angelina's attention. After strolling past the tightly packed shops, we stopped in front of Yeeum Records, located on the second floor of a white building. Opened in 2024 by the owner of Two Lions Records in Gangnam, this new space is lined with shelves filled with LPs spanning old pop, jazz, rock, and classical music. The comfortable atmosphere invites long visits, and the reasonable prices make it easy to pick up records without hesitation. Angelina happily lost herself in the thrill of digging, finding classics including Miami Sound Machine's Congal, a favorite from her childhood. Already known among LP enthusiasts as a "best-kept secret," Yeeum Records is well worth a visit if there is a long-sought album still missing from your collection.

Address 41, Jong-ro 58-gil, Jongno-gu, Seoul





흥미로운 골목 여행, 동묘시장 Dongmyo Market: An Alleyway Feast

한 잔에 1500원인 냉커피와 막걸리, 1000원짜리 토스트 등 동묘시장을 걸다 보면 그냥 지나치기 힘든 갖가지 주전부리와 맛닥뜨린다. 식혜와 토스트, 달걀빵 등을 안젤리나와 한 입씩 나눠 먹으며 골목을 누비니 어느새 저녁 식사 시간이 가까워졌다. 우리가 선택한 곳은 동묘의 야장 맛집 '국수지짐이'. 동묘공원 돌담을 그늘 삼아 자리를 편 노포다. 플라스틱 간이 의자에 앉은 안젤리나가 능숙한 솜씨로 막걸리를 따라 마시며 안주를 기다린다. 막걸리의 흥취를 더해 주는 메뉴는 쫄깃한 면발을 자랑하는 국수와 노릇하게 구운 김치전. 푸짐하게 주문해도 2만 원을 넘지 않는 가격이 놀라울 따름이다. 한참을 먹고 마시다 보니 어느덧 좁은 골목에 노을빛이 스며들고 있다. 이제는 동묘의 밤을 즐길 차례. 동묘시장의 메인 거리, 동묘앞역 쪽으로 향했다. 주말과 공휴일 오후 12시부터 6시까지 보행 전용 거리로 바뀌어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차가 사라진 거리를 누비다 보면 나이 지긋한 어르신은 물론 빈티지 쇼핑에 나선 20~30대, 안젤리나와 같은 외국인도 제법 마주친다. '와우 유통' '백화점 썬그라스' 등 손글씨로 써 내려간 빛바랜 간판과 가판에 수북이 쌓인 잡동사니가 반세기 전 한국의 생활상을 고스란히 보여 준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송인동 일대

Walking through Dongmyo Market, it is hard to pass by the irresistible street snacks that appear one after another, such as iced coffee and makgeolli priced at KRW 1,500 per cup and toast for KRW 1,000. Sharing sikhye (sweet rice punch), toast, and egg bread with Angelina as we wandered the alleys, we soon realized that dinnertime was approaching. Our choice was a beloved open-air eatery in Dongmyo called Guksu Jijimi. This long-established spot sets up under the stone wall of Dongmyo Park. Seated on plastic stools, Angelina skillfully poured herself a glass of makgeolli (rice wine) while we waited for the food. We ordered the signature noodles and nicely browned kimchijeon (kimchi pancake). Even with a generous spread, the total rarely exceeds KRW 20,000. After eating and drinking for a while, the narrow alley slowly filled with the glow of sunset. It was time to enjoy Dongmyo at night. We headed toward the main street in front of Dongmyo Station. On weekends and public holidays from noon to 6 p.m., the street becomes pedestrian-only and fills with a dense crowd. As you roam the car-free road, you encounter elderly regulars, people in their twenties and thirties out vintage shopping, and quite a few foreigners like Angelina. Faded, handwritten signboards reading names such as "Wow Distribution" and "Department Store Sunglass," along with piles of miscellaneous goods stacked on street stalls, vividly capture everyday Korean life from half a century ago.

Address Sungin-dong, Jongno-gu, Seoul





리듬에 몸을 맡기는 시간, 빅테일 The Bigtail Bar, Where Music Takes Over

빅테일은 동묘의 주말 밤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곳이다. 좁은 골목에 비밀스럽게 숨어 있는 칵테일 바로, 매주 금·토요일 밤이면 라이브 공연이 열린다. 이 근방에서 젊은 아티스트의 라이브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바는 빅테일이 유일하다. 국악을 전공한 소리꾼이 대표인데, 예술가들을 위한 무대를 마련해 재즈, 포크, 힙합 등 장르 가리지 않고 공연할 기회를 제공한다. 공연은 1부와 2부로 나뉘며, 2부는 대부분 오픈 마이크로 진행된다. 이때 관객들이 자유롭게 마이크를 잡고 공연에 참여한다. 운이 좋으면 대표의 국악 공연도 볼 수 있다. 놀이공원 컨셉으로 꾸민 실내와 어울리는 테마 칵테일도 매력적이다. 상어가 피를 뿜는 듯한 퍼포먼스가 곁들여지는 '상어의 습격'과 무려 4리터에 달하는 메가 사이즈 칵테일은 보는 것만으로도 입이 떡 벌어진다. 그 외에도 기본에 충실한 클래식 칵테일 100여 종이 준비돼 취향껏 선택할 수 있다. 한낮에 시작한 동묘시장 투어는 밤늦게야 끝이 났다. "파리를 빈티지 마켓의 도시라고들 하잖아요. 동묘도 파리의 빈티지 마켓 못지않게 매력적인 동네네요." 걸음마다 다른 풍경이 펼쳐진 동묘. 외국인 친구의 시선을 따라 걸어서 더 낯설었는지도, 더 특별했는지도 모른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52길 43-17

What makes a weekend night in Dongmyo truly special is The Bigtail Bar. Tucked away in a narrow alley, this discreet cocktail bar hosts live performances every Friday and Saturday night. It is the only bar in the area where you can regularly catch live shows by young artists. The owner, a vocalist trained in traditional Korean music, created the stage as a space for artists, offering performance opportunities across genres ranging from jazz and folk to hip-hop. The night is divided into two sets. The second set is usually an open mic session, when audience members are free to step up to the microphone and continue the performance. On a lucky night, you might even catch the owner's own gugak performance. The experience is heightened by themed cocktails that match the bar's amusement-park-inspired interior. "Shark Attack," accompanied by a playful performance that resembles a shark spurting blood, and the enormous four-liter mega cocktail are impressive even before the first sip. In addition, more than 100 classic cocktails are available, making it easy to choose according to your taste. Our Dongmyo Market tour, which began in the middle of the day, finally came to an end late at night. "People say Paris is a city of vintage markets. Dongmyo is just as charming as any vintage market in Paris," Angelina said. Dongmyo revealed a different scene at every turn. Following the gaze of a foreign friend may have made it feel more unfamiliar, and perhaps all the more special.

Address 43-17, Jong-ro 52-gil, Jongno-gu, Seoul

안젤리나 Angelina



프랑스 파리 출신의 콘텐츠 기획자로 한국살이 11년 차다. 전국의 맛집과 관광지 중 안 가 본 곳이 없을 정도로 한국과 여행을 사랑하는 모험가다. 지도 앱에 빼곡히 찍힌 '즐거찾기' 표시만 봐도 한국에 대한 안젤리나의 애정이 느껴진다.

A content planner from Paris, Angelina has lived in Korea for 11 years. An avid traveler with a deep affection for the country, she has visited so many restaurants and destinations nationwide that it is hard to find a place she has not been. Even a glance at the densely packed "favorites" saved on her map app reveals just how fond she is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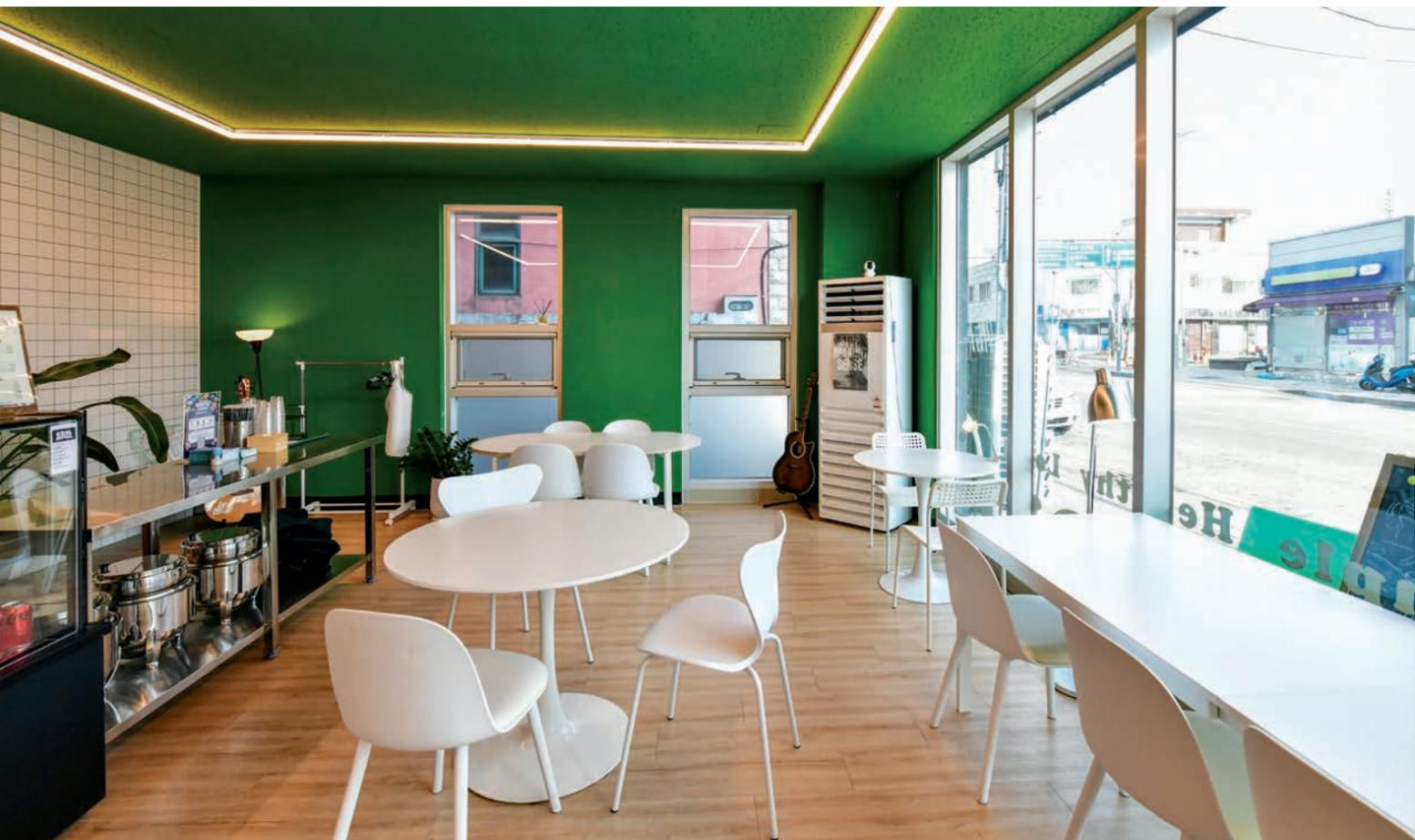


조치원 골목 산책

경부선의 허리아자 충북선의 기점인 조치원역. 세종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촘촘히 뻗어 있는 골목에서 흥미로운 공간들을 발견했다.



가는 방법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서울역에서 ITX-마을을 타고 조치원역까지 1시간 30분 정도 걸린다. KTX를 타고 오송역에서 하차해 이동할 수도 있다.



원도심의 새로운 미식 풍경 카페 섭골

조치원 원도심의 골목을 누비다 보면 뉴욕 소호 거리에서 마주칠 법한 힙한 감성의 공간이 발길을 멈춰 세운다. 간판에 적힌 "심플하고 건강한 로컬의 맛"이라는 레터링이 이곳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곳, 카페 섭골이다. 섭골은 영어로 '훌쩍훌쩍 마시다'라는 뜻의 '섭(sup)'과 포르투갈어로 '한입에 꿀꺽 삼키다'라는 뜻의 '골(gole)'을 합친 단어다. 카페 섭골의 한재운 대표는 지역 식자재를 활용한 수프와 샌드위치를 선보인다. 그가 식음료 공간을 준비하며 가장 먼저 떠올린 아이템은 속이 쓰릴 때 끓여 먹던 수프. 세종시 연동면에서 직거래한 양송이를 넣은 리치 양송이 수프, 콩을 사용하지 않고 고기 맛에 집중한 비프 칠리 콘 카르네 등을 메뉴로 구성했다. 여기에 수제 햄을 듬뿍 넣은 잠봉비르 샌드위치와 마늘·양파·레몬즙으로 마리네이트한 뒤 저온에서 천천히 익힌 수비드 치킨 샌드위치 등을 곁들이면 파인다이닝도 부럽지 않은 완벽한 한 끼가 완성된다.

150 주소 세종시 조치원읍 문화로 27 문의 0507-1366-7364



나에게 주는 여덟 가지 행복 책방에일

일, 여행, 공간, 가드닝, 사람, 문화 예술, 음식, 선물. 이 여덟 가지 중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책방에일에 방문할 이유가 충분하다. 책방에일은 그림책 전문 서점으로, 그림책과 책방 문화를 좋아하는 이윤정 대표가 4년 전에 문을 열었다. 그는 소도시 생활에 감감함을 느끼던 중 직접 서점을 운영해 보기로 결심했다. 우드 톤에 블랙으로 포인트를 준 인테리어가 공간에 깊이를 더하는 곳, 책방에일에서는 앞의 여덟 가지 키워드로 큐레이션한 책을 판매하는 것은 물론, 매달 지역 작가의 그림책 전시도 연다. 이 대표의 어른을 위한 그림책 설명도 놓치지 말 것. 작가에 대한 배경 지식부터 책이 만들어지게 된 과정까지, 그의 나긋나긋한 목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책 속 이야기에 흠뻑 빠져들게 된다. 긴 테이بل과 간단한 음료를 준비해 두어 잠시 자리를 잡고 앉아 시간을 보내기에도 그만이다. 올해는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에 3일만 운영한다.

주소 세종시 조치원읍 죽림로 32-3 문의 0507-1362-7889



일제강점기 제지 공장의 재탄생 조치원 1927 아트센터

조치원역에서 도보 10분, 번잡한 시장통을 뒤로하고 좁은 골목을 걷다 보면 예상치 못한 공간이 발걸음을 멈춰 세운다. 조치원 1927 아트센터가 그 주인공. 일제강점기인 1927년, 산일제사라는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는 공장이 최초로 들어섰고, 이후 편물 공장과 조치원여고 교사 등을 거쳐 2003년까지 한림제지 공장이었던 이곳은 2022년 조치원 1927 아트센터가 들어서면서 완전히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유휴 공간 재생 사업을 통해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한 것. 20여 년간 정적이 감돌던 폐건물의 거친 콘크리트 벽은 이제 예술을 품은 캔버스가 되어 여행자를 기다리고 있다. 낮에는 브런치를, 밤에는 맥주를 즐기는 카페 헤이더에서 시작된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일본식 가옥을 개조한 학사동 갤러리로 이어진다. 건물 밖에는 100년의 역사를 증명하는 벽돌 굴뚝과 저유 탱크가 현대미술 작품과 조화를 이룬다. 덕분에 이곳을 오가는 이들은 자연스럽게 예술적 무대에 스며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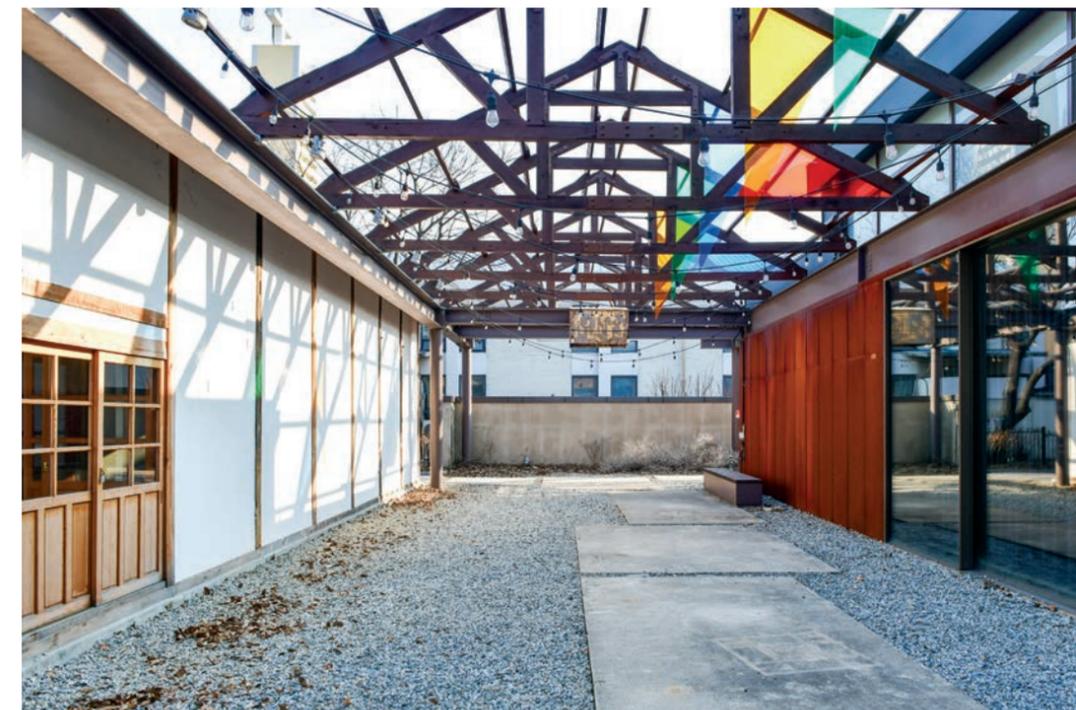
주소 세종시 조치원읍 새내4길 17 문의 044-862-1927



오리로 전하는 덕의 미학 덕윤당

“오리고기는 남이 먹고 있는 것도 빼앗아 먹으라 했어요!” 덕(duck)과 덕(德)으로 든든한 한 끼를 제공하는 퓨전 일식당 덕윤당으로 들어서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문구다. 덕윤당 최홍석 대표는 과거 천안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중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인해 담낭 절제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소화가 편한 음식을 찾다 오리고기의 매력에 빠진 것이 덕윤당으로 이어졌다. 마침 오리 농가가 많은 세종시는 그에게 기회의 땅이었고, 세종시 청년 창업 지원 사업 ‘로컬콘텐츠타운’ 선정이 사업의 동력이 됐다. 더욱이 조치원은 가금류 요리가 발달한 지역이자 ‘파달’의 발상지가 아니던가.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 어려운 특수 부위까지 쉽게 구할 수 있는 조치원은 최적의 입지였다. 최 대표는 오리고기의 잡내를 줄이기 위해 생강 대신 커피 물로 핏물을 제거했고, 덕분에 오리고기 특유의 고소한 맛이 극대화된 오리곰탕이 탄생했다. 덕윤당의 대표 메뉴는 오랜 시간 문근히 끓인 육수에 오리 차슈를 얹어 밥과 함께 내는 덕곰탕과 라면을 넣은 덕라면이다. 오리 한 마리당 딱 두 점만 나오는 특수 부위로 만든 쫄깃한 두점튀김, ‘겉바속촉’의 정석인 복오리고자 등 사이드 메뉴도 인기 있다.

주소 세종시 조치원읍 으뜸길 197 문의 0507-1358-52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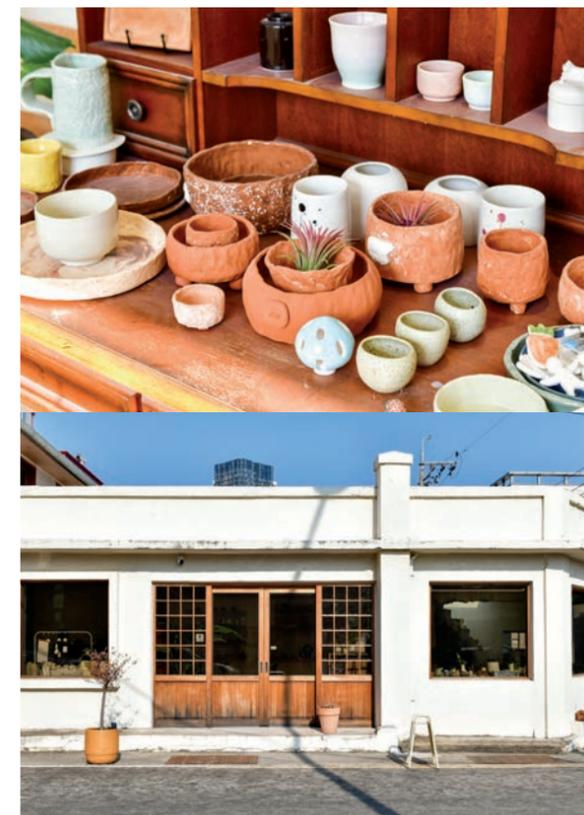




조치원에 모란이 피기까지는 스틸마스프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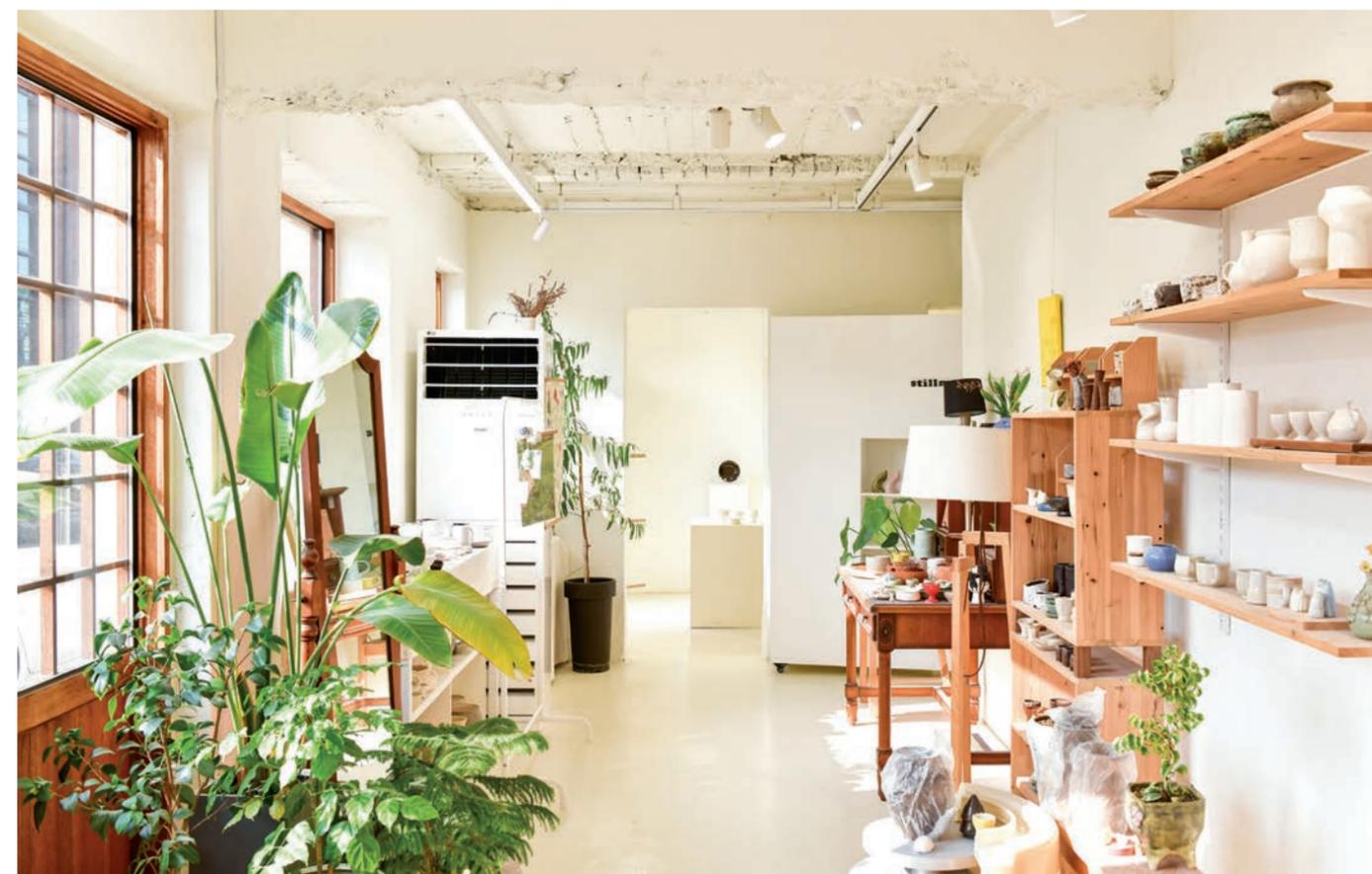
원도심의 매력은 미로 같은 골목과 높이가 낮고 모양이 제각각인 건물들에 있다. 규격화된 아파트 단지에서는 느낄 수 없는 불규칙한 리듬감이 걷는 이의 시선을 지루할 틈 없이 만들기 때문이다. 조치원역 바로 앞에 위치한 스틸마스프링은 원도심 여행을 더욱 흥미롭게 해 주는 도예 공방. 새하얗게 단장한 외관이 골목을 환하게 빛내고 있다. 김영랑 시인의 시 '모란이 피기까지는'의 "아직 나의 봄"이라는 구절에서 이름을 따온 이곳은 도예가 박지원 대표가 운영한다. 박 대표와 수강생들의 작품이 빼곡하게 늘어진 내부에는 소규모 갤러리와 클래스 공간이 자리한다. 예전 쌀 가게의 골조가 그대로 남아 있는 덕분에 갤러리와 작업실 사이를 오갈 때마다 시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힌다. 전시는 주로 지역 작가나 시각 예술가 위주의 작품으로 진행하며, 연말에는 수강생들이 한 해 동안 정성껏 빚은 작품을 선보인다. 원데이부터 정규반까지 다양한 클래스를 통해 누구나 흙을 만지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내 손으로 빚은 나만의 기념품을 만든다면 조치원 여행의 여운이 더욱 오래 남을 것이다.

주소 세종시 조치원읍 조치원2길 46 문의 0507-1315-5081



청과 거리 제2의 전성기 화양연화

조치원역 바로 옆 골목에는 '한글싱싱로'라 불리는 유서 깊은 청과 거리가 있다. 1905년 조치원역 개통 이후 지역 특산물인 복숭아와 배 등이 불티나게 팔려 나갔던 곳이다. 그로부터 한 세기가 훌쩍 지난 지금, 청과 상회 10여 곳만 남아 묵묵히 과거의 명맥을 잇고 있다. 고적한 기적 소리 너머로 까맣게 잊힌 옛 청과 거리의 추억이 되 살아난 건 3년 전, 핸드 드립 커피 전문점 화양연화가 들어서면서다. 1972년에 지은 목조건물로 옛 가정집 구조를 고스란히 간직한 화양연화에는 이상숙 대표의 어머니가 물려준 화장대를 포함해 오래된 빈티지 가구와 그릇, 아기가 지닌 소품이 가득하다. 꽃꽂이에 일가견이 있는 이 대표가 매일 계절과 날씨에 어울리는 꽃으로 카페를 장식해 연중 향기로운 꽃향이 나고, 꽃처럼 아름다운 시절을 뜻하는 '화양연화'란 이름처럼 젊은 여행자들의 발길이 이어져 활기가 넘친다. 화양연화에선 독서와 글쓰기 모임, 강연 등 다양한 행사도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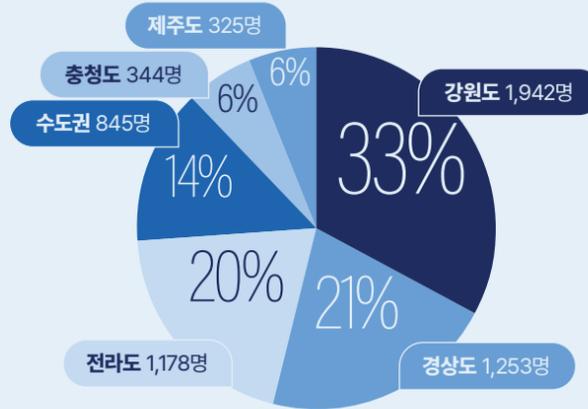
믿고 보는 <KTX매거진> “KTX 여행이 더 좋아졌어요”

KTX에 오르면 매달 새로운 얼굴로 승객을 맞이하는 기차 여행의 동반자, <KTX매거진>에 대한 독자들의 생각은 어떨까? <KTX매거진> 편집 팀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해 1월 23일까지 26일간 독자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총 5887명이 참여하며 큰 호응을 얻은 이번 설문 조사에서 '매우 만족한다'와 '만족한다'라고 답한 독자는 5642명으로 무려 96퍼센트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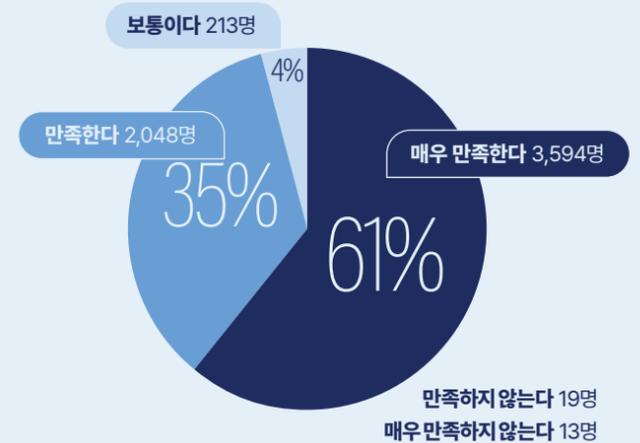
<KTX매거진>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기사를 묻는 질문에는 69퍼센트가 '여행지 소개'라 답했고, '미식&라이프 스타일'이 14퍼센트, '사진 화보'와 '문화 예술 칼럼'이 각각 8퍼센트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여행 테마는 '휴식'과 '자연'을 합쳐 64퍼센트로 큰 비중을 차지했고, 국내 여행지 중 선호하는 지역은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수도권, 충청도, 제주도 순으로 나타났다.

<KTX매거진>에 바라는 점을 묻는 질문에는 '전국의 숨은 여행지가 궁금하다' '혼자 여행하는 사람을 위한 숙소나 맛집을 소개해 달라' '테마별 여행 코스를 상세히 알려 달라' 등의 요청과 함께 '<KTX매거진>을 소장하고 싶다' '핸드폰 대신 <KTX매거진>을 보는 사람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같은 의견도 있었다. 더불어 '표지와 디자인, 기획을 리뉴얼하면서 매거진의 퀄리티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 '<KTX매거진>을 읽다 보면 다음 여행에 대한 그림이 저절로 그려진다' '지금처럼 좋은 잡지를 계속 만들어 달라' 등 응원의 메시지도 줄을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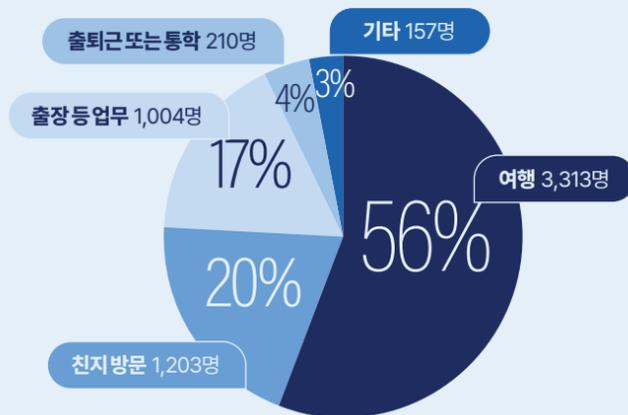
Q. 국내 여행 계획이 있다면 어느 지역으로 떠날 예정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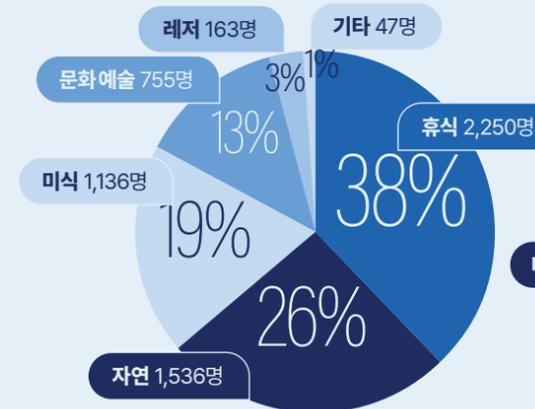
Q. <KTX매거진> 콘텐츠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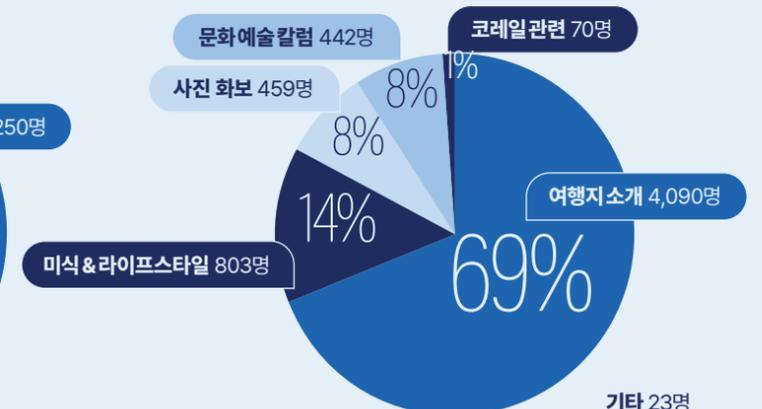
Q. KTX 등 코레일 열차를 이용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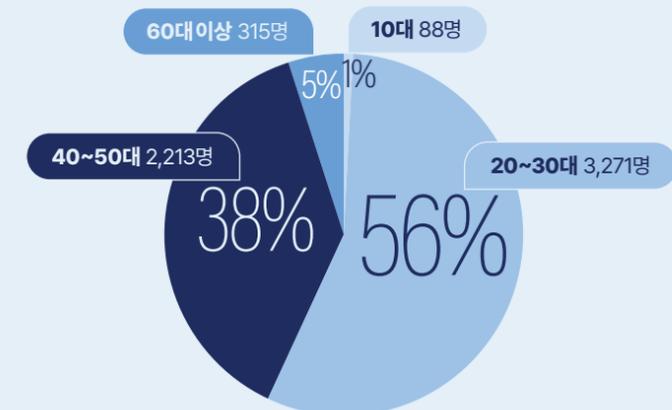
Q. 선호하는 여행 테마는 무엇입니까?



Q. <KTX매거진>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기사는 무엇입니까?



Q. 연령대를 선택해 주십시오.



당첨자 명단

신라스테이 3명

전주점 1박 숙박 + 2인 조식

최*지 0918

조*정 9694

김*훈 6905

파나소닉 헤어드라이어 7명

나노 케어 헤어드라이어

유*영 4156 부*진 6985 신*영 8594

이*영 1108 추*정 0831 최*연 2704

박*영 4771

파나소닉 무선청소기 10명

초경량 무선 청소기

길*진 1509 구*희 4276 김*리 3647 조*정 8440

장*빈 2226 김*영 0920 맹*영 0624 송*라 6785

배*진 0469 강*리 0416

*숫자는 전화번호 뒷자리입니다. 당첨자에게는 상품 수령에 관해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연극 <노인의 꿈>은 꿈을 향해 나아가는 두 노인을 비춘다. 누구나 꿈꿀 수 있다는 메시지가 관객에게 용기를 주는 작품이다.



꿈을 꾸는 건

남녀노소 불문이다



“당신의 꿈은 뭐가요?” 이 질문을 들어 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어느덧 꿈이라는 단어와 어울리지 않는 나이가 된 것 같다. 그러면서도 어린 조카들에게는 서슴없이 묻는다. “너는 꿈이 뭐야? 커서 뭐가 될 거야?” 인생의 목표라고 삼을 만한, 매우 거창한 일만 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꿈을 조금은 작게, 조금은 덜 거창하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연극 <노인의 꿈>은 소박한 꿈을 꾸는 두 노인을 통해 꿈꾸는 일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말한다.

웹툰을 흥미진진한 연극으로

연극 <노인의 꿈>은 동명의 웹툰을 바탕으로 한다. 원작의 주인공은 50세가 된 봄희. 어느 날 그가 운영하는 미술 학원에 심춘애 할머니가 찾아와 자신의 장례식에 영정 사진 대신 직접 그린 초상화를 사용하고 싶다고 말한다. 봄희는 처음에 난감하다는 반응을 보이지만 춘애와의 수업은 갈수록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깨닫는 시간이 된다. 한편 봄희의 아버지 상길은 전형적인 가부장적 인물로, 자신도 모르게 아내와 딸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쏟아낸다.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후에야 자신의 과오를 뉘우친 상길은 기타를 배워 아내와 딸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려고 한다. 봄희를 중심으로 춘애의 자화상과 상길의 기타 연주가 조금씩 완성되어 가지만, 시한부 판정을 받은 춘애는 그림에 자신의 이름을 사인하기 전 삶을 마감한다. 이후 봄희에게 전달된 편지를 통해 봄희의 의붓딸 꽃님의 외할머니가 춘애였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노인의 꿈> 원작은 정말 ‘착한 웹툰’이다. 봄희의 삶은 격랑에 휘둘리지만, 그저 그것이 인생의 순리인 듯 덤덤하게 그려 낸다. 이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웹툰에 비하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연극적으로 보면 폭발하는 갈등이 부재해 밋밋하게 다가온다. 그래서 무대화하는 과정에서 과감한 각색이 이루어졌다. 먼저 봄희가 살아온 삶의 여정을 생략했다. 10년을 만난 첫사랑도, 미술 학원 상가 상인들과의 관계도, 지긋지긋한 성장 과정도 지웠다. 그랬더니 사춘기 의붓딸과 데면데면한 갱년기 여성, 미술 학원 운영을 걱정하다가도 춘애와 상길을 생각하면 수도꼭지를 튼 것처럼 눈물을 흘리는 감성적인 사람이 되었다. 나름대로 슬한 풍파를 겪으며산 원작의 봄희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50대로 변했다. 결과적으로 작품의 보편성을 획득한 것이다.

봄희의 굴곡진 서사를 지우니 두 노인의 꿈이 전면적으로 강조된다. 어린 손녀 덕분에 신조어에도 능통한 춘애의 명랑함, 투덜대지만 진심을 전하고 싶어 하는 상길의 마음이 생생하

“나같은노인도 학생으로 받아주나요?”



게 살아난다. 춘애가 죽기 전 봄희에게 꽃님과 관계를 모두 이야기하는 장면을 추가해 둘의 관계가 소중하고 애틋하다는 사실도 드러난다. 봄희의 학생인 춘애가 인생에서는 스승이라는 점도 효과적으로 전달된다. 봄희가 상길과 충돌하고 감정이 폭발하는 장면, 꽃님과 춘애가 함께 인생네컷 사진을 찍는 장면, 상길이 아내의 묘비 앞에서 근사하게 기타를 연주하며 노래하는 장면 등은 원작을 변용하거나 새로 추가한 설정으로, 연극적 문법에 맞춰 인물들 간의 극적인 갈등과 분위기를 최대치로 이끌어 낸다. 이렇게 각색한 덕분에 관객은 ‘노인과 꿈’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지 충분히 공감한다.

커튼콜과 함께 펼쳐지는 봄희의 꿈

<노인의 꿈>의 무대는 단조롭다. 시공간이 수시로 바뀌는 서사를 고려해 단순한 무대로 상상력을 극대화했다. 무대의 크고 작은 창문이 눈에 띄는데, 창문 하나하나가 우리가 사는 모습을 상징하는 장치다. 무대 배경은 창문이 많은 상가가 되거나 주거 공간으로 변한다. 극이 전개되며 봄희의 미술 학원이 상길의 집 거실로 자연스럽게 바뀌기도 한다. 무대를 완성하는 요소 중 음악도 주목할 만하다. 상길이 답답하게 고백하듯 부르는 노래는 민찬홍 음악감독의 작업물로, 지나온 삶을 반성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가사를 담아 따뜻하고 잔잔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연극이 막바지에 이르며 봄희는 춘애의 죽음을 계기로 생긴 꿈을 실행에 옮긴다. 춘애가 지

불한 거액의 수강료로 심춘애복지재단을 설립한 것이다. 어두운 객석에 불이 켜지고 커튼콜이 시작되는데, 이때 봄희의 꿈이 조금씩 무대에 펼쳐진다. 공연이 끝나며 꿈도 사라졌다고 생각한 순간, 꿈은 항상 존재하고 뜻밖의 순간에 실현된다는 메시지를 관객에게 전한다. 배우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치던 관객들은 봄희의 꿈이 눈앞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며 감동의 박수를 두 배로 보낸다.

이 작품에는 여러 세대의 배우가 출연한다. 원로 배우 김영옥·김용림·손숙은 물론, 하희라·이일화·신은정 등 실력 있는 중견 배우도 제각각 매력을 뽐낸다. 김영옥·하희라 배우가 춘애와 봄희로 호흡을 맞추고, 남경읍 배우가 기타를 든 상길로 등장하는 무대에서는 역할의 비중이 상관없이 모든 배우가 빛난다. 연륜이 느껴지는 김영옥·남경읍 배우가 무게중심을 잡고, 하희라 배우가 작품에 생기를 더한다. 꽃님 역을 맡은 진지희 배우도 사랑스러운 인물을 만들어 냈는데, 좋아하는 선생님 봄희가 엄마가 된 어정쩡한 상황에서 어쩔 줄 몰라하는 감정을 세밀하게 표현해 몰입감을 높였다. 상길의 사위 채운을 연기하는 윤희석 배우의 순박한 웃음은 극의 긴장감을 풀어 준다. 그리고 춘애·봄희·꽃님의 어린 시절을 모두 연기한 아역 배우 박채린의 능수능란한 연기도 빼놓을 수 없다. 역시 연극은 배우의 예술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다.

꿈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계속하고 싶거나 좋아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꿈이 될 수 있다. 춘애의 자화상 그리기, 상길의 기타 연주와 노래가 누군가에게는 사소해 보이겠지만, 그것에 도달하는 과정은 충분히 즐겁고 가치 있다. 연극 <노인의 꿈>은 잊고 지낸 꿈과 쉽게 행복해지는 법을 연극적으로 잘 담아냈다. 그리고 보니 춘애의 춘, 봄희의 봄, 꽃님의 꽃! 꿈꾸는 것은 꽃이 가득한 봄을 의미하나 보다.



<노인의 꿈>

수많은 독자의 마음을 울린 웹툰 <노인의 꿈>이 연극으로 재탄생했다. 원작의 주인공인 미술 학원 원장 봄희 역에 하희라·이일화·신은정이 출연하고, 영정 사진 대신 사용자 자화상을 그리고 싶다는 학원을 찾아온 노인 춘애 역은 김영옥·김용림·손숙이 맡아 열연한다. 현실적이면서도 동화같은 이야기가 무대 위에 펼쳐져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작품이다.

기간 1월 9일~3월 22일

장소 서울 LG아트센터

제2의 전성기 맞은 셰프 방송

요리 실력뿐 아니라 방송 센스까지 갖춘 스타 셰프들로 방송계가 뜨겁다.



MBN | 2월1일(일) 밤 9시 40분 첫방송



셰프들이 화려하게 돌아왔다. 대한민국은 2010년대 중반, 스타 셰프들과 함께 '요리 프로그램 대항해 시대'를 맞았으나, 권불십년이라는 말처럼 2020년대에 들어서 다소 주춤한 상태였다. 셰프들의 '쿱방' 대신 인기 유튜브를 앞세운 '먹방'이 대중의 관심을 끌었던 상황. 그러다 2024년에 등장한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이하 흑백)이 판도를 바꿨다. 전례 없던 톨과 압도적인 스케일로 진행되는 이 서바이벌 요리 예능은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 되었고, 화제의 중심에 선 셰프들도 각자의 캐릭터와 서사를 어필하며 인기를 끌었다. 올해 초 중영한 시즌 2의 여파도 현재 진행형. 침체된 외식업계가 기지개를 켜고, 셰프와의 협업으로 유통업계도 웃음꽃이 피었다. 트렌드에 민감한 방송계가 이 흐름을 놓칠 리 없다. 셰프를 주축으로 하는 요리 프로그램이 제2의 전성기를 맞은 것이다.

'흑백'이 쏘아 올린 셰프 예능

물 들어올 때 노 저으겠다고, 흑백 시즌 1 방영 이후 방송계는 셰프를 전면에 내세운 프로그램을 대거 제작하기 시작했다. <정글밥2-페루밥> <정글밥2-카리브밥>(SBS)에서 각각 최현석과 윤남노 셰프를 영입했고, 최강록 셰프와 유튜브 문상훈이 나선 <주관식당>(넷플릭스), 셰프들의 단골집을 찾아 이야기를 풀어낸 <셰프의 이모집>(디즈니+), <복면가왕> 콘셉트를 결합해 도전자와 셰프들이 요리 실력을 겨루는 <마스크셰프>(채널A), 동네 셰프의 손맛에 스타 셰프의 한 곳을 더해 상생을 꾀한 <셰프의 손길 완벽 한끼>(채널A), 연예인 유튜브 선우용어가 셰프들에게 요리를 배우는 <용여한끼>(tvN STORY) 등이 지난해 선보인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추세는 2026년에도 계속된다. 에드워드 리 셰프와 추성훈을 조합한 <셰프와 사냥꾼>(채널A)이 올해 요리 예능의 포문을 열었고, 권성준 셰프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천하제빵: 베이킹 유어 드림>(MBN, 흑백 시즌 2에서 사찰 음식의 진가를 알린 선재 스님을 포함해 명장 스님 6명을 모은 <공양간의 셰프들>(웨이브)을 차례로 선보였다. 뭐니 뭐니 해도 최대 수혜자이자 가장 강렬한 시너지를 일으키는 건 <냉장고를 부탁해>(JTBC)일 것이다. '원조 국민 쿱방' <냉장고를 부탁해>는 흑백이 불을 지핀 거대한 흐름에 힘입어 'since 2014'라는 꼬리표를 달고 5년 만에 부활했다. 최현석·샘 킴·정호영 셰프 등 기존 멤버와 손종원·윤남노·권성준·박은영 셰프로 구성된 신규 멤버가 환상의 신구 조합을 이루는 동시에 흑백의 유행어와 에피소드, 관계성을 최대한 끌어올리며 제대로 노를 젓는 상황이다.

플랫폼을 확장한 셰프 예능

흥미로운 건 유튜브 같은 뉴미디어 플랫폼에서의 셰프 활용법이다. 기존 방송은 제작 여건과 편성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검증된 방송 문법을 따르기 마련이다. 반면 유튜브에서는 보다 직관적으로 셰프의 캐릭터성과 서사에 집중해 독특한 콘텐츠를 만들어 낸다. 대표적인 것이 최강록 셰프의 식재료 탐방기 <식덕후>다. 제작사 테오(TEO)가 선보인 이 웹 예능은 느릿느릿하지만 할 건 다 하는 최강록 셰프의 톤 & 매너를 충실히 담아내며 예능과 다큐멘터리의 경계를 오간다. 화려한 볼거리나 게스트는 찾아

볼 수 없고, 비정기적인 업로드 날짜 등 기존 예능에서는 쉽지 않은 형식임에도 최강록의 매력을 덕질하는 팬덤을 중심으로 '유투브계의 리틀 포레스트'라는 호평과 함께 편당 100만 회가 넘는 조회 수를 기록 중이다. 흑백 제작사인 스튜디오 슬램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선보이는 웹 예능 <윤남노포>도 눈여겨볼 만하다. 흑백이 낳은 최고의 방송 아웃풋으로 꼽히는 윤남노 셰프를 내세운 이 콘텐츠는 예전의 인기 프로그램 <한끼줍쇼>와 초창기 <유 퀴즈 온 더 블록>을 결합한 형태를 취한다. 윤남노 특유의 낙살과 차진 리액션, 그리고 먹방 유투버 못지않은 음식에 대한 진심이 빛을 발하며 <윤남노포>는 많은 이들의 '밥친구'로 사랑받고 있다. 마찬가지로 스튜디오 슬램이 제작하는 유투브 채널 '셰프 안성재'도 풍성한 흑백 비하인드 에피소드와 함께 안성재의 매력을 '이쁘하게' 보여 주며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자녀들과 함께 '두쫘쿠'를 만들었다가 전 국민의 원성을 샀던 영상에는 1만 개가 넘는 댓글이 달릴 정도. 뒤이어 발 빠르게 올린 '두쫘쿠 A/S 영상' 역시 900만 회가 넘는 조회 수를 기록할 만큼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흑백 시즌 2 방영 시기에 스펀오프 <흑백 애프터서비스: 암흑요리사>로 흥미를 배가시킨 넷플릭스 코리아 유튜브 사례처럼, 뉴미디어는 앞으로 스타 셰프들을 다채롭게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대중의 반응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고, 셰프의 매력을 다각도로 극대화하기 용이한 플랫폼이란 점에서 뉴미디어와 셰프 예능의 공합은 더욱 좋아 보인다.

K-푸드 인기와 함께하는 셰프들

플랫폼의 확장과 함께 눈에 띄는 또 하나의 변화는 'K-푸드'로 명명되는 한식의 인기에 셰프들을 적극 소환한다는 점이다. 드라마 <폭군의 셰프>,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등 한식이 부각된 프로그램의 인기와 맞물려 K-푸드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우상향 중이다. 자연히 한식과 한식 문화를 들여다보는 특집 프로그램이 늘었는데, 인지도가 쌓인 스타 셰프들이 함께하면서 친근함과 신뢰를 더하고 있다. 이젠 스타 셰프가 K-푸드 홍보대사로 활약할 조짐이다. 지난 1~2월에 방영한 <이모카세 김미령의 최고의 재료>(JTBC), 안성재 셰프와 함께 김의 경쟁력을 들여다본 <K-GIM(김) 레볼루션>(MBC),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함께 제작하고 배우 장근석과 흑백 출연 셰프들이 참여한 <밥상의 발견>(MBC) 같은 특집 다큐멘터리가 대표적. 음식뿐 아니라 셰프도 K-푸드의 주축이란 점에 주목한 <더 코리안 셰프>(SBS)도 눈길을 끈다. 현재 국내 유일의 미슐랭 3스타 강민구부터 흑백으로 이름을 알린 '요리 괴물' 이하성 셰프까지, 파인 다이닝의 최전선을 이끄는 셰프들의 현실을 밀착 조명해 흑백과는 또 다른 결의 인상을 줬다는 평이다. 스타 셰프들은 하나의 브랜드이자 강력한 인적 IP로 자리 잡고 있다. 끊임 없이 새로운 얼굴을 원하는 방송계에서 음식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방송 감각까지 갖춘 셰프들을 반기지 않을 이유가 없다. 단, 오랜 기간 대중의 심판대에 놓인 바 없기에 흑백 시즌 1, 2 이후 불거진 일부 셰프들의 사생활 논란이나 과거 이력 문제처럼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스타 셰프들을 활용한 방송 제작의 흐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NEWS



카시아 속초
봄의미각깨우는
'스프링미식프로모션' 개시

카시아 속초가 싱그러움 봄정취를 담은 한정 미식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먼저 뷔페 레스토랑 '비스타'에서는 봄나물과 해산물, 허브 등 제철 식재료로 구성한 스프링 시즌 뷔페를 운영하고, 클래식 바 '보스코'에서는 송사탕 가니시를 더한 '핑크클라우드', 온더룩스타일의 '카카오 블라썸' 등 감각적인 봄 캐릭터일을 마련했다. 카페 & 레스토랑 '호라이즌'에서는 프리미엄 말차 파우더를 활용한 말차코코, 말차 피즈 등 다섯 종의 음료를 낸다.

홈페이지 cassiasokcho.co.kr



호주 골드코스트 관광청
신규 국제 인센티브 캠페인 추진

호주 골드코스트 관광청이 동남아시아, 인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고부가가치 인센티브 행사 시장 선점을 목표로 신규 국제 인센티브 캠페인을 공식 론칭했다. 프로그램은 2027년 6월 30일까지 골드코스트 방문을 계획 중인 중소 규모 인센티브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70~250명 규모의 대표단으로, 현지에서 2박 이상 머물며 공식 회의 또는 기업 행사를 포함한 일정을 운영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참가자 1인당 최대 70호주 달러의 인센티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홈페이지 experiencegoldcoast.com/business-events



홍콩관광청
선과함께한
'홍콩아웃도어데스티네이션' 공개

홍콩관광청이 유튜브 채널 '선과함께'와 협업해 러닝으로 자연과 도심에 있는 '홍콩 아웃도어 데스티네이션'의 여정을 소개했다. 코스는 홍콩섬 남동부에 위치한 드래곤스백에서 시작해 빅웨이브베이 일대의 해안선을 거쳐 침사추이와 완차이 일대의 시티러닝 코스로 이어진다. 영상에는 '2026 스탠다드차타드 홍콩 마라톤' 현장 모습도 담겼다. 올해로 45회를 맞은 이 대회는 홍콩 도심의 고가도로와 해저 터널, 해안 도로를 잇는 독특한 코스로 알려져 있다.

홈페이지 discoverhongkong.com/kr

VIDEO

〈극장의 시간들〉

이종필·윤가은·장건재 감독이 만든, 세 편의 단편을 모은 앤솔러지. 영화를 사랑한다는 공통점으로 한 시절을 함께 보낸 친구들, 한편의 영화를 만들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배우와 스태프들, 오랜만에 찾은 극장에서 재회한 동창의 이야기까지, 각기 다른 에피소드는 누구나 하나쯤 갖고 있을 법한 극장에 대한 추억을 환기한다. 3월 18일 개봉.

출연 김대명, 고아성 감독 이종필, 윤가은, 장건재

〈호퍼스〉

동물과 자연을 사랑하는 소녀 메이블은 할머니와의 추억이 깃든 연못이 사라질 위기에 놓이자 이를 지키기 위해 나선다. 사람의 의식을 동물 로봇으로 옮기는 '호핑' 기술을 우연히 체험한 메이블은 로봇 비버가 되어 동물 세계에 잠입한다. 4DX 포맷으로 구현한 역동적인 어드벤처는 관객에게 생생한 몰입감을 선사한다. 3월 4일 개봉.

목소리 출연 파이퍼 쿠르다, 바비 모니한 감독 다니엘 총

〈매드 댄스 오피스〉

완벽해야만 살아남는다고 믿으며 홀로 딸을 키워 온 공무원 국회, 승진을 도둑맞은 그는 딸과의 연락마저 끊기자 삶이 한순간에 흔들린다. 그때 운명처럼 만난 플라멩코 댄스는 국회에게 뜻밖의 전환점이 된다. 영화는 삶의 균열을 마주한 한 사람이 춤을 통해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아가는 과정을 섬세하게 그려낸다. 3월 4일 개봉.

출연 염혜란, 최성은 감독 조현진

〈프로젝트 헤일메리〉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영화 <마션>의 원작자인 앤디 위어의 동명 소설이 영화로 재탄생했다. 기억을 잃은 채 우주 한복판에서 눈을 뜬 과학 교사 그레이스는 인류를 구할 마지막 임무를 떠맡게 된다. 지구의 종말이라는 위험이 닥친 상황에서 그는 과학적 지식을 총동원해 해답을 찾아가고, 과연 그는 인류의 미래를 지켜 낼 수 있을까. 3월 18일 개봉.

출연 라이언 고슬링, 산드라 휠러 감독 필로드, 크리스토퍼 밀러

〈늑나무의 파수꾼〉

일본 추리소설의 거장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을 애니메이션 영화로 만든 작품이 국내 관객을 만난다. 미지의 힘을 지닌 늑나무와 밤마다 이 나무를 찾는 이들 사이에 감춰진 비밀을 파헤치는 파수꾼의 이야기를 그린다. 몽환적인 작화와 신비로운 음악을 더해 원작이 지닌 정서를 한층 풍부하게 확장하며 스크린 위에 새로운 감동을 펼쳐 보인다. 3월 개봉.

목소리 출연 타카하시 후미야, 아마미 유키 감독 이토 토모히코



©(주)엔케이콘텐츠

시간을 기어오르는 나무

〈너에게 안녕을 말할 때〉

혼자 움직이지 못하는 중증장애아를 키우며 어머니가 버려 온 시간을 지나, 무너진 일상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과정을 담은 이명희 작가의 신작 에세이다. 인생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 좌절하고 있는 이들에게 작가는 선부른 위로 대신 담담한 희망을 건넨다. 불안과 불완전 속에서도 누구나 회복할 힘을 지니고 있고, 중요한 건 감사할 일이 있느냐가 아니라 감사할 결심이라고 말한다.

이명희 지음 샘터 펴냄

〈아주 작은 태도의 차이〉

철학자 시라토리 하루히코가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태도에 관한 이야기를 전한다. 오늘이 어제와 다르지 않고, 내일은 오늘보다 못할 것 같아 막막했던 과거의 나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47가지 당부를 짧은 말로 정리했다. 명쾌한 어조로 새 내러간 문장을 따라가다 보면 굳게 믿어 온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시라토리 하루히코 지음 클로츠 펴냄



Information.

168 코레일 소식 · 170 편의 시설 및 부가 서비스 · 172 열차이용 안내 · 174 비상시 행동 매뉴얼

제16회 철도사진공모전 입선 '진주 판복동 철길' © 정한호



KTX

코레일이 전하는 새로운 이야기



한국철도공사 철도 이용객 역대 최대



지난해 KTX와 일반 열차를 이용한 탑승객이 1억 4624만 명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이는 2024년 대비 144만 명이 증가한 수치다. 동해선, 교외선, 목포보성선 등 신규 노선을 확대해 지역 간 연결성을 높인 효과가 크게 작용했다. 방한 여행객을 대비해 철도 서비스를 확대한 영향으로 외국인 철도 이용객도 600만 명을 돌파했다.

한국철도공사-에스알 시범 교차 운행 대비 시운전



지난 2월 3일부터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이 실제 영업 노선에서 시운전을 시행했다. 열차와 선로 간 적합성, 영업 설비 호환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KTX가 수서역, SRT가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시범 교차 운행에 앞서 진행한 것이다. 시범 교차 운행은 현재의 공급 좌석과 운임 체계를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조기 안착과 검증에 주력할 계획이다.

'지역사랑 철도여행' 누적 이용객 26만 명 달성



2024년 8월에 출시한 '지역사랑 철도여행'은 협약을 맺은 인구 감소 지역 42곳의 열차 운임 50퍼센트 할인과 관광 명소 체험 혜택 등을 결합한 상품이다. 지난해 한 달 평균 이용객이 판매 첫째 대비 2배 늘었으며, 누적 이용객은 26만 명을 달성했다. 기차 여행으로 전북 남원, 경남 밀양, 충북 영동 등 인구 감소 지역의 방문객 수도 증가했다.

'코레일 MaaS' 1700만여 건 이용



철도 기반의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 '코레일 MaaS'의 지난해 이용 건수가 1708만 건을 기록했다. 운행 중인 열차의 현재 위치와 예상 도착 시간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열차 위치'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했고, 철도역 주차장의 주차 요금을 미리 결제하고 혼잡도를 확인할 수 있는 '주차 정산' 이용 건수가 그다음으로 높았다.



제17회 철도 사진공모전

내가 바라본 철도의 아름다움

2.6. ~ 4.26.



· 공모주제

내가 바라본 철도의 아름다움

· 시상내역

- 금 상(1점) : 사장표창 및 300만원
- 은 상(2점) : 사장표창 및 200만원
- 동 상(3점) : 사장표창 및 100만원
- 특별상(5점) : 40만원
- 입 선(20점) : 20만원

* 특별상은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 중에서 선정

· 접수기간 및 발표 일정

접수 : 2026.2.6.(금) ~ 2026.4.26.(일) 18:00
발표 : 2026.6.1.(월)

· 접수방법

디지털 사진으로 1인 3점 이내 미발표작
온라인 이메일 접수 (korailphoto@naver.com)

* 파일용량은 3MB이상, (3000·2000)Pixel 이상의 촬영정보(EXIF)가 포함된 JPG(JPEG)

* 촬영정보(EXIF) 내 촬영 기종 정보 포함 필수

일반 객실 Passenger Compartment

<p>좌석 간격 Seat Space</p>  <p>KTX는 930mm, KTX-산천은 980mm, KTX-산천(원강)과 KTX-이음, KTX-청룡은 960mm입니다.</p>	<p>등받이와 시트 조절 Seat Adjustment</p>  <p>의자 팔걸이 버튼을 누르면서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시트를 앞으로 미십시오.</p>	<p>이동통신망 Free Wireless Internet Service</p>  <p>열차 내에서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p>	<p>충전용 콘센트 & USB 포트 Socket & USB Port</p>  <p>열차 내에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p>
--	---	--	---

특실 서비스 First Class Service

<p>좌석 간격 Seat Space</p>  <p>KTX와 KTX-산천은 1120mm, KTX-산천(원강)과 KTX-이음, KTX-청룡은 1060mm입니다.</p>	<p>등받이와 시트 조절 Seat Adjustment</p>  <p>의자 팔걸이 버튼을 누르면서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시트를 앞으로 미십시오.</p>	<p>식음료 Refreshment</p>  <p>특실 이용객을 위한 셀프 서비스 물품은 KTX 3·4호차와 KTX-산천 4·14호차에 있습니다.</p>	<p>신문 Newspaper</p>  <p>특실 이용객을 위한 신문은 KTX 3·4호차와 KTX-산천 3·13호차에 비치되어 있습니다.</p>
--	--	--	--

열차 지연 배상 안내

천재지변을 제외한 한국철도공사 귀책 사유로 KTX 및 일반 열차(ITX-새마을, ITX-마음, 누리로, 무궁화호, ITX-청춘)가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 정한 금액을 배상해 드립니다(지연 승낙 승차권 제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지연 발생 시 익일 자동 배상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지연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전국역 또는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코레일톡 계좌 이체 신청

KTX 및 ITX-청춘 N카드 이용 안내

모바일 앱 할인 카드인 N카드를 구간과 횟수를 지정해 구입하면 승차권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KTX 및 ITX-청춘을 자주 이용하시는 고객님은 해당 할인 카드로 교통비를 절감해 보세요!

구입 경로 및 이용 안내
코레일톡 앱 → 하단 할인·정기권 탭 → N카드(안내는 ①참고)

*** 자세한 사항은 철도고객센터(1588-778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의 시설 Amenities

<p>화장실 Restroom</p>  <p>KTX 1·2·4·6·8·13·15·17·18호차와 KTX-산천 3·5·6·8·13·15·16· 18호차, KTX-이음 1·6호차, KTX-청룡 1·4·6·8호차, ITX-새마을 1·4·6호차, ITX-마음 3·7호차, ITX-청춘 3·6호차에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p>	<p>장애인 관련 시설 For the Handicapped</p>  <p>전동휠체어석과 장애인용 화장실은 KTX 2호차와 KTX-산천 1·11호차, KTX-이음 3호차, KTX-청룡 3호차, ITX-새마을 3호차, ITX-마음 1·5호차, ITX-청춘 3호차에 있습니다.</p>	<p>수유실 Breast-Feeding Room</p>  <p>유아 동반 고객을 위한 수유실은 KTX 8·16호차와 KTX-산천 4·14호차, KTX-이음 4호차, KTX-청룡 6호차, ITX-새마을 6호차, ITX-마음 3·7호차, ITX-청춘 6호차에 있습니다.</p>	<p>물품 보관소 Luggage Storage Section</p>  <p>각 객차에 위치한 수화물 보관대에 여행용 가방 등 큰 물건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p>
<p>자동심장충격기 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p>  <p>자동심장충격기는 KTX 4·10· 15호차와 KTX-산천 4·14호차, KTX-산천(원강) 7·17호차, KTX-이음 3호차, KTX-청룡 3호차, ITX-새마을 3호차, ITX-마음 1·5호차, ITX-청춘 3호차에 마련되어 있습니다.</p>	<p>자동판매기 Vending Machine</p>  <p>음료 및 스낵 자판기는 KTX 5·9·11· 13·16호차와 KTX-산천 6·16호차, KTX-산천(원강) 3·6·13·16호차, KTX-이음 3·4호차, KTX-청룡 2·3·5호차, ITX-새마을 3·4호차, ITX-마음 2·6호차 지정 장소에 있습니다.</p>	<p>의약품 First-Aid Medicine</p>  <p>KTX 열차 내에 상비약이 준비되어 있어 승무원에게 요청하면 필요한 약품을 제공합니다.</p>	<p>금연 No Smoking</p>  <p>역 승강장과 열차 안은 모두 금연 구역입니다. 안전한 열차 운행과 건강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p>

1분 열림 버튼
Open-Button(1mins)

1분 열림 버튼 The Button to Open the Door for 1 Minute
각 객실 출입문 위쪽에 위치하며, 누르면 1분 동안 문이 열립니다.

KTX 공항버스



6770번, 광명역 ↔ 인천국제공항(T1, T2)

운행 시간

광명역: 오전 5시 20분~오후 8시 20분(20~30분 간격)

인천국제공항(T2 기준): 오전 6시~오후 10시 5분(20~30분 간격)

소요 시간 T1 ↔ 광명역: 약 50분, T2 ↔ 광명역: 약 70분

타는 곳 광명역: 서편 4번 출구 4번 정류장

인천국제공항: T1 1층 8B번, T2 지하 1층 45번 정류장

승차권 구입

인천국제공항 → 광명역: 인천국제공항 버스터미널 매표 창구,

티머니GO 모바일 앱

광명역 → 인천국제공항: 전국기차역 매표 창구, 코레일톡 앱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길라잡이

Rail+

철도 회원이 KTX 승차권을 레일플러스 교통카드로
구매 시 1퍼센트 추가 적립,
모바일카드는 KTX 마이리지 전환 사용 가능

교통카드 구매처 편의점(CU, 이마트24, 스토리웨이)

모바일카드 다운로드 '레일플러스' 스마트폰 앱(Android)

사용처 전철, 버스, 기차, 택시, 유료 도로, 편의점 등

충전처 전철·기차역, 편의점(CU, 이마트24, 스토리웨이) 등

*** 자세한 사항은 레일플러스 홈페이지(railplus.korail.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차권 구입

- 열차 출발 1개월 전부터 열차 출발 20분 전까지(코레일톡은 열차 출발 전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결제 금액 5만 원 이상 시 신용카드 할부 결제가 가능합니다.
- 결제 후 스마트폰 승차권, 홈티켓으로 직접 발급할 수 있습니다.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 '코레일톡' 스마트폰 앱 승차권 자동 발매기

기차역 내 창구 또는 승차권 판매 대리점 '네이버' '카카오' 스마트폰 앱

승차권 반환

- 승차권 반환 시에는 환불 청구 시간, 승차권에 기재된 출발역 출발 시간 및 영수증 금액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구분	1개월~출발 2일 전까지	출발 1일 전까지	출발 당일		출발 후		
			3시간 전까지	3시간 전 경과 후~출발 시간 전까지	20분까지	20분 경과 후~60분까지	60분 경과 후~도착 시간 전까지
월~목요일		무료		5%	15%		
금~일요일 공휴일 명절	400원	5%	10%	20%	30%	40%	70%

Ticket Booking

- Tickets can be purchased one month in advance and up to 20 minutes before departure(before departure in KORAIL Talk application).
- Installment option available if paying more than KRW 50,000 by credit card.
- Tickets issued as smartphone ticket or home ticket after payment.

KORAIL Website(www.korail.com) KORAIL Talk Mobile App Ticket Vending Mach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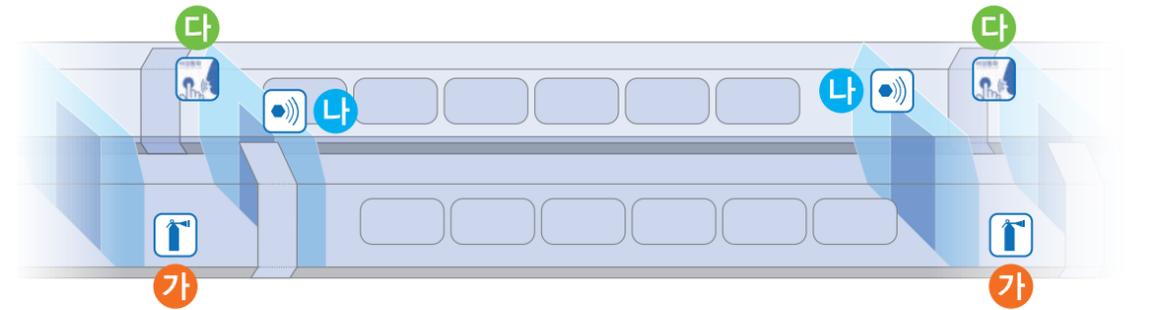
Ticket Booth or Ticket Retailer NAVER-KAKAO T Mobile App

Ticket Refund

- Ticket refund value is calculated based on the time of refund claim, departure time specified on the ticket, and original price of ticket on the receipt. Note that a service charge appl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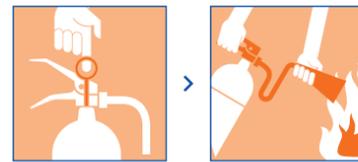
Classification	1 month-2 day prior to departure	1 day prior to departure	Day of departure		After Departure		
			3 hours prior to departure	3 hours-before departure time	Up to 20 minutes	20-60 minutes	60 minutes-arrival time
Mon-Thu		Free		5%	15%		
Fri-Sun, holidays	KRW 400	5%	10%	20%	30%	40%	70%

비상 상황 Emergency Procedu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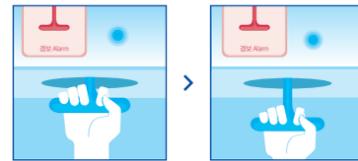
가 소화기 사용 요령 How to Use a Fire Extinguisher

- 승강문 옆 소화물실 아래에 있는 소화기를 꺼내 안전핀을 뽑는다.
Take out the fire extinguisher from the box next to the exterior door and pull the pin.
- 불이 난 장소에 골고루 분사한다.
Spray evenly at the area that is on fire.



나 비상 알람 장치 Emergency Alarm

- 객실 내부 출입문 상단의 적색 손잡이를 아래로 당긴다.
Pull down the red emergency alarm handle located at the upper part of the interior door.
- 비상 경보음이 객실 전체에 울린다.
The emergency alarm goes off.



다 승무원 통화 장치 Contacting the Train Cr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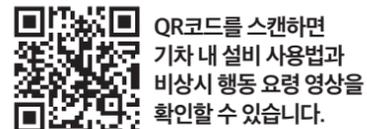
KTX | KTX 산천 | KTX 이음 | KTX 청룡

- 승강문 옆의 버튼을 누른다.
Press the intercom button next to the exterior door.
- 승무원이 응답하면 상황을 알린다.
Notify the train crew of the situation.



ITX 새마을 | ITX 마음 | ITX 청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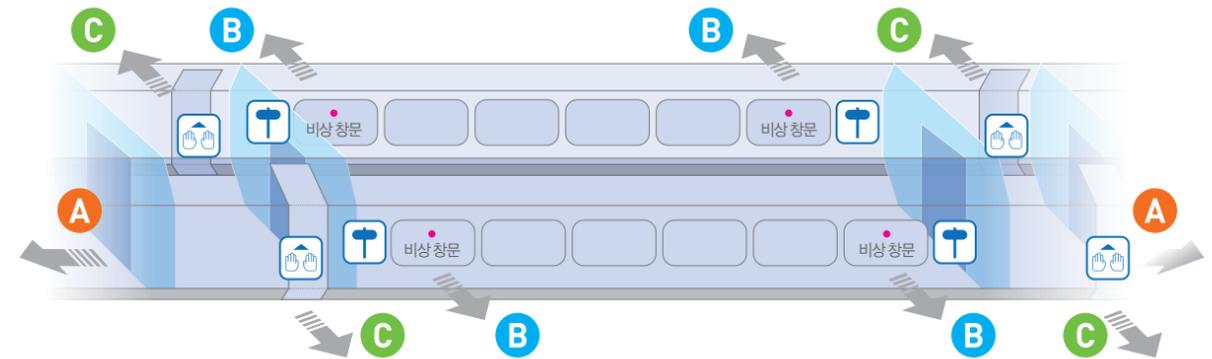
- 승강문 옆 또는 객실 안에 있는 승객용 비상 호출기 커버를 연다.
Open the emergency intercom box beside at the door or inside the car.
- 마이크를 꺼낸 후 적색 램프가 켜지면 마이크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상황을 알린다.
Take out the microphone. Once the red light is on, press the button on the left of the microphone and inform the situation.



QR코드를 스캔하면
기차 내 설비 사용법과
비상시 행동 요령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상 탈출 Emergency Escape Route



A 다른 객차로 대피 Escape to an Unaffected Car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다른 객차로 안전하게 대피한다.
부상자, 노약자, 임산부가 먼저 피신할 수 있도록 돕는다.
Follow instructions of the train crew and move to an unaffected car. Provide assistance to evacuate wounded, elderly people and pregnant women first.

A 터널 탈출 요령 Escape from a Tunnel

터널 내 비상사태 시 자세를 낮추고 비상 유도등을 따라
가까운 터널 입구로 탈출한다.
Follow the emergency exit light to go out the tunnel exit.

A 비상 사다리 위치 Emergency Ladder Location

KTX: 5호차, 14호차 | KTX-산천: 2호차(일부 편성 4호차)
KTX-이음: 1호차, 6호차 | KTX-청룡: 1호차, 8호차 | ITX-새마을: 4호차
ITX-마음: 2호차, 4호차, 6호차, 8호차

B 비상 창문을 통한 탈출 Escape through Emergency Window

- 승강문 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객실 양쪽 끝에 있는 비상 탈출 망치의 보호 커버를 깨고 망치를 꺼낸다.
If you cannot escape through the exterior door,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hammer box at both ends of each car and take out the hammer.
- 양 출입문 쪽에 있는 비상 창문 유리를 망치로 깨고 옷으로 창틀을 덮은 후 그 위로 나간다.
Break the emergency window at both ends of each car and exit. Put clothing over the windowsills to protect yourself from broken glass.



C 승강문을 통한 탈출 Escape through Exterior Do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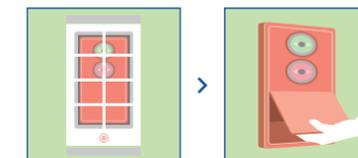
KTX

- 승강문 옆 위쪽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고 위 손잡이를 아래로 돌린다.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release levers next to the exterior door and pull the upper handle down.
- 아래 손잡이를 앞으로 당기고 승강문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lower handle down and push the do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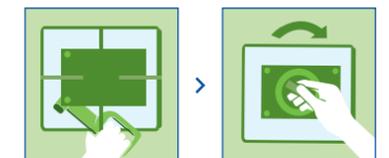
KTX 산천 | KTX 이음 | KTX 청룡 | ITX 마음

- 승강문 옆 위쪽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다.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release level next to the exterior door.
- 핸들을 2회 당기고 승강문을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handle twice and push the door.



ITX 새마을 | ITX 청춘

- 승강문 옆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다.
Break open the emergency door release box.
-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승강문을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sh door forward and to the side.





음악 듣기

팔칠댄스와 떠나는 음악 여행

여유로운 무드의 팔칠댄스 음악을 따라 다음 계절로 유연하게 넘어간다.
느긋하게 리듬을 타며 성큼 다가온 봄을 맞는다.



팔칠댄스
비더블루(보컬), 박성호(기타), 최준영(베이스), 이정열(드럼)로 구성된 밴드. 87BPM으로 만든 곡명을 따 그룹명을 지었다. 2019년 EP 앨범 <Palchilldance>로 데뷔해 몽환적인 분위기의 로파이 음악, 강렬한 신스 사운드, 세션들의 독특한 연주 방식을 지향하며 활동을 이어간다. 대표곡으로 '청색동경' '사프란' 'Beautiful Complex' 등이 있다. 지난 1월 태국, 일본, 대만을 순회하는 첫 아시아 투어를 마쳤다.

여유로운 하루에 어울리는 플레이리스트

▶ 비더블루 조바심 빛과 소금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이동할 때 늘 푸른 풀밭이 보이더라고요. 빠르게 지나가는 초원을 배경 삼아 듣기 좋은 음악입니다. 보사노바 리듬을 들으면 바다 생각이 나기 때문인지, 잠들었다겠을 때 기차가 부산 해운대에 도착하길 바란 적도 있어요.

▶ 박성호 Cayman Islands 킹스 오브 컨비니언스



이 곡을 처음 들었던 날, 기차타고 여행하면 이런 기분일까 하고 상상했어요. 제주도가 고향이라 성인이 되고 나서 기차를 타 봤거든요. 기차바퀴가 굴러가는 듯한 기타 아르페지오와 신비로운 분위기의 멜로디가 원하는 곳으로 나를 데려다줄 것만 같아요.

▶ 최준영 Sunnyside Cruise 티-스퀘어



경쾌한 리듬과 선명한 멜로디가 기차 여행을 더 즐겁게 해 줘요. 퓨전 재즈 특유의 리듬은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에 속도를 더하고, 이동하느라 지친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특히 낮 시간대 기차 여행에서 들어보길 추천해요.

▶ 이정열 Someday 스트로크스



스트로크스를 알고 나서부터 여행할 때마다 꼭 듣는 노래예요. 아름다운 풍경에 어울리는 가벼운 록 음악은 하루를 더 신나게 만들어 주죠. 여행길이 영화 속 한 장면이 되고, 음악이 영화의 BGM처럼 깔리는 것. 여행지에서 만나는 음악의 매력이지요.

▶ 팔칠댄스 춤 브로콜리너머



누군가와 함께 여행을 떠날 땐 이어폰을 한 쪽씩 나눠 끼고 음악을 들어요. 소중한 사람과 동행한다면 어디를 가든 마냥 신나고 설레잖아요. 이 음악은 그런 마음을 대변해 주는 노랫말이라 목적지로 향하는 동안 기분이 좋아져요.

▶ 팔칠댄스 Nylon 팔칠댄스



여행은 보통 들뜬 기분으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평범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새로운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행위이고, 이는 어쩌면 사랑에 빠지는 일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노랫말에 나오는 새로운 사랑 또는 장소와의 연결을 느끼며 여행해 보길 바랍니다.

기스톡스 ©

2026 꽃피는 순간 소풍 봄날의 유달산 봄축제

2026.
04. 04. 토 —
04. 05. 일
목포시 유달산 일원





고려 난파선 십이동파도선에서 출수된 목포해양유물전시관의 해남 청자.